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도시계획학박사학위논문

이웃관계의 중요도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 생애주기단계를 중심으로 -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정 유 진

국문초록

오늘날의 교통과 통신기술의 혁신은 네트워크 사회로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지역공동체는 탈공간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거공간에서의 공동체는 해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정책 등이 지역활성화 전략으로써 주목받고 있으며, 이들 정책들은 주민 주도로 마을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주거지 공간을 매개로 한 관계로써 이웃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도시민에게 주거지 공간을 기반으로 한 이웃관계가 다른 사회관계에 비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미흡하다. 또한 이웃관계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관계를 맺는 이웃에만 주로 초점을 두고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웃관계를 고정된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이웃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이웃관계 형성의 계기, 공간적 범위, 교류공간에 대한 연구결과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웃관계를 포함한 모든 사회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요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웃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실체로써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 교육, 독립 등의 가구의 특성 변화를 고려한 생애주기단계를 중심으로 개인이 맺게 되는 이웃, 친구 동료 등의 비혈연 사회관계 대비 이웃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또한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공간 기반의 이웃관계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웃관계의 비중을 확대시키는 변인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와 교류공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이웃관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 조성과 복원을 통한 지역활성화 전략으로써 마을 또는 주거지에서의 이웃관계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주거지에서의 이웃관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중요하며, 여성 중에서도 자녀초등기 이후부터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마을 또는 주거

지에서의 공동체 활성화 정책들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중요성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며,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 등 다양한 주거공동체 활성화 정책에서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주거지 공간을 기반으로 한 이웃관계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며 많은 이웃관계를 맺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웃과 관계를 맺게 되는 계기 및 필요를 고려하여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경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좀 더 기능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생애주기단계 중 자녀양육기와 자녀진수기 여성의 경우 이웃관계의 범위는 주로 단지 및 동네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웃교류공간으로써 도보권내의 계획공간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도보권내의 주거지에 커뮤니티 시설 및 공간을 공급하는 도시계획적 접근방식이 이들 생애주기단계에게는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반면, 자녀초등기부터 자녀중고등기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가 단지 및 동네를 벗어나 초등학교 통학구역 수준의 외부지향적이며, 이웃교류의 장소 중 비계획적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커뮤니티시설을 공급하는 등의 기존 계획적 관점에서 제공되는 물리적인 계획공간은 이들 생애주기단계의 이웃관계를 제고시키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생애주기단계의 이웃관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의 공급에 치중하기 보다는 자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웃관계 형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의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등의 정책에 있어서도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이웃관계 형성의 계기 및 공간적 범위, 교류공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물리적 커뮤니티 시설 및 공간의 공급 등의 하드웨어적 접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급 등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놀이터와 경로당, 공원 등의 계획공간은 자녀양육기와 자녀진수기 여성들이 단지 및 동네에서 이웃과 교류를 하는 데에 주요한 장소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공간들은 도시민이 주거지에서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시설로써 도보권 내의 기초생활권 내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시설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기성시가지에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공급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도시생활에서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간에 관한 요구로써 시빌미니멈(Civil minimum)에 대한 공급기준설정과 함께 공급이 필요하다.

넷째, 가구형성기와 자녀진수기 여성의 경우 주로 단지 및 동네 내부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계기 없이 자주 마주침에 의해 이웃관계를 형성하는 비중이 높게 분석되었다. 계획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우연한 만남을 통해 접촉의 기회를 늘리고 이웃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주거지에서의 공동체 활성화의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향후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로의 전환은 자녀를 계기로 이웃관계를 맺는 생애주기단계의 비율은 축소되고, 자녀진수기에 속하는 생애주기단계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의 이웃관계 형성을 독려하기 위한 주거공간에 대한 계획에서는 단지 및 동네 내부에서 우연하고 잦은 시각적 접촉을 유발하여 상호작용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들의 생활동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로 반사적반공적 공간에서 이웃교류를 하는 가구형성기를 고려하여 골목, 복도, 엘리베이터 등 자신의 주택으로 출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간을 공유하는 주민들과의 접촉의 기회를 늘려주는 주거지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진수기의 이웃교류를 독려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이웃과의 우연한 만남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도보권의 커뮤니티 공간의 공급과 배치가 필요하다.

주요어: 이웃관계, 생애주기단계, 공간적 범위, 교류공간, 교류의 계기
학번: 2005-30834

< 목 차 >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3

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 6

제 1 절 공동체의 개념과 변화 ····· 6
1. 공동체의 개념 ····· 6
2. 공동체의 유형 변화 ····· 8
3. 공동체 형성의 동기 ····· 12
제 2 절 이웃관계의 개념과 측정 ····· 14
1. 이웃관계의 개념 ····· 14
2. 이웃관계의 측정 ····· 18
3.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 ····· 20
제 3 절 이웃관계 형성의 영향 요인 ····· 23
1. 인구사회학적 요인 ····· 23
2. 생애주기단계 ····· 25
1) 생애주기단계의 개념과 구분 ····· 25
2) 생애주기단계와 이웃관계 ····· 28
3. 물리적 근접성 ····· 31
1) 일상에서의 상호작용, '마주침' ····· 31
2) 물리적 특성 ····· 33
4. 거주특성 ····· 36
5. 교류공간 ····· 37
제 4 절 소 결 ····· 43

제 3 장 분석틀과 조사방법 ····· 45

제 1 절 분석자료 ····· 45

제 2 절 대상지 선정 및 개요 ····· 48
제 3 절 조사방법 및 내용 ····· 51
1. 개별면담조사 ····· 52
2. 설문조사 ····· 55
제 4 절 응답자 현황 ····· 56

제 4 장 이웃관계의 중요도와 관계형성 요인 ····· 60

제 1 절 이웃관계의 중요도 ····· 60
1. 응답자의 사회관계 ····· 60
2. 이웃관계의 중요도 차이 ····· 61
1) 성별에 따른 중요도 차이 ····· 61
2)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중요도 차이 ····· 63
3. 이웃관계의 중요도에 대한 영향요인 ····· 65
제 2 절 이웃관계 형성요인 ····· 74
1. 생애주기단계별 관계형성 계기 ····· 74
2. 이웃관계의 필요성 인식과 기능 ····· 77
1) 이웃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77
2) 관계의 기능과 의식적 행동 ····· 79
제 3 절 소 결 ····· 86

제 5 장 이웃관계의 공간적 특성 ····· 90

제 1 절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 ····· 90
1.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이웃관계의 공간범위 ····· 90
1) 이웃의 거주지 분포 ····· 90
2) 이웃과 동네의 공간적 범위의 인식 ····· 94
2. 단지 및 동네 밖 이웃관계 형성의 영향요인 ····· 99
제 2 절 교류공간의 특성 ····· 102
1. 계획공간과 비계획공간의 이용 ····· 102
2. 생애주기단계별 교류공간 ····· 104
1)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교류공간의 분포 ····· 104
2) 교류공간 선호의 이유 ····· 106
3) 사이버공간의 이용과 이웃교류의 관계 ····· 110

제 3 절 소 결 ····· 115

제 6 장 결 론 ····· 119

제 1 절 연구의 결과 ····· 119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 122
1. 시사점 ····· 122
2. 연구의 한계 ····· 124

참고문헌 ····· 126

<부록 1> 다세대다가구 거주자용 설문지 ····· 138
<부록 2> 아파트 거주자용 설문지 ····· 141
<부록 3> 생애주기단계별 여성의 사회관계 비중의 평균순위 ····· 144
<부록 4> 변수간 상관관계 ····· 145
<부록 5> 공선성 통계량 ····· 146
<부록 6> 소득에 따른 사회관계의 규모와 비중의 평균차이 ····· 146
<부록 7> 지역별 학력 및 소득수준 차이 ····· 147
<부록 8> 이웃속성 자료의 구성 ····· 147
<부록 9> 주택유형별 이웃의 거주지 분포 ····· 148
<부록 10> 이웃관계 형성에 대한 직업, 이웃과의 거리, 주택유형, 소득수준의 영향 ····· 148
<부록 11> 주택유형별 교류장소 ····· 149
<부록 12> 생애주기단계별 교류공간 ····· 150

< 표 목 차 >

<표 1> 도시화지역과 교외지역의 인구규모에 따른 교우관계의 친밀도 차이 ····· 10
<표 2> 연구자에 따른 생애주기단계의 구분 ····· 27
<표 3> 사회적 장소의 종류와 그 특성 ····· 39
<표 4> 이웃의 주거지 유형 구분 ····· 47
<표 5> 교류공간의 분류 ····· 48
<표 6> 사례지역의 통학구역 ····· 50
<표 7> 사례지역 아파트 단지 현황 ····· 51
<표 8> 개별면담 응답자 개요 ····· 53
<표 9> 주요 면담 내용 ····· 54
<표 10> 지역별 응답자 분포 ····· 57
<표 11> 조사대상자의 일반 현황 ····· 58
<표 12> 조사대상자의 일반 현황(계속) ····· 59
<표 13> 사회관계의 유형별 남녀의 규모 차이 ····· 60
<표 14> 성별 사회관계의 비중 차이 ····· 62
<표 15> 여성의 생애주기단계별 사회관계의 규모와 비중의 평균 차이 64
<표 16> 기초통계량 ····· 66
<표 17> 이웃관계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69
<표 18> 가구원수에 따른 사회관계의 규모와 비중의 평균 차이 ····· 70
<표 19> 학력수준별 사회관계의 규모와 비중의 평균 차이 ····· 71
<표 20> 취업유무별 사회관계의 규모와 비중의 평균 차이 ····· 71
<표 21> 사례지역별 사회관계의 규모와 비중의 평균 차이 ····· 72
<표 22> 생애주기단계별 이웃관계의 계기 분포 ····· 76
<표 23> 주택유형별 이웃의 거주지 분포 ····· 91
<표 24> 이웃관계 형성 계기에 따른 이웃의 거주지 분포 ····· 92
<표 25> 생애주기단계별 이웃의 거주지 분포 ····· 94
<표 26> 단지 및 동네 밖 이웃의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01
<표 27> 주택유형별 교류공간의 이용 ····· 103
<표 28> 생애주기단계별 교류공간의 이용 ····· 105
<표 29> 이웃관계 형성 계기에 따른 교류장소 ····· 106
<표 30> 면담응답자의 사이버공간 활용과 이웃관계 현황 ····· 110
<표 31> 생애주기단계별 이웃관계의 특성 ····· 118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 5
<그림 2> 지역공동체의 단계적 형성 ····· 17
<그림 3> 연구 사례지역 ····· 5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의 혁신과 교통의 발전은 지역적 공간 개념을 약화시켰으며, 지구촌공동체와 네트워크 사회로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인터넷보급의 확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네트워크적 관계를 활성화시켰으며, 지리적 공간으로 결정되는 지역공동체를 약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을 및 주거지 중심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주목할 만하다. 공급위주의 기능 중심적 도시개발에 대한 반성과 인간중심적 도시환경에 대한 욕구는 지역특성과 인간의 행태, 지역공동체에 대한 고려와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을 초래하였다. 이에 지역공동체는 사회통합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써 이용되고 있다. 현재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의 시범마을사업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의한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의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마을, 동네와 같은 주거지를 기반으로 한 주거공동체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들 정책 및 제도는 주거지에서의 주민만남과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 및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활용, 주거공간의 물리적 개선 등에 대한 다각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도시와 주거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주거지 중심의 이웃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웃관계는 마을 또는 주거지라는 공간을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이므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근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주거지에서 가까이 거주하면서 만나게 된 이웃과 교류가 빈번해지면 상호간의 신뢰가 구축되고 지역에 대한 애착 형성 등 공동체 의식이 제고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이웃관계는 다른 유형

의 관계에 비해 중요한 사회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웃관계가 현대 도시민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회관계인가 라는 것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써 누구나 타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고독감을 달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드러내 보이려는 타고난 성향에 따라 다양한 범주의 사회관계를 형성한다. 이 중 이웃과 상부상조하는 과정에서 생존문제를 해결(강대기, 2004: 163)하려 하기 때문에 이웃관계는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공동체가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탈공간화 과정에 있으며 물리적 공간을 초월한 사이버 공간으로 그 상호작용과 집합의식의 양식과 내용에 있어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공동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관계를 그 이외의 사회관계와 비교했을 때에도 과연 도시민에게 중요한 사회적 관계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대 도시민에게 이웃관계가 중요한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을 고정된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실체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웃관계를 포함한 모든 대인적인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요구의 변화와 관련하여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의 출산과 양육, 교육 등의 변화는 가구 내에서 가구 구성원의 역할 및 요구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애주기단계별 개인이 맺게 되는 사회관계들의 변화를 고려하여 이웃관계의 상대적인 중요성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도시민에게 이웃관계가 다른 사회관계에 비해 실제로 중요하다면, 도시민의 이웃관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공동체의 근간으로써의 이웃관계는 주거지 공간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회관계이므로 이웃관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시민이 거주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 주거공간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웃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요인과 함께 이웃관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 및 교류공간 등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웃관계 형성의 주요 요인 및 이웃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적 범위, 이웃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들은 일관된 분석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분석결과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 및 교류공간에 대한 연

구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웃관계의 변화가 고려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및 주택지 블록 등의 제한된 주거지 공간을 대상으로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를 분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웃관계 형성의 계기와 공간적 범위, 교류공간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이웃교류의 공간적 범위를 단지나 블록 단위의 공간으로 제약하지 않으면서 생애주기단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개인이 맺게 되는 사회관계들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거지 공간을 기반으로 한 이웃관계의 상대적인 중요성과 그 차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생애주기단계별 이웃관계 형성의 계기 및 교류의 공간적 범위, 교류공간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지 공간을 기반으로 한 이웃관계가 중요한 주민들과 이들의 이웃교류의 공간적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이웃관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능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둔다.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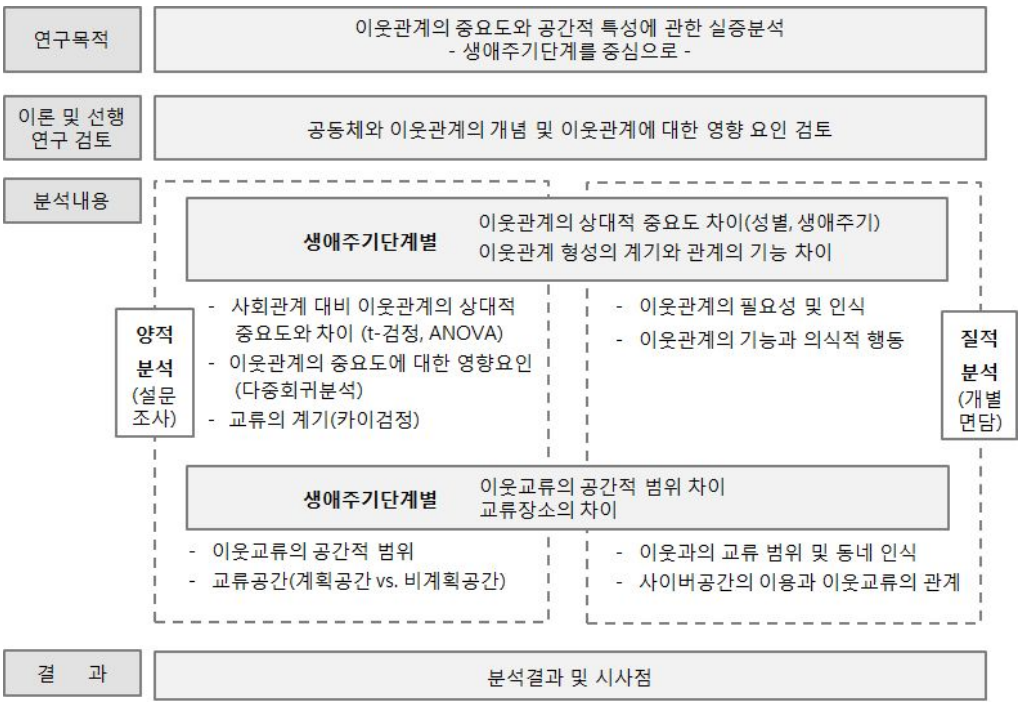
본 연구는 도시민들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들 중 공간에 기반을 둔 이웃관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확인하고, 성별과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이웃관계 중요도와 교류의 공간적 범위, 교류장소에 대한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로써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장에서는 공동체와 이웃관계에 대한 개념과 공동체 유형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주거지 중심의 이웃관계 형성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더불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이웃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웃관계의 비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웃관계와 관련된 요인으로 개인 및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이웃관계가 주거지에서 형성되는 관계이니 만큼 주거지에서 자주 마주침으로 인해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물리적 근접성, 가구의 생애주기단계, 거주특성, 교류를 유도하는 공간 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3장에서는 분석틀을 통해 분석자료를 소개하고 연구대상지역을 설명한다. 4장과 5장에서는 설문조사와 개별면담조사를 통해서 구축한 자료를 이용하여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병행한다. 4장에서는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사회관계 대비 주거지 공간을 매개로 한 이웃관계의 비중을 분석한다. 그리고 성별과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이웃관계 중요도와 이웃관계 형성계기의 차이를 확인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생애주기단계 속성이 다른 요인을 통제하고도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더불어 개별면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이웃관계에 대한 필요와 목적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웃관계의 기능 등에 관해 분석한다.

5장의 제1절에서는 생애주기단계와 이웃관계 형성의 계기를 고려하여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가 다른지를 분석한다. 더불어 개별면담자료를 이용하여 교류하는 이웃의 공간적 범위와 동네로 인식하는 공간의 범위 간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생애주기단계와 이웃형성의 계기에 따른 교류공간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특히 계획공간을 주로 이용하는 생애주기단계와 관계형성계기의 특성을 확인한다. 또한 개별면담자료를 이용하여 생애주기단계별 교류공간 선호의 이유를 고찰한다.

6장에서는 4장에서 파악한 생애주기단계별 사회관계 대비 이웃관계 중요도의 차이 및 관계형성의 계기 등에 관한 분석결과와 5장에서 확인한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 및 교류장소의 특성을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목적
이웃관계의 중요도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 생애주기단계를 중심으로 -
이론 및 선행 연구 검토
공동체와 이웃관계의 개념 및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 요인 검토
분석내용
생애주기단계별
이웃관계의 상대적 중요도 차이(성별, 생애주기)
이웃관계 형성의 계기와 관계의 기능 차이
양적 분석 (설문 조사)
- 사회관계 대비 이웃관계의 상대적 중요도와 차이 (t-검정, ANOVA)
- 이웃관계의 중요도에 대한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
- 교류의 계기(카이검정)
- 이웃관계의 필요성 및 인식
- 이웃관계의 기능과 의식적 행동
질적 분석 (개별 면담)
생애주기단계별
이웃교류의 공간적 범위 차이
교류장소의 차이
- 이웃교류의 공간적 범위
- 교류공간(계획공간 vs. 비계획공간)
- 이웃과의 교류 범위 및 동네 인식
- 사이버공간의 이용과 이웃교류의 관계
결 과
분석결과 및 시사점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제 1 절 공동체의 개념과 변화

1. 공동체의 개념

공동체는 사회 집단들이나 전체적 제도들 및 근린 집단들을 지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철학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마을이나 도시·거대도시 지역들을 포괄하는 총칭적 용어(generic term)로 사용되기도 하였다(신용하 편, 1985:46). Bernard(1973)는 이러한 공동체용어의 개념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Community(공동체)」와 「The Community(지역사회)」의 구별을 제안하였다(김종재, 1993:18). 전자는 공동의 이익이나 관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관심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장소라는 공간적·시간적 범위를 초월하는 공동체(Community)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집단은 태어난 장소, 공통의 문화적 신념, 종교적 유산, 인종 등에 근거하여 사회적 유대라는 공동체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집단들은 이러한 유대에 기반하기 때문에 지역성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Rubin and Rubin, 2001: 97).

후자는 인간의 공동생활이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사회(The Community)를 의미하며, 도시, 농촌, 이웃 등과 같은 지리적 경계를 가지고 있는 장소적 개념이다(Jacobson and Heitkamp, 1995). 이는 하나의 근린지역 또는 하나의 큰 주택 단지를 묘사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러한 장소에 살면서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Rubin and Rubin, 2001: 97). 지역사회로써의 공동체는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영역적 근접성에 의한 지역적 한계, 공동의 문화나 동류의식, 공유된 사회조직 내에서의 공동의 행동규범이라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일련의 상호작용의 대면집단체로서, 지역·공동적 유대 및 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공통요소들은 한 장소에서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공유된 가치로 뒷받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존스톤 외, 1992: 101). 이와 같이 공동체는 상호작용하는 개인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로서

대개 특정한 영역 내에 형성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마을, 주거단지, 도시 등 근접성의 공간적 단위에 거주하는 집단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강혜경, 2002: 11).

일정한 지역에서 사회적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간적 속성을 고려한 공동체(The Community)는 근린(Neighborhood)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공동체가 자급자족(self-sufficiency)이 가능한 근대생활의 일차적 사회집단으로 인식되는데 반해, 근린은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물리적인 지역에 국한되어 비교적 동질성을 가진 주민들간에 밀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집단으로써(Bertrand, 1958: 76-78), 구성원은 대부분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공통의 사회활동, 정보교환, 상호부조와 지원에의 참여, 그리고 함께 속한다는 공통된 정체성을 의식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박경환 역, 2009:149). 공간적 크기 측면에서, Mumford(1954)는 근린을 단순히 '공동거주(cohabitation) 또는 이웃간에 일상적으로 대면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공동체(the community)보다 좁은 공간적 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진미윤 외, 2001:76). 근린의 규모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밀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Haney와 Knowles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에서의 근린(urban neighborhood) 거주자들은 교외주거지역 주민에 비해 더 작은 규모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haskin, 1997: 533).

이상에서 언급한 근린(neighborhood)은 물리적인 지역 범위이면서 이웃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으로서 일상적 용어로는 동네와 이웃을 포함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동네의 범위는 공간의 의미가 강하고 이웃의 범위는 심리적 친밀도에 의해 평가되는 의미가 강하다(천현숙, 2001:31). 이와 관련하여 동네(urban village)를 근린(neighborhood)을 포함하고 능가하는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Chaskin, 1997). 근린은 구성원의 측면에서 덜 포괄적이고 몰입도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린 체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네를 물리적 공간으로써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가 누적된 장소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1].

---

1) 전상인은 동네의 개념을 4가지 조건을 통해 설명하였다. 첫째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서로를 알고,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비교적 믿고 사는 사이이다. 둘째는 시간 또는 역사이다. 동네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는 이야기이다. 동네의 문화적 완성은 공통의 기억과 체험에 기초한 다양하고 풍부한 스토리에

2. 공동체의 유형 변화

산업화 이후 봉건주의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종교에서 과학적 이성으로, 전통적 공동체(mechanical solidarity)에서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로 변화함에 따라 상호의존이라는 사회적 유대는 쇠퇴하였다. 이는 Tönnies의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community)와 게젤샤프트(gesellschaft; mass society)의 구분과 관련되어 있다. 게마인샤프트는 친숙한 접촉과 비공식적 영역, 충성과 감정에 토대를 둔 형태이며, 전통적 촌락 공동체가 그 전형이다. 반대로 게젤샤프트는 공동체적 관계가 더욱 개인주의적, 비감정적, 이성적이며,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형성하는 계약적, 사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Cater, J. et al., 1989: 170-171). Tönnies에 따르면 사회관계는 산업화, 도시화, 대중매체의 결과 점차 게마인샤프트에서 게젤샤프트로 변화하고 있다. Tönnies와 Wirth와 같이 근린공동체를 '상실된 공동체(community lost)'로 보는 연구자들[2]은, 도시 거주자들은 약하고 느슨하며 '비감정적, 일시적, 파편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까닭에 연대와 영역적 응집력에 기초했던 기존 사회관계를 대체한다고 보았다(질 발렌타인, 2009:153).

1960-70년대 공동체 연구의 관심주제는 산업사회에 이어서 출현하는 후기 산업사회, 또는 정보사회에서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공동체 지속여부(community question)'라는 주제에서 출발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부터 지역공동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도시에도 사회적 응집력을 갖춘 공동체(남겨진 공동체; community saved)가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이 등장하였다(Gans, 1962: Guterman, 1969; Kasarda et al., 1974; 강대기 외, 1982; 정창수 외, 1990; 김정선 외, 1999).

Gans는 「도시촌락민(The Urban Villagers)」을 통해서 후기 산업사회에 게마인샤프트의 존속을 확인하였으며, Wellman(1979)은 「공동체 지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넷째로 동네는 특정 공간을 활동무대로 삼는데, 골목길이 그것을 대표한다고 하였다. 그는 골목이 단순한 통행로가 아니며 사회적 공간이자 문화적 장소라고 칭하였다(전상인, 2009: 89-91 참고).

2) 1차적 접촉 대신에 2차적 접촉이 이루어지며, 근린집단적 결합의 쇠퇴, 사회적 연대의 전통적 기반 소멸을 지적하였다.

속여부(The Community Question)」을 통해서 현대사회에서 게마인샤프트가 변형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인 제이콥스(2010)는 도시를 본질적으로 인간의 장소로 표현하면서, 사교성과 친근함은 근린지구 수준에서 나타나는 사회 조직의 당연한 결과라고 보았다(폴 녹스 외, 2012: 218). 강대기 외(1982)는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시내거주 친척수가 이웃관계 형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도시내 근린에서의 인간관계가 일차적인 혈연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김정선 외(1999)는 급속한 도시화에도 대도시 아파트 거주민이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아직도 이웃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일차적 사회관계로 남아 있다고 분석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관점과 관련하여 Guterman(1969)은 일차적 관계(친구)의 친밀감(intimacy)은 도시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도시화에 따른 공동체적 유대의 약화는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도시 내에서도 공동체적 유대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규명한 것이다. 이것은 도시 인구 규모의 격차가 공동체의 소멸을 입증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것은 아니며, 단지 도시규모가 일차적 유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중 하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근린에서의 유대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즉, 도시화와 함께 공식화되고 분절화된 이차적 관계가 지배적인 유형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동시에 정의적 유대에 기초를 둔 일차적 관계의 소멸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친족이나 이웃 등과 같은 일차적 관계는 도시 지역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 도시화지역과 교외지역의 인구규모에 따른 교우관계의 친밀도 차이

친밀도	인구규모[3]		
	12만명 이하(%)	15만-25만명(%)	1400만명(%)
낮은 친밀도	42	47	58
중간 친밀도	24	26	19
높은 친밀도	34	27	23
응답자수	100(131)	100(185)	100(145)

출처 : Guterman, 1969: 497 table1 인용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물리적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극복하면서 인간의 생활영역은 지구촌으로 확대되었고, 인간관계의 내용과 형식 또한 변하게 되었다. 공동체도 공간을 초월하여 사이버 세계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마뉴엘 카스텔에 의하면 통신기술의 발달은 시공간상의 접근과 시간을 공유하는 것의 점진적인 단절로 정의할 수 있으며, 흐름의 공간은 인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성(시간공유의 선택된 시간)을 실천하는 기술적·조직적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이렇게 흐름의 공간[4]과 특정한 시간에 한정되지 않는 시간(timeless)에 의해 특징지어진 네트워크 사회는 정보와 상품, 자본과 사람과 지식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된 사회를 말한다(마뉴엘 카스텔, 2009: 65).

새로운 통신 매체로서 인터넷의 출현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상반된 주장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주로 근거한 가상공동체의 형성이 대면접촉의 상호작용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가 그것이다. 한편에서는 인터넷 확산이 지역 기반의 공동체를 파편화시키고 결국 사라지게 할 것이며, 전통적인 공동체 개념이 가상공동체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는 강한 공동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연구들

3) Guterman(1969)은 도시 규모 변수로 도시화 지역의 인구를 사용하였다.

4) 마뉴엘 카스텔은 네트워크 사회의 공간은 세 가지 요소 사이의 분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활동이 벌어지고 (그리고 활동을 벌이는 사람이) 있는 장소, 이런 활동을 연계시키는 물질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기능과 의미 면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정보흐름의 콘텐트와 형상이다. 그는 이것을 흐름의 공간이라고 칭하였다(마뉴엘 카스텔, 2009: 66).

이 있다(Bimber, 1998; Fernback, 2007).

Fernback은 사이버공간에서는 전통적인 개념의 공동체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가상공동체의 참여자들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없이 참여가 용이하다는 점에 동의할 뿐이며, 공동체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밀감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고 분석하였다(Fernback, 2007: 62-63). Bimber는 인터넷을 통해 두터운 공동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얇은 대화를 넘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고양시키는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것은 개인들 사이의 친밀성에 의해 가장 잘 발전한다. 때문에 신뢰, 사회적 자본 및 두터운 공동체의 공유된 규범은 익명성이라는 토양에서는 잘 성장하지 않는다. 둘째, 두터운 공동체는 안정적인 상호관계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지라는 기대감에 의해 번성한다. 셋째, 두터운 공동체는 종종 대면접촉이라는 보이지 않는 규범적 힘으로써 사회적 압력에 의해 증진되기 때문이다(Bimber, 1998:150-152).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지리적 공간을 중시하는 고전적 공동체 이론의 공간 결정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가상공간에서의 네트워크가 공동체적 관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이다.(마뉴엘 카스텔, 2004, 2009; Gotved, 2002). 이는 개인을 지리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고, 장소 기반의 존재에서 벗어난 새로운 이익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합시키며, 네트워크가 장소를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가상공동체에 대한 상반된 주장 외에도 최근 가상공동체에 대한 연구들은 가상공동체와 공동체를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양자간의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 공간마찰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해도 공간 또는 장소를 시대에 뒤진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가상공동체와 공동체의 성원들이 서로 중첩적인 경우 가상공동체는 공동체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Hampton et al., 2000; Kavanaugh et al., 2001, 2005; Wellman et al., 2001; Arnold, 2003; 홍성구, 2009; 박성복, 2006).

가상공동체와 현실공동체의 성원들이 서로 중첩되는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민은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 보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높으며, 인터넷은 강하고 약한 사회관계와, 수단적이고 정서적, 사회적인 다양한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Hampton et al., 2000). 또한 대면

접촉과 전화통화를 대신하여 온라인이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보충하며 자원봉사단체나 정치 등에 대한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이용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상호작용을 연계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llman et al., 2001).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경우, 인터넷이 공동체의 형성 및 유지 혹은 사회적 자본의 수립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이다(Kavanaugh et al., 2001, 2005; Arnold, 2003).

가상공동체(online community)와 현실공동체(offline community)를 조합한 새로운 공동체 시스템을 제안한 연구도 있다. Etzioni, A. et al.(1999)는 가상공동체와 현실공동체를 조합한 제3의 공동체로서 혼합형 공동체(hybrid community)를 제안하였다. 이들은 가상공동체와 현실공동체를 조합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유대관계와 가치공유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혼합형 공동체는 각각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혼합형 공동체 개념은 최근 한국의 많은 아파트 가상공동체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혼합형 공동체에 대한 Etzioni, A. et al.의 긍정적인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상커뮤니티의 활용과 관리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홍성구(2009)는 공동주택의 현실공동체와 가상공동체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가상공동체가 현실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현실공동체가 활성화 되면서 가상공동체는 쇠퇴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공동체가 활성화 되면서 가상공동체는 상호작용함에 있어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3. 공동체 형성의 동기

생산기술의 분업화와 교통 및 통신기술의 발전 이전의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구조를 지역성, 상호작용, 공통의 연대의 구성으로 보았으나, 이후 통신기술의 혁신과 그에 따른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구조가 해체과정을 겪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체의 구조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제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기본적인 기능 즉, 생존을 위한 욕구충족과 자아를 실현하려는 개인들의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강대기, 2004:162).

퇴니스는 인간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을 의지로 보았으며 본연의지에 의한 사회적 결합을 게마인샤프트라고 하였다. 즉, 본연의지는 인간의 타고난 성향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된 채 살아갈 수 없으며,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맺는 이유는 인간의 생리적 욕구 충족과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실현, 즉 자아실현에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인간들이 이러한 욕구와 자아실현의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장을 사회적 장(social field)라고 할 수 있다. Wilkinson(1970)은 사회적 장을 주관적 자아가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의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공동체를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환경이자 집단행동과 개인의 현상학적인 경험의 장으로 정의하면서, 개인들이 상호작용하는 상황으로서의 사회적 장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장 즉,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호작용(interaction)이다. 상호작용 개념은 최근 분화되고 다원화된 후기 산업사회의 공동체를 설명하는 데 적절하며 특히 종래의 정치·경제적 제도 분석으로부터 전환되고 있는 문화적 측면의 이해에 광범위한 설명력을 지녔다. Berger와 Luckmann에 의하면 상호작용은 상징적 표상화(symbolic representation), 유형화 (typification), 관습화(habitualization)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의 과정을 거쳐 구조화된 생활세계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축된 생활세계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사회적 상황이 된다(강대기, 2004: 164인용).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주요 요소는 행위자, 목적, 수단, 상황조건이 있으며, 이중 행위자는 상황조건[5]을 고려하면서 개인의 행위동기에 따라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aslow는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인간이 각자의 필요와 욕구에 바탕을 둔 동기(motive) 때문이라고 하였다[6]. 강대기는 이

---

5) Parsons, T(1937)는 사회적 행위의 4가지 요소 중 상황조건을 중요시하였으며, 더불어 주어진 상황하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결단을 중요시 하였다(강대기, 2004: 164).

6) Maslow의 동기이론(motivation theory)이란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의 내용 및 동기유발 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말한다. 이 가운데 동기유발 요인의 내용을 설명하는 이론을 내용이론(content theory)이라 하고, 동기유발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과정이론(process theory) 이라 한다(이철수 외, 2009, 사회복지학사전). Maslow는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를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러한 개인의 욕구 중 자아실현은 거의 전적으로 사회적 가치지향과 규범적 수단에 의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관계는 생존 욕구와 사회적 자아실현의 기본적 욕구가 조정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다.

공동체는 개인의 생존의 욕구 및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동기에서 상호작용이 시작되며, 이들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인간의 욕구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제도가 변화한다고 해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어떠한 형태로든 남아있을 것이다.

제 2 절 이웃관계의 개념과 측정

공동체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7]에서 시작된다. 상부상조하는 사회체계나 공동체 문화는 반복되는 대인관계를 통하여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유형이나 특성은 전적으로 그 공동체성원들이 어떠한 내용과 형태의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상호작용은 개인 또는 집단간의 사회관계를 가리키지만, 일반적으로 집단보다는 개인간의 사회관계를 말한다(강대기, 2004: 171 인용). 따라서 지역이나 마을, 근린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유형이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의 기본단위로써 '이웃관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1. 이웃관계의 개념

이웃은 사전적으로 '나란히 또는 가까이에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구분하였다.

7) 상호작용(interaction)은 사회적 행위자들이 특히 대면적 만남에서 서로 관련되는 과정과 방식을 말한다(고영복 편, 2000, 사회학사전)

있어서 가까이 사는 집이나 사람'을 의미한다.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웃을 정의한 Bergel은 "지역적으로 근접하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는 일차적이고 비공식적인 집단이며, 이 한계는 뚜렷하지 않지만 비교적 작기 때문에 주민상호간에 면식적 관계가 성립되고 유지되는 집단"이라 정의하였다(Bergel, 1975:478). 이와 같이 공동된 지역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회관계로써의 이웃관계는 구성원들간의 지역적 근접성으로 특징지어 지기 때문에, 이웃과 서로 대면적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따라서 물리적 공간인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주민들간의 사회적 접촉은 근린관계 또는 이웃관계 형성의 시작이다[8]. 일반적으로 이웃관계는 공간의 근접성 때문에 형성되기 때문에 제약된 공간지역에서 집합적인 사회관계를 가지게 된다. 또한 이웃은 지역공동체의 일부분으로서 물리적인 지역에 국한되어 상호간에 밀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구분됨으로써, 이웃간 상호작용에는 친밀성이 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Bertrand, 1958). 즉 이웃은 공간적 근접성으로 인해 대면접촉을 하게 되고 상호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며, 이러한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을 이웃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웃의 개념에 이웃에 대한 인식의 차원(이웃에 대한 태도)을 포함시켜 이웃관계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Abrahamson(1976)은 이웃을 생태학적 단위로서의 거주지역,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형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느끼는 상징적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중 상징적 대상으로서의 이웃에 대한 이해는 이웃관계를 실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잠재적 차원에서도 설명하는 것이다(Abrahamson, 1976: 148). 특히 Mann(1954)은 이웃관계를 현재적 이웃관계(manifest neighborliness)와 잠재적 이웃관계(latent neighborliness)를 포함하여 설명하였다. 전자는 상호가 도움주기, 대화, 빌리고 빌려주기 등의 명백한 형태의 사회관계들이다. 후자는 질병 등과 같이 이웃에게 필요가 발생했을 때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행동이 발현되는 관계를 의미한다(Mann, 1954:164). Mann은 현장조사시에 현재적 이웃관계와 잠재적 이웃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면 이웃관계에 대해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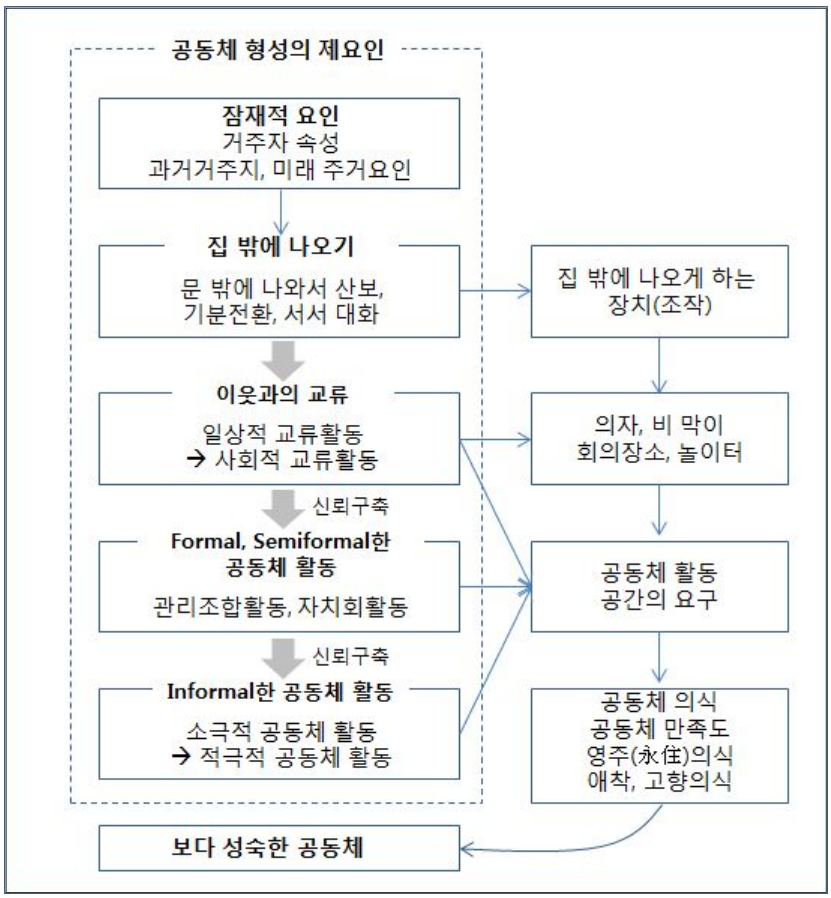
---

8) 근린관계와 이웃관계는 그 의미가 유사하며, 본 연구에서는 동의어로서 사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적 차원만을 포함하는 정의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는 잠재적 이웃관계가 이웃에 대한 태도 측정을 요하며, 측정된 태도 역시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능성은 불명확한 사실을 측정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웃관계는 지역 및 마을 등의 공간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형성의 근간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있어서는 지리적 영역과 사회적 상호관계, 공동의 연대라는 구성요소[9]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발전하게 된다.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가까이 거주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인사를 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교류가 시작된다. 이웃들과의 교류는 일상적 교류활동과 사회적 교류활동으로 구분된다(Woldoff, 2002: 96). 전자는 이웃간의 인사와 대화를 통한 정보공유, 서로간의 비공식적 상호부조 등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후자는 이웃과 사적인 문제를 상의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이웃과 좀 더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간의 일상적이고 사회적 교류활동을 통해 주민간 신뢰가 구축되면, 마을이나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면서 형식적·반(semi)형식적인 공동체 활동인 관리조합이나 자치회활동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서는 각종 서클 활동 등의 형식적인 공동체 활동으로의 발전을 단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김현진, 2010; 노정민, 2013).

9) 공동체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분류하고 정의한 Hillery(1955)에 의하면, 공동체는 지리적 영역(geographic area)과 사회적 상호관계(social interaction), 공동의 연대(common ties)라는 공통적인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이 연구에 기초하여 공동체는 한 지리적 영역내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동연대를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하였다.



<그림 2> 지역공동체의 단계적 형성

출처: 久保妙子西村一朗, 1986:155; 김현진, 2010: 20와 노정민, 2013: 14 재구성

지역 주민들 간의 일상적인 교류와 친밀한 관계는 지역공동체 형성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웃과 일상적인 접촉을 통한 유대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동네를 단위로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들 사이의 접촉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김일석 외, 2007). 또한 주민간의 일상적 교류활동은 계획과정에서 주민들의 공식적 참여(계획활동[10]) 보다 일상적 활동이 공동체 의식과 친밀도, 참여도, 신뢰도 등의 사회자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정민, 2013). 특히 지역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관심조차 없던 지역주민들이 점차 지역문제 및 현안에 관

10) 노정민(2013)은 주거지 재생사업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마을학교, 재생추진협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계획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계획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심을 보이게 되는 계기는 비공식적 인간관계[11]에서 구축된 신뢰관계 속에서 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이영아 외, 2008). 따라서 지역공동체 활성을 위해서는 주거지에서의 활발한 이웃관계가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이웃관계의 측정

이웃관계의 측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 관점에 의해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근린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인이 맺고 있는 이웃관계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이웃관계를 개인이 맺고 있는 다양한 사회관계 중 하나로 보고 사회관계망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방식은 이웃과의 다양한 수준의 친교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의 수나 그 정도를 점수화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Wallin(1953)이 구성한 Guttman 척도가 사용되고 있다. 거트만 척도는 이웃간에 다양한 정도의 친교관계를 기술한 몇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고, 각 문항에서 기술한 친교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의 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다양한 연구들은 이웃과의 교류내용 및 교류 정도 등의 이웃관계의 내용과 함께 친밀감이나 참여도, 신뢰도, 동질감, 장소애착 등 근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공간적 범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Kasarda et al, 1974; Mayo, 1979; 정창수 외, 1990; 김동우, 1985; 강대기 외, 1982; 최재석, 1983; 진미윤 외, 2001; 천현숙, 2004; 최열 외, 2007; 이경환, 2009; 이수용 외, 2011). Mayo(1979)는 이웃에의 참여도를 9개 질문[12]을 통해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강대기 외(1982)는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이웃을 대상으로 이웃관계를 빈도(양적)와 강도(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측정하였다. 진미윤 외(2001)은 이웃동질성, 사회적 교

11) 이영아 외(2008)는 비공식적 인간관계를 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이웃이나 친구들, 동네 가게를 이용하며 알게 된 사람들로 정의하였다.

12) 질문의 내용은 1. 비공식적 모임에 참여, 2. 공식적 모임에 참여, 3. 대중매체 아이템 공유, 4.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줌, 5. 물건 등을 주거나 받음. 6. 전화로 대화, 7. 앞마당이나 뒷마당에서 수다떨기, 8. 야외활동에 참여, 9. 공식조직에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

류 정도를 통해 근린의식을 측정하였으며, 알고지내는 이웃의 수와 원하는 교류 정도를 통해 이웃관계를 측정하였다.

이웃관계를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관계 중 하나로 인식하는 사회관계망 연구들도 있다(Fiori et al., 2006; 강성희 외, 1996; 원효종 외, 2002; 박경란, 2012). 이들 연구들은 사회적 환경으로서 사회관계망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관계의 구조적 측면과 상호작용(기능, 유대)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사회관계망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교환관계망 측정법이 주로 사용되며, 이는 관계망 구성원들과의 기능들, 즉 교환영역을 여러 문항을 통해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이러한 기능을 충족시키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도록 함으로서 관계망 구성원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다.

개인의 사회관계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회관계망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사회관계망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접촉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 단위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일상적 생활에서 혹은 위기시에 요구되는 도움을 제공하는 지원체계(Ell, 1984)로서 간주하고 있다. 사적 사회관계로서의 의미로 사회관계망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관계의 범주를 친족, 친구, 이웃 등 일차적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종교단체 각종 모임과 사회단체에서 형성되는 친밀한 관계들을 모두 포함한 자발적 단체의 구성원을 이차적 관계로 구분하고 있다(Ell, 1984[13]; 강성희 외, 1996; 원효종, 1997).

전자의 연구들은 주로 근린에서의 이웃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이웃관계의 범위(이웃의 수)와 기능 등의 다양한 척도를 통해 이웃관계를 측정하였다. 이들 척도들은 개인의 친분의 차이를 고려하여 조사함으로써 응답자간의 이웃관계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전체 사회관계에 있어서 주거지 공간을 기반으로 한 사회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이웃관계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주민들의 특성 및 교류행태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맺고 있는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이웃관계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개인의 사회관계망을 측정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

13) Ell은 사회관계망을 개인이 사회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며, 가족, 친구, 이웃, 동료와 공식적 지지자(formal helpers)가 포함된다고 하여 이전의 연구자들에 비해 사회관계망의 범주를 확대시켰다.

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사회관계는 친인척을 제외한 비혈연 관계 중 '현재 직접적인 만남과 연락을 하고 있는 친한 사람들'로 한정하며, 사회관계에는 이웃과 친구 등의 일차적 관계와 직장 동료와 취미여가활동 및 종교활동 등의 자발적 단체의 구성원이 포함된 이차적 관계를 포함한다.

3.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

일반적으로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는 근린의 공간적 범위로서 근린생활권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근린생활권은 사회·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가지는 지역공동체가 일상의 활동을 보행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김인희 외, 2007:11-12). 근린생활권으로써 동네에 대한 인식 범위는 아파트 거주자보다 단독주택거주자가 근린범위를 상대적으로 더 넓게 인식하는 등 주택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지만(최열 외, 2005:193-194), 동일한 주택유형에서도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파트의 경우 주로 근린주구에 의한 생활권으로써 한 개의 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으며 간선도로에 의해 구획된 블록을 의미하는 근린생활권에 비해 확장된 형태로 동네를 인식하기도 하며(김재윤, 2003; 김건형, 2010), 그 보다 넓은 범위를 근린으로 인식하고(최열 외, 2007),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우리 동네'로 인식하기도 한다(이상준, 1996:181; 진미윤 외, 2001; 이원영, 2011). 진미윤 외(2001)는 분당구 시범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분당구 시범아파트 전체와 이웃하는 몇 개의 단지로써 주로 일정한 규모를 이루고 있는 '단지' 위주의 개념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아파트 단지를 근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연구에서 천현숙(2001)은 기성시가지의 노후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조사설문을 통해서, 주민들이 행정동과 함께 도보5분 이내,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구 등의 비교적 작은 범위를 '우리 동네'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천현숙, 2001:153-154). 국외 연구에서는 단독주택지역에서 친밀한 이웃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적 범위로는 주로 블록(block)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plow et al, 1950; Gans,

1967). Caplow et al,(1950)은 단독주택지역에서의 높은 통합적 커뮤니티는 블록(block) 내에서 만들어지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다른 블록으로 확장되지 않고 해당 블록 지향적인 것으로 분석하였다(Caplow et al, 1950: 363). Gans(1967)는 친밀한 이웃관계는 주로 자신의 주택과 물리적으로 인접한 주택들을 포함한 범위로 한정되며, 자신의 주택을 중심으로 좌우, 앞뒷집을 포함하여 물리적으로 인접한 12가구 정도로 분석하였다. 즉, 친밀한 이웃관계는 주로 블록 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하였다(Gans, 1967: 156).

주민들이 인식하는 동네에 대한 영역적 범위와 일상생활에서 형성 및 발달하는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14]. 김광복 외(2005)는 주택재개발아파트에 거주하는 임대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공간범위인 '이웃범위'와 자신의 동네라고 느껴지는 공간으로써 '동네범위'를 측정한 결과 이웃범위가 동네범위보다 작았으며, 임대주택거주자의 이웃범위[15]는 주로 임대아파트에 국한되며, 동네범위는 전체 아파트단지에 한정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김광복 외, 2005; 81-82).

아파트의 물리적 특성과 이웃관계 간의 관련을 분석한 연구들이나 아파트단지 내부에서 형성되는 이웃관계의 실태와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시설계획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둔 연구들은 주로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를 아파트 단지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김동우, 1985; 강영민 외, 1998; 김정선 외, 1999; 진미윤 외, 2001). 김동우(1985)에 의하면 아파트단지에서의 이웃관계는 주로 물리적으로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웃과의 공간적 범위는 같은 층과 계단에 한정되어,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동 내(70.4%)의 범위로 국한되어 있음을 밝혔다(김동우, 1985:59-61). 김정선 외(1999)는 주로 아파트 단지의 같은 동 내에서 이웃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웃관계는 기본적으로 근접성과 거주기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하였

14) 이는 주거지개발에 있어서 행정구역 단위의 획일적인 근린계획 수립은 주민들로 하여금 동네의 범위를 이웃과의 유대관계가 고려되지 않는 단순한 지리적 범위로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주거지 계획시 기존 근린관계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함을 의미한다(최열 외, 2005)

15)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주택거주자는 임대주동보다 넓은 지역을 이웃범위로 인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커뮤니티시설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김광복 외, 2005: 81).

다.

이웃관계를 공간적 범위를 아파트 단지 등으로 제한하지 않은 연구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를 벗어나서도 이웃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그 편차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상준, 1996; 최열 외, 2007; 이원영, 2011). 이상준(1996)과 이원영(2011)은 '이웃으로 느끼는 의식의 범위'를 이웃의 공간적 범위로 간주하였으며, 이웃과 동네의 범위를 아파트 단지 밖을 포함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이상준(1996)은 이웃의 공간적 범위는 주로 같은 층 또는 단지 내 같은 동으로서 자신의 주택과 물리적으로 인접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아파트 단지 외부를 포함하여 이웃의 범위로 인식한 경우는 1.6%로 미미하였으며, 동네의 경우에는 6.1%로 분석하였다(이상준, 1996: 180-181). 이원영(2011)은 국민임대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이웃의 인식범위를 조사하였으며, 주로 같은 아파트 단지를 이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응답자의 20%가 '이웃 아파트 단지 거주민'을 이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는 수집된 응답자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해 특정 아파트의 응답자의 자녀 평균연령이 초등학교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 친구들과의 교류에 의해 인근 다른 아파트까지 확대되어 다른 단지에 비해 이웃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원영, 2011:157-158).

이처럼 이웃의 인식 범위가 '인근 다른 아파트 거주자'로 확대될 수 있음을 추측한 연구들에 비춰볼 때, 주거지 중심의 사회관계 즉,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가 '근접성'에 근거하여 물리적으로 구획된 아파트 단지나 주택지의 블록에 한정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마다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는 매우 상이한 것으로 분석된 것은 이웃관계를 맺는 주민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웃과 교류활동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령, 자녀의 출산 및 발달 수준, 가구원수, 취업유무, 주거지 특성 등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3 절 이웃관계 형성의 영향 요인

1. 인구사회학적 요인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웃관계는 여성에게 있어서 남성보다 이웃관계망의 기능의 수행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atters, 1989; 강대기 외, 1982; 우 용, 1994; 김정선 외, 1999). 이는 여성이 가족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기능을 주로 담당하며, 특히 가족의 모든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이은해 외, 1999). 김정선 외(1999)는 친한 이웃의 유무에 대한 분석에서 이웃관계에 성별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적극적인 이웃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이웃과의 접촉 기회가 그만큼 많은데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Ishii-Kuntz et al(1989)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웃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이 이웃과의 교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연령의 증가가 이웃과의 교류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강대기 외, 1982: 최성기, 1984)와 오히려 감소한다는 연구(오선주, 1992)로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강대기 외(1982)는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 연령이 많아질수록 근린환경에 대한 기대와 불만감이 낮아짐으로서 근린환경 인지에 대한 호의적 경향이 늘어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거주지역의 근린공동체에 대한 만족도가 늘어나고 이주의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강대기 외, 1982:131). 정창수 외(1990)는 이웃관계에 대한 연령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모든 분석지역에서 30대와 40대의 이웃관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이에 대해서 양육하는 자녀의 유무내지는 수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해석하였다. 이웃관계에 대한 연령효과가 일정한 방향으로 일률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은 “생애주기”를 수반하는 생활양식과 관련하여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Bulmer, 1986; 정창수 외, 1989:177에서 재인용).

자녀는 이웃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구

내에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친밀도와 참여도 또는 이웃의 수 등 이웃관계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ayo, 1979; 정창수 외, 1989). Mayo(1979)는 이웃과의 참여도를 이웃관계로서 설정하였고, 이웃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구 내에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수이며, 동거자녀가 많을수록 이웃 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동우(1985)는 자녀의 많고 적음보다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웃관계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자녀가 없는 주부가 자녀가 있는 주부에 비해 친밀한 근린접촉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최재석, 1983).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웃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치된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이웃관계와 사회경제적 지위는 반비례하는 관계로, 학력이나 소득이 낮을수록 이웃관계가 높다는 연구들이 있다(강대기 외, 1982; 김동우, 1985).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높은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의존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호의존성이 클수록 이웃관계가 증대되며 이러한 의미에서의 이웃관계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우용, 1994:36). 더불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이차 집단과의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웃관계가 저조해진다고 분석하기도 한다(강대기 외, 1982). 강대기 외(1982)는 가구소득이 올라갈수록 이웃관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수입증가가 광역지향적(廣域志向的)인 태도가 늘어나고 실제의 생활 및 활동반경이 넓어져서 그만큼 이웃과의 관계가 적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김동우(1985)는 중상류층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주로 반상회라는 다분히 타율적으로 부여된 계기에 의해 이웃관계가 형성되며, 중하위층 아파트단지의 경우 자율적인 동기(인접성, 자녀)를 통해 이웃 형성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의 주민일수록 이웃관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소득과 이웃관계는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이웃관계가 적거나 약하다는 연구들이 있다(정창수 외, 1990; 김정선 외, 1999). 정창수 외(1990)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웃관계가 보다 활발한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이웃간의 상호작용 역시 자원과 영향력의 교환관계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김정선 외(1999)는 중산계

층과 계층혼합이 이루어진 아파트 거주민보다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의 이웃관계가 낮았으며, 소득계층에 따라 이웃과의 상호작용의 기능이 다르다고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직업 및 학력 등에 있어서 이웃과의 동질적 특성은 근접한 이웃관계에 있어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먼 거리에서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Athanasiou et al., 1973:55-56). 즉, 직업 및 학력 등의 동질적인 요인들은 이웃관계 형성에 있어서 거리의 장벽을 극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취업여부에 의해서도 이웃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경우 전업주부가 시간제 또는 전일제 취업주부보다는 이웃과의 친밀도와 근린생활에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Mayo, 1979:389), 이웃관계의 규모에 있어서도 전업주부의 경우 유의하게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은혜 외, 1999: 101).

2. 생애주기단계

1) 생애주기단계의 개념과 구분

일반적으로 가족의 생애주기(life cycle)는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동태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을 말하는데, 개인이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성장·결혼·출산·육아·노후의 각 단계에 걸친 시간적 연속을 의미한다. 가족은 결혼으로 형성되고 자녀의 출산으로 발전·확대되다가, 자녀의 결혼·분가로서 축소되면서 사망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일주기는 끝나게 된다(유영주 외, 2013). 가족의 생애주기[16]는 가족의 형성으로 시작되

16) 사회에는 생물학적 연령에 기초한 수많은 사회집단이 있다. 개인이 출생에서 사망까지 옮아가는 동안은 여러 연령층위의 연속으로 이어져 있으며 이를 개인의 생애주기라고 한다. 대부분의 현대 서구사회에서 생애주기는 다음의 연령층을 포함한다. 즉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 장년기(기혼자), 노인기이다. 이러한 각 연령층에 일련의 행위가 행해지도록 기대되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의 생애주기의 묘사는 특히 가족과 관련되는 많은 중요한 사회화과정의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생애주기는 시대에 따라 사회마다 다양한데, 각각의 사회는 생물학적 연령을 다르게 정의하고 재정의하고 있다. 아동기의 연령층위는 최근 세기에 선진사회에서 점점 더 길어지고 있고, 사춘기라는 새로운 층위가 18세기에 여러 유럽사회에서 분화되었다.(고영복 편, 2000).

어 해체 될 때까지 가족의 생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특징적인 단계들이며(Duvall, 1957), 이것으로 전 과정에 걸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패턴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서 가족이 경험하는 각 단계의 특수한 문제와 잠재가능성, 강점과 취약성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Duvall, 1977).

생애주기는 생애 전 과정에서 전후가 충분히 구별되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며, 각 단계의 변화는 가족의 조직과 상호작용패턴에서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생애주기 추이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는 역할 전이(role transition)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한 가족구성원의 발달단계에 따른 역할전이는 가족의 상호의존성에 의해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역할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서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상호작용패턴과 가족구성원들의 역할 복합체(the family's role complex)에 변화가 발생하게 됨으로(Aldous, 1978:80-82) 전반적인 가족생활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애주기단계 구분은 가족의 크기와 구성 또는 자녀의 유무와 교육과 같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 단계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자녀 유무와 자녀의 성장·발달에 따라 가족과 개인의 욕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생애주기단계 구분은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Duvall과 Rogers는 자녀교육기 단계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상호의존성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자녀교육기를 자녀학령기와 자녀중고등기로 구분하고, Hill & Duvall의 단계구분에서 독립된 젊은 성인기와 가구형성 이후 자녀가 없는 부부를 포함하여 '가구형성기'로 구분하였다. 또한 자녀가 성년이 된 시기부터 부모로부터 출가·분가하기 전까지를 자녀성년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유영주(198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생애주기 단계에서는 자녀의 진수기 단계가 뚜렷하지 않으며, 중년기의 경제적 회복기가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에 첫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6단계로 구분하였다.

<표 2> 연구자에 따른 생애주기단계의 구분

연구자	구분기준	주기	내 용
Duvall (1957)	첫 자녀 연령	8단계	가구형성기, 자녀유아기, 미취학 아동기, 취학아동기, 자녀청소년기, 자녀의 진수기, 중년부모기, 노년 부부기
Rogers (1962)	첫 자녀와 막내자녀의 성장	9단계	가구형성기, 자녀영아기, 자녀학령전 아동기, 자녀초등학교아동기, 자녀사춘기, 자녀성인기, 자녀진수기, 중년기, 노년기
Aldous (1978)	자녀 연령	7단계	부부형성, 출산기, 자녀초등학교기, 자녀 중학교기, 자녀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Hill & Duvall (1988)	2세대 핵가족	6단계	독립된 젊은 성인기, 신혼부부기, 어린자녀, 사춘기 자녀, 자녀 분가, 노년기
유영주 (1988)	첫 자녀의 나이	6단계	가족형성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교육기, 자녀성년기, 자녀결혼기, 노년기
진미윤 외 (2001) 박지혜 외 (2006)	첫 자녀의 나이	4단계	미취학기, 초등학교기, 중고등학교기, 성인자녀기

출처 : Aldous(1978), 86-87와 박미혜(2009), 8-9 <표 1>을 재구성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유무와 부모자녀간의 상호의존도 및 독립여부를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6단계로 구분하였다. 가족의 생애주기단계라는 측면에서 성인 남녀가 가족을 형성한 후, 자녀를 출산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가구형성기'로 구분하였다. 자녀의 출산으로 가족이 확대되는 시기로써 부모자녀간의 신체적 정서적 상호의존관계가 긴밀한 시기로, 맏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이전의 단계를 '자녀양육기'로 구분하였다. 자녀교육기 단계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상호의존성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Duvall과 Rogers의 단계구분을 고려하여 자녀교육기를 '자녀초등기'와 '자녀중고등기'로 구분하였다. 또한 자녀가 성년이 된 시기부터 부모로부터 출가·분가하기 전까지를 '자녀성년기'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출가 또

는 분가를 통해 물리적으로 독립하는 부모의 노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를 '자녀진수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생애주기단계를 가구형성기와 자녀양육기, 자녀초등기, 자녀중고등기, 자녀성인기, 자녀진수기인 6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2) 생애주기단계와 이웃관계

가족이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는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변화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가족의 사회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가족에 속한 개별 가족구성원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역할과 요구 및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이다(Stueve & Gerson[17], 1977; Fisher et. al, 1989; 원효종, 1997:35). 역할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관계 형성의 토대가 되는 타자망(pool of others)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의 발달단계에 따른 역할의 변화는 그들의 사회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사회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부모자녀간의 상호의존성의 변화에 의해서 설명(Ishii-Huntz 외, 1989: 원효종, 1997)하고 있다. 자녀들의 성장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상호의존성의 변화는 여성이 가족외부에서 친밀한 관계를 발달시키는데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의 양에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여성들이 접촉을 시도하게 되는 관계의 종류와 범위는 달라지게될 것이다(원효종, 1997:38-39). 이는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상호의존성의 차이가 부모의 사회관계에 대한 관여를 달라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의 발달과 신체적·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처한 개인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물질적 도움과 원조를 얻으려고 한다. 즉, 개인은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변화와 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이웃과의 상호작용을 의도할 것이며,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이웃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18]의 기능과 그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

17) Stueve & Gerson(1977)은 가족생활주기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결혼과 부모됨은 사회적 관계의 변화의 전환점이 된다(Fischer, et al, 1989: 522).

18)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써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환경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상

부모자녀간의 상호의존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역할 및 요구, 상황의 차이가 부모의 사회관계 형성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 태어나기 전인 가구형성기의 사회관계는 자녀의 부재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녀가 없는 부부들은 이웃보다는 주로 배우자(Ishii_Kuntz, O. et al, 1989:787)와 친척과의 관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scher, J., et al, 1989). 또한 직업을 가지는 경향이 크고 학교 등의 근린지역 문제와 관련이 적으므로 이웃관계와의 관련은 적다는 것이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기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매우 의존적이므로, 부모들은 이웃, 친구, 친족들과의 광범위한 상호작용을 제한받게 된다(원효종, 1997:36). 특히 자녀의 출산[19]은 어머니에게 더 큰 역할변화를 요구하므로 기혼 여성의 사회관계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자녀의 교육기가 되면 자녀들이 여전히 의존적이기는 하지만 기술과 능력이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부모자녀간의 상호의존성은 감소한다. 따라서 부모들은 시간 자원의 증가와 함께 비공식적 관계를 발달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지게 되고, 이웃과 친구, 기타 친족들과의 유대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친족이나 이웃, 타 학부모들과 사회관계망[20]을 형성함으로서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나 자녀를 대신 돌보아주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도움을 주고 받고,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정서적, 심리적 고충을 털어놓으며 위안과 격려를

호간의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이것은 인간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사회적 지지라고 한다. 사회적 지지는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조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양적인 크기로서 사회관계망의 크기를 의미한다(엄인숙, 2008). 사회관계망 내에 포함되는 관계의 범주는 흔히 친족, 친구, 이웃 등 일차적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종교단체, 각종 모임과 사회단체에서 형성되는 친밀한 관계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원효종, 1997). 사회적 지지의 기능으로는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 지지로 구성된다(Cohen, S. et al., 1983; 성영혜, 1993).

19) 자녀의 출산뿐만 아니라 미취학의 어린 자녀가 많을수록 공동체 의식은 높아진다(Lund, 2002).

20) 원효종(1997)에 의하면, 사회관계망 유형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기능의 정도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모든 사회관계망 유형들은 지지의 영역별로 유사한 지지정도를 보였다.

얻는다(박영애 외, 2003; 신혜진 외, 2001; 조혜선, 2004; 이윤주, 2010; 이은해 외, 1999). 특히 이 시기의 경우에는 전체 사회관계에 있어서 이웃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이웃 비중이 높은 '이웃중심형'[21]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효종 외, 2002). 이는 또래의 자녀들이 친구가 된 후, 자녀의 친구관계를 계기로 부모들끼리 관계를 맺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Gans, 1961, 1967; Mayo, 1979, Tomeh, 1969).

자녀성인기와 자녀진수기에는 자녀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로 부모자녀간의 상호의존도가 낮아지고, 가족외부의 관계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이 시기의 부모에게 이웃과 친구간의 유대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 시기의 중년여성에게 이웃이나 친구 등의 사회적 지지는 건강행위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우울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서연옥, 1995; 유숙자 외, 2000).

특히 자녀진수기의 경우에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 배우자 또는 친구와의 사별, 사회적 역할의 상실, 경제적 자원의 고갈 등의 부정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가족, 친구, 이웃 등의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특히,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관계가 가족관계에 한정된 경우보다 지역사회와 동시에 연계된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박경숙, 2000; 최용민 외, 2003; 오영은 외, 2013), 실제로 가장 많은 이웃관계를 맺기도 한다(Ishii-Kuntz, et al, 1989[22]).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인의 생존과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Giles et al,. 2007), 정신적 건강상태에 중요한 예측변수가 되기도 한다(Fiori Katherin L., et al., 2006). 노인이 가족 및 친구, 이웃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노인의 심리적 차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전혜정 외, 2003, 전혜정, 2004; 정순둘, 2004). 특히 자녀와의 동거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에는 친구 및 이웃의 지지가 건강 및 생활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녀진수기의 가족이나 친구, 이웃 관계는 생존,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

21) 원효종 외(2002)는 사회관계를 친족, 인구, 이웃, 동료로 구분하여 이웃의 비중이 50%이상인 경우 이웃지배형의 사회관계를 맺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22) Ishii-Kuntz, et al,(1989)는 생활주기단계를 자녀유무와 미취학, 학령기, 자녀독립기로 구분하였으며, 이중 자녀독립기에 가장 높은 이웃관계를 맺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로써 사회관계의 기능 및 유형, 유대의 정도는 생애주기단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자녀출산과 양육 등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이웃, 친구, 친척, 동료 등의 사회관계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특정 생애주기에 속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로써의 사회관계의 유형과 그 기능을 확인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들 연구 결과들은 대체적으로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관계의 유형과 이들로부터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각 사회관계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생애주기단계는 사회관계 대비 주거지 공간기반의 이웃관계의 중요도와, 이웃관계가 제공하는 기능 및 이웃관계의 공간적 특성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에 주요한 요인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물리적 근접성

1) 일상에서의 상호작용, '마주침'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면대면 상호작용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한 매일의 일상생활은 우리가 하는 일에 구조와 형태를 만들어 주며(앤서니 기든스, 2003: 98), 특히 면대면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우리의 사회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주민들의 관계의 질을 제고시키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사회적 기회이다. 이것은 인접한 이웃, 우연한 마주침(casual social encounters), 공동체 참여, 사회적 지지로 구성된다(Kim. J. et al., 2004). 특히 우연한 마주침은 이웃관계 형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고프먼(Goffman)에 의하면 면대면 상호작용은 '초점 없는 상호작용(unfocused interaction)'과 '초점이 맞추어진 상호작용(focused interaction)'으로 구분된다. 우리는 많은 사회적 상황에서 초점 없는 상호작용 상황에 놓이게 되며, 개인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서로의 존재를 상호인식하고 있음을 내비침으로써 성립한다. 초점이 맞추어진 상호작용

은 사람들이 서로의 말이나 행동에 직접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 발생한다. 고프먼은 초점이 맞추어진 상호작용의 한 단위를 '마주침(encounter)'이라고 불렀고,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초점 없는 상호작용을 하는 사이에서 빈번하게 행하는 끊임없는 마주침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마주침'은 항상 더 이상 시민적 무관심(civil inattention)[23]을 취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시작(openings)'을 항상 필요로 한다(앤서니 기든스, 2003: 98-110).

'마주침'을 통한 상호작용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특정한 시간 동안 특정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마주침'을 통해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루 중의 인간 행위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구역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예로 들어보면, 주택 내에서는 침실, 거실, 주방 등으로 물리적으로 공간이 구분될 뿐만 아니라, 거실과 주방과 같이 낮 시간에 주로 사용하는 공간과 침실과 같이 밤 시간에 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시간에 의해서도 활동이 구역화 또는 영역화되는 경향이 있다. 즉,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시간과 공간 모두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마주침은 주거지에서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주거지에서의 마주침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주민들과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단지 또는 주택지 블록이라는 동일한 주거공간을 공유하고 유사한 일상생활의 패턴을 갖는 주민들 간에는 더욱 그 '마주침'의 빈도가 증가하게 되어 상호작용이 증가할 것이다. 즉, 같은 주거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은 주민간의 잦은 마주침을 통한 교류를 촉진할 수 있으며, 공동체적 유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의 우연한 마주침은 주거지에서 주민들 간의 면

---

23) 우리는 타인과 하루에도 수없이 길거리에서 스쳐지나가는 상호작용을 한다.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서로 멀리에서 잠깐 동안 서로 눈길을 교환한 후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는 상대편의 눈길을 피하여 딴 곳을 본다. 이것은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요구하는 Erving Goffman이 말한 '시민적 무관심(civil inattention)'이다. 시민적 무관심은 한 개인이 타인을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저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식을 말한다(고영복, 2000, 사회학사전). 이것은 단순히 상대편을 무시해 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모든 사람들이 상대편에게 상대편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내비치는 것이지만, 단지 너무 무례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몸짓은 피하는 것이다(앤서니 기든스, 2003; 98)

식관계를 형성시키며, 주민과 이웃관계를 맺게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윤복자 외, 1989; 강대기, 1982; 천현숙, 2001; 임석회 외, 2003). 이들 연구들은 주로 물리적인 근접성에 기인한 접촉의 기회를 통해서 이웃관계를 형성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으며,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도 자주 마주치면서 이웃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에서의 물리적인 근접성은 일상에서의 우연한 마주침을 유발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마주침이라는 시각적 접촉의 빈도가 높아지며, 이러한 잦은 시각적 마주침은 주민간의 상호작용 및 대면접촉 기회를 높여서 이웃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Gans, 1961; Bergel, 1975; 김동우, 1985; 김수련, 1989; 신용재 외, 1989; 우용, 1995; 김정오, 1999 외).

2) 물리적 특성

물리적 근접성의 역할은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 간에 시각적인 접촉을 초래하며, 이웃간의 사회적 접촉을 유발한다. 특히 주거지 내에 동질적인 주민들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교우관계나 이웃관계에 있어 물리적 근접성[24]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Gans, 1961:135-138). 물리적 근접성이 높으면 주거지 내-외부 사이의 시각적, 동선적(動線的) 연속성도 높아져서 그 결과 공동의 소유의식이 높아지고, 공유된 영역을 통하여 거주자들은 보다 친밀한 사회적 교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鈴木成文, 1979; 손세욱 외, 1991:84 재인용).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주민간의 접촉의 기회를 제고시키는 주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만으로는 시각적이며 사회적인 접촉을 유도할 수는 없다. 즉,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칠 수 있는 형태의 공간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마주침은 주택유형과 거주층수, 건물의 배치, 주동진입방식, 단지내부도로의 형태 및 보행환경, 공동주택의 형태 등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시각적인 접촉의 빈도와 이웃관계 및 공동체 의식 등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

24) Gans는 물적인 근접성을 이웃간의 거리가 충분히 작은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웃관계는 주택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 형태의 주택유형은 이웃관계의 형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Gans, 1961; 강대기 외, 1982; 김수련, 1989). 이는 아파트 주거유형의 수직 고층화로 주민간의 접촉의 기회가 적어짐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구조적 차이와 관련하여 단순한 물리적 근접성만으로는 시각적이고 사회적인 접촉(이웃교류)을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각적 사회적 접촉은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빈번해지지만, 수직적인 주택의 구조보다 수평적인 구조에서 시각적 접촉의 기회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이다(Gans, 1961:135). 즉, 주민들이 각기 다른 층에 거주하는 아파트에서의 수직적 근접성에 의한 시각적 접촉은 수평적으로 근접해 있는 단독주택 주민들보다 적기 때문에 이웃관계 또한 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김수련(1989)의 연구에서 잘 나타나있다. 그는 주택유형을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로 구분하였으며, 사교기능, 상호부조기능 등의 이웃관계와 주택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독주택거주자가 가장 높은 이웃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립은 중간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이 외에도 아파트의 형태가 복도형이냐 계단형이냐에 따라서도 이웃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Gans, 1961; 윤복자 외, 1989). 같은 복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다른 층에 거주하는 사람들과는 접촉의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이웃과의 접촉은 건물구조에 따른 인접성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의 기능적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아파트에서는 주출입구, 통로와 엘리베이터 등의 구조 형태에 따라 이웃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어바니즘과 신-전통주의 계획(Neo-Traditional Planning)의 측면에서 보행환경이 양호한 공동체와 도보권내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있는 주거지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시켜주며(Kim, J. et al., 2004), 이것은 걷는 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더 많은 사회적 접촉을 하게 함으로써 정체성을 향상시키고, 강한 애착 형성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

25) 김수련(1989)은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근린관계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였으나, 아파트의 근린강도가 약한 것은 개인의 연령과 거주기간이 근린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가정주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근린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때문이다(Lund, 2002, 2003; 이경환, 2009). Lund는 전통적인 근린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고, 보행환경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Lund, 2002). 또한 근린공원과 소매점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더 많이 걷고 이웃과의 우연한 상호작용이 증가하며, 사회적 유대를 형성할 기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Lund, 2003). 하지만, 앞의 연구들과는 달리 전통적인 근린 지역과 교외주거지를 비교 분석한 Nasar(2003)의 연구에서는 자동차 이용률[26]은 전통적인 근린 지역에서 낮게 나타나지만, 공동체 의식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하지 않았다. 또한 Talen(1999)은 근린환경과 공동체 의식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보행환경에 민감한 어린 자녀가 있는 주민을 중심으로 한 연구의 경우 보행환경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의 연령 및 생애주기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연구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응답자의 연령과 자녀의 성장 발달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단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단지의 독립적이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계획특성이 이웃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다양한 관점을 보이고 있다. Madge(1965)[27]에 의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파트의 내부지향적 구조와 폐쇄적 구조로 인하여 더욱 더 이웃으로부터 고립감을 느낌과 동시에 이웃간의 친밀성은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Madge, 1965; 우용, 1995:39에서 재인용), 내부적으로는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동질성으로 인해 단지 주민과의 호혜성 및 사회관계망 등 측면에서 비교적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관찰되기도 한다(정재은, 2007: 78-80). 김지은(2012)은 아파트 단지의 폐쇄지수[28]를 사용하여 아파트단지의 폐쇄수준에 따른 이웃관계를 규명하였는데, 폐쇄정도가 클수록 이웃관계의 중요성 및 사귄 이웃의 수, 이웃과 원하는 교류의 정도가 모두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

26) 자동차 이용률은 보행환경을 대변하는 변수로써 주요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및 도보환경 수준이 양호하면 자동차 이용률이 낮을 것임을 의미한다.

27) Madge, J(1965), 「Privacy: Transaction of the Bartlett society」,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28) 폐쇄지수는 아파트 단지마다 초소, 바리게이트, 개별인식시스템, CCTV 유무와 경비원 배치수준 등을 점수화하여 측정하였다.

4. 거주특성

이웃관계는 만남을 위한 접촉이 시도되고, 접촉의 범위가 확대되고 심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거주지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일수록 이웃과의 접촉이 많아지고 그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이다. 하지만 이웃관계와 거주기간의 관계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역사회의 규범이나 생활양식, 낯선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거주기간이 긴 주민은 더욱 친밀하고 광범위한 이웃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Kasarda et al, 1974; Mayo, 1979, 강대기 외, 1982; 김동우, 1985; 이경희, 1988; Ishii-Kuntz, O. et al, 1989; 정창수 외, 1990[29]; 우용, 1995; 김정선 외, 1999; 천현숙, 2001; 진미윤 외, 2001). Kasarda, et al.(1974)는 거주기간이 지역사회의 분위기 및 사회결속을 설명하는데 있어 인구크기, 인구밀도, 사회경제적 지위, 생애주기단계[30] 등에 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Kasarda et al, 1974:334). 그들은 이웃간의 결속력, 일차적이고 비공식적인 접촉, 공동체 의식 등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거주기간을 들고 있다. 따라서 빈번한 주거이동은 지역사회의 유대, 주민들 간의 결속을 증대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정선(1999)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사회적 상부상조, 경제적 상부상조, 심리적 상부상조 등의 이웃관계의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강대기 외(1982)는 아파트지역과 단독주택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이웃관계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주택유형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거주기간은 이웃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거주기간이 이웃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견해도 있다(Fellin, et al., 1963; 원효종 외, 1993). Fellin, et al(1963)은 주민들의 높은 이동률에도 불구하고 새로 이주해 온 이웃이 신속히 '내

29) 정창수 외(1990)는 일부 지역변수를 제외하고 개인변수로서 거주기간이 이웃관계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30) Kasarda et al.은 생애주기단계를 연령을 기준으로, 21-49세 집단과 50세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공동체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Kasarda et al., 1974)

집단화(indoctrination)'될 수 있도록 주민들 사이에 '조직'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이웃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정창수 외, 1990, 재인용).

일부 연구에서는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근린에 대한 애착심이나 소속감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강대기 외, 1982; 윤복자 외, 1989). 윤복자 외(1989)는 저층아파트 거주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린에 대한 소속감이 임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인 경우 임차자인 경우보다 이웃과의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복자 외, 1989:53). 또한 단독주택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관적인 과밀을 덜 느끼고 이웃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강대기 외, 1982: 130-131). 이는 주택의 소유는 주거지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제고시켜 이웃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은 개인 및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주택의 물리적 요인 등과 함께 지역의 집합적 요인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웃관계가 지역의 집합적 요인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Tomeh(1964)와 Ross(1965)는 지역들간에 나타난 차이가 주민들의 사회계층적, 인종적 요인에 의해 거의 대부분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집합적 요인에 의한 효과는 거의 무시할 만하다고 하였다. 반면, Wilson(1971)은 사회경제적 요인 및 인종 등의 개인속성을 통제하더라도 지역간 차이는 상존한다고 하였다. 정창수 외(1990)는 지역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차별적인 단독주택단지 두 지역과 아파트 단지 여섯 곳을 선정하여 이웃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는 주민들의 평균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웃관계는 더욱 활발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개인 및 가구의 설명변수들이 통제된 경우에도 지역들이 갖는 집합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5. 교류공간

일상생활에서 우연적 또는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이웃과의 접촉 및 교

류는 주민이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손세관(1986)은 사회적 장소(social place) 개념을 주거지역에서 이웃교류 등의 사회적 행위가 발생하는 물리적 환경과 연관시켜 정의하였다. 그는 사회적 장소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는 물리적 환경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사회적 장소들은 개인과 거대한 도시의 중간에 위치하여 개인과 전체 도시사회를 중개 또는 매개하는 '매개적 영역'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주거지역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장소는 그 물리적 특성, 사회적 행동의 형태, 사용의 빈도, 환경에 대한 사용자의 소유의식 등에 따라 주거전면영역(front domain), 친교영역(intimate domain), 근린주변영역(transactional domain)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주거전면영역은 주거의 전면공간(stoop, sidewalk, 좁은 가로 등)에서 이루어진다. 개인은 친밀한 사이의 이웃에 의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주거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적행동이 외부로 연장된 행동 '패턴'을 가진다. 사용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배타적이며 따라서 장소는 전유성을 가진다. 둘째, 친교영역은 집근처의 외부공간 또는 근린상업시설 주변에서 성립되며, 친근한 관계의 집단(가까운 이웃, 같은 또래의 친구사이)에 의해 주기적으로 사용된다. 소유의식은 사용 집단에 의해 상징적으로 인식된다. 셋째, 근린주변영역은 동네 주변의 근린시설과 그 주변에서 성립되며 넓은 범위의 '만남'과 서비스를 위해 주기적으로 또는 때때로 사용된다. 사용자는 환경에 대한 소유의식을 느끼지는 않으나 이 장소의 성립범위가 개인의 'home area'에 대한 인식의 범위가 된다고 정의하였다(손세관, 1986:153-155).

<표 3> 사회적 장소의 종류와 그 특성

구 분	주거전면영역	친교영역	근린주변영역
물리적 환경의 종류와 특성	-반공적 또는 공적 공간 -현관, 보도, 골목 등 주로 집 바로 앞에 위치한 물리적 환경	-공적 공간 -집 부근의 가로 모퉁이, 소규모 공원, 술집, 구멍가게 앞 등 동네 안에 위치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공적 공간 -공간의 집합 장소, 교회, 공원, 시장 등 광역 서비스에 관계되는 물리적 환경
소유의식	-사용자에 의한 강한 소유의식과 외부에 대한 배타성	-집단에 의한 상대적 소유의식	없음
사회적 교류의 형태	-개인과 가족 또는 소규모 집단(친지, 이웃)등에 의한 대면교류(face-to-face interaction)	-주로 동일한 사회적 구성원(이웃, 친구, 같은 또래 등) 간의 집단적인 모임 또는 놀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 간의 교류
사용의 빈도*	-일상적으로(거의 매일)사용	-주기적으로(1주일에 한번 이상)사용	-주기적으로 또는 때때로 (2주에 한번이상)사용

출처 : 손세관,1986: 155 <표1> 인용

* : 온화한 계절을 중심으로 측정

사회적 장소 개념에 의한 교류공간의 분류방식 외에도, 이웃간의 교류 및 유대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 공간(시설)과 그 이외의 공간(시설)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 사적 공간, 반사적·반공적 공간과 공적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손세관(1986)이 사회적 장소를 구분한 방식과 유사하다. 반사적·반공적 영역은 사회적 장소 중 주거전면영역과 친교영역에 해당하며, 공적공간은 근린주변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적 공간은 개인이 사적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인 주택으로서 소유권 또는 점유권으로 인해 사적영역으로 인식되는 공간이다. 반사적·반공적 공간은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중간적 속성으로써, 이웃 간의 일상적인 교류의 촉매작용을 하는 '매개적 공간'으로 이해되

며, 주민의 이동시에 이용되는 엘리베이터, 주동입구, 골목 등의 통행공간이 이에 해당 된다. 이에 대해 다까다 마쯔오(1993)는 일본의 전통적인 주거지 분석을 통해 주거지는 주택들이 가로를 중심으로 집합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는 단위주택과 가로의 결합은 대문과 마당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결합성은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 결합 부분은 이웃간의 일상적인 교류의 촉매작용을 하는 '매개적 공간'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곳에서는 거주자들이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감시하기도 하고, 작업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그는 가로와 주택의 결합시 거주자들은 단위주택 외부환경에 접근하려는 성향과 단위주택 내부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려는 성향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였다(박광재, 1998:12-13). 공적영역은 주거지 인근의 교육시설, 종교시설, 상업시설 등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이용되는 시설로써 주민에 의한 소유권은 없는 시설 및 공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의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기능적 중심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시설은, 좁은 의미로는 공동체의 교류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해 이용되는 시설이며, 넓은 의미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생활 영위를 위해 공동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송명규, 2009:169). 커뮤니티시설은 주민공동시설, 주민공유공간, 부대복리시설, 공동공간 등 연구자마다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및 시설로 이웃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거주자들의 이웃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신화경 외, 2012:48-49).

제도적 측면에서의 커뮤니티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정의되고 있다.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동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중 휴게소와 어린이놀이터 등이 커뮤니티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아파트가 보편적인 주택유형으로 자리잡으면서, 주거공동체의 붕괴에 따른 이웃관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에 아파트 단지내 커뮤

니티 시설에 대한 이용실태와 만족도, 주거공동체 제고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천현숙, 2001; 진미윤 외, 2001; 송명규, 2009; 신화경 외, 2012), 이웃교류의 공간은 상호간 유대를 형성하는 장(場)으로서 근린의식과 이웃관계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Whyte, 1956; 이상준, 1996:182, 조상현, 2004). Whyte(1956)는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교류를 매개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으로서 어린이 놀이터를 중요하게 지적하였다. 즉 근린교류에 있어서 저학년 어린이가 중요한 매개요인 임을 감안할 때 어린이 중심의 근린 구성이 필요하며, 외부공간도 놀이터를 중심으로 조성하여 어린이 놀이집단을 계기로 보다 접촉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Whyte, 1956; 손세욱 외, 1991:88에서 재인용). 이상준(1996)은 놀이터, 벤치 등에서 자주만남으로 인해 이웃으로 발전하였음을 밝혔다. 조상현(2004)은 공공공간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는 특정시설이나 공공공간의 이용이 활발하여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교류의 발생정도와 이웃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상현, 2004:69).

교류공간은 가족의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거주자의 요구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부+미취학 아동 가구는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터를 부부+초등학생 가구에서는 어린이 놀이터와 독서실/문고를, 부부+중고등학생 가구는 독서실/문고, 다목적 교육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신연섭 외, 2006: 63-64).

이웃교류의 공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 한하여 이루어졌다. 이웃교류를 위한 장소로서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관리실, 유치원 등이 일반적이지만, 대개의 경우 특정 주민만의 이용으로 자연스럽게 주민을 유인하거나 참여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Whyte, 1956:257, 손세욱 외, 1991:88 재인용; 진미윤 외, 2001[31]). 특히, 교류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활용 관련 연구로 주로 그 이용이 의도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천현숙, 2001; 박현정, 2006; 송명규, 2009). 천현숙(2001)은 기성시가지 단독주택지역을 설문조사한 연구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류공간이 적은 지역이지만 기존의 공동활동 공간이나 시설은 전체적으로 이용하지

31) 진미윤 외(2001)에 의하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웃과 교류하는 단지내 장소로 놀이터와 정자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나, 가장 불만족스러운 공간으로 조사되었다. 사적 공간인 우리집 또는 이웃집은 가장 적게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않는 것(76.2%)으로 그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커뮤니티 공간(시설) 뿐만 아니라, 반사적·반공적 공간도 이웃과의 교류공간으로써 자주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주로 주택과 인접한 집 앞 현관홀, 엘리베이터 홀, 주동입구, 주진입도로, 단지 내부도로 등에서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준, 1996; 손세욱, 1996; 최열 외, 2007; 이원영, 2011).

이상준(1996)은 이웃과 자주 마주치는 장소와 주부들이 서서이야기 하는 장소를 통해 근린교류 장소를 분석하였다. 그는 고층아파트의 경우 집 앞 현관 홀 및 엘리베이터홀, 아파트 입구부분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며, 중층아파트의 경우, 주동입구, 집 앞 현관홀 및 엘리베이터 홀이 압도적으로 주요한 공간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이상준, 1996:179-180). 손세욱(1996)은 저층아파트 단지에서 주부들간의 대화, 자녀들의 놀이 등의 주민들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주동의 출입구 부근, 중정 등으로 비교적 주거와 가까운 곳으로 한정되었다고 하였다(손세욱, 1996:171). 이원영(2011)은 국민임대주택 주민들이 교류의 장소로써 계단을 포함한 복도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분석하면서, 일정하게 정해진 특정 장소보다 자연스레 만나기 쉬운 장소가 복도이므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최열 외(2007)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진입도로와 주차장, 보행로와 연결된 단지 내부도로와 같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은 이웃주민과의 우연한 마주침이 자주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동체애착과 높은 기여도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단독주거지역의 이웃교류는 골목 등 동선이 집중하는 지점(이웃과 자주 마주치는 지점)에서 교류가 발생한다고 하였다(손세관, 1986; 천현숙, 2001). 천현숙(2001)은 단독주거지역의 이웃교류는 주로 골목(49.3%)에서 이루어졌다고 분석하였다[32]. 다만, 연구 대상 지역이 공원이나 놀이터 등의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한 노후 단독주택지역으로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32) 전상인(2009)은 동네의 골목길이 단순한 통행로가 아니며 사회적 공간이자 문화적 장소라고 하였다.

제 4 절 소 결

공동체의 구조는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사회제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해왔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욕구와 자아실현 욕구를 실현하려는 인간의 욕구 충족 동기에 따라 인간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은 공동체를 출현시키고 있다. 특히 공통된 주거지 공간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이웃관계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관계이다. 주거지에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주민들은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원동력은 상호작용의 행위자인 개인에게 주어진 물리적, 사회경제적 상황과 상호작용의 필요에 의해서 유발된다.

주거지를 기반으로 한 이웃관계와 이에 대한 영향 요인들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연령, 학령, 취업 등의 개인속성과 가구원수, 동거자녀수, 가구소득 등의 가구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주택형태 및 점유형태, 점유형태, 거주지역 등의 요인들이 이웃의 수 또는 이웃과의 친밀도 등과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웃관계에 대한 이들 변수들의 영향은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 또한 이웃관계를 형성하게 된 계기와 이웃으로 인식하는 공간적 범위 및 교류하는 이웃의 거주지 범위 등의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 주요 이웃교류의 공간에 대한 분석결과도 연구자 마다 다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웃관계와 이에 대한 영향 요인들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이웃관계를 고정된 집단으로써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웃관계를 포함한 모든 사회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요구의 변화와 관련하여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웃관계를 변화하는 실체로써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생애주기간계는 여성의 역할과 요구의 변화를 구분하여, 사회관계 변화의 설명하는데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생애주기단계와 사회관계 및 사회적 지지와 관련 한 연구들은 주로 특정 생애주기에 속하는 개인의 사회관계의 유형과 그 기능 및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선행연구 결

과들은 대체적으로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관계의 유형과 이들로부터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각 사회관계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 및 교류공간에 대한 선행연구에 있어서는 주로 특정 주택유형을 대상으로 분석하거나 제한된 주거지 내에서의 이웃관계의 범위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웃관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특정 주택유형으로 한정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나 주택지 블록과 같이 공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실증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웃관계의 중요도와 이웃관계의 공간적 특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기위해서는 생애주기단계를 중심으로 한 개인의 사회관계의 변화를 고려한 이웃관계와 각 생애주기단계별 이웃교류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분석틀과 조사방법

제 1 절 분석자료

본 연구는 도시민에게 있어서 주거지 공간을 기반으로 한 이웃관계가 다른 사회관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개인이 맺고 있는 전체 사회관계 대비 이웃관계의 비중[33]을 사용하고자 한다.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는 응답자가 도구적, 정서적 필요와 요구에 의해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관계의 범위는 이웃, 친구, 동료 등의 비혈연관계로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 이웃은 주거지에서 알게 되어 만나거나 연락을 하면서 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며, 친구는 초·중·고·대학 동문관계와 동향 사람 중 친한 사람들, 동료는 직장동료 및 취미여가 활동 등 자발적 단체의 구성원 중 친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이웃관계의 비중은 개인의 사회관계 중에서 주거지 공간에서 형성된 관계가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웃관계의 비중이 높을수록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이웃관계가 다른 사회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웃관계의 비중은 이웃에 대한 필요와 욕구, 즉 개인에게 있어서 이웃관계의 중요성을 대리하는 객관적 변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웃관계는 누구에게 더욱 중요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해, 생애주기단계를 중심으로 이웃관계의 중요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웃관계 형성의 계기를 분석함으로써 생애주기단계별 이웃관계 형성의 특성을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족 구성원의 성장 발달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이웃관계의 중요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다. 생애주기단계는 자녀의 출생, 성장, 발달에 따라 가구형성기, 자녀양육기, 자녀초등기, 자녀중고등

33) 개인에게 있어서 다른 사회관계 대비 이웃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웃관계의 비중(%)을 이용하는 것이 '이웃관계의 규모(수)'를 사용하거나 기능적 속성 변수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기, 자녀성년기, 자녀진수기 등 6단계로 구분한다.

이웃관계의 중요도에 대해 생애주기단계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생애주기단계 요인이 이웃관계의 비중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설명변수는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 요인들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변수들을 선정한다. 설명변수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물리적인 거주환경을 대리할 수 있는 연령, 학력, 취업유무, 가구원수, 동거자녀수, 생애주기단계, 가구월소득, 주택유형, 점유면적, 점유형태, 거주기간, 주거지 더미 변수를 이용하여 모형을 설정한다.

이웃과 친분관계를 맺게 되는 계기는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검정을 실시한다. 이웃관계의 형성의 계기는 개인면담조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학교 등에 다니는 '자녀'를 계기로 만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부녀회 등의 주민조직활동을 통해서 만난 경우, 취미·여가활동을 통해서 만난 경우, 종교활동을 계기로 만난 경우, 특별한 계기 없이 주거지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이웃관계가 형성된 경우로 구분한다.

생애주기단계와 이웃교류의 계기 등에 따른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와 교류장소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게 위해 카이검정을 실시한다.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를 분석하기 위해서 도시의 주요 주택유형인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다가구 주택지[34]를 중심으로 '인접주택'과 '단지 및 동네', 단지 및 동네 밖 '외부주거지'로 구분하여 생애주기단계별, 관계형성 계기에 따른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웃 거주지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단지와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의 물리적 형태 차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웃 거주지는 크게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의 내부와 외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웃과의 물리적 인접성 정도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주택과 물리적으로 접해 있거나, 자택으로 접근하는 데에 반공적·반사적으로 이용되는 엘리베이터, 복도, 골목 등에 접해있는 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인접주택'이라 정의하였다. 두 번째는 설문응답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34)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빌라)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지로써 도로에 의해 구분된 블록을 '다세대다가구 주택지'로 정의한다.

블록단위의 동네를 '단지 및 동네'로 정의하고자 한다. 마지막 유형은 단지 및 동네 밖의 외부주거지로써 이웃하는 아파트 단지, 인근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지,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한다.

<표 4> 이웃의 주거지 유형 구분

주거지 구분		내 용
단지/동네 내부	인접주택	응답자의 주택과 물리적으로 접한 이웃 응답자에 의해 이용되는 엘리베이터, 복도, 골목 등에 접해있는 주택 - 아파트 : 같은 층, 단지내 같은 동 - 다세대다가구 : 옆집 또는 앞집, 같은 건물, 같은 골목 내 주택
	단지/동네	인접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단지와 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블록단위의 동네
단지/동네 외부		거주하는 단지 및 주택지를 중심으로 이웃하는 아파트 단지, 인근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지, 그 외 지역 포함

이웃교류의 공간에 대해서는 주민공동시설이나 커뮤니티시설 등을 계획공간으로 그 외의 교류공간을 비계획공간으로 구분하여 생애주기단계 및 이웃교류의 계기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다.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의 교류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해 이용되는 시설[35]로서 법제도로 규정되어 있는 공간 또는 시설을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공간'으로 정의한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의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경로당과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은 '계획된 공간'으로 분류한다. 이들 공간 및 시설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교류를 위해 규정된 시설 또는 공간과 유사한 시설 및 공간으로써 '계획된 공간'으로 설정한다.

주민교류가 계획되지 않은 공간으로는 사적공간과 반사적·반공적 공간, 공적공간으로 분류하였다. 사적공간은 내 집 또는 이웃의 집을 교류

35) 송명규(2009)는 커뮤니티시설을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기능적 중심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좁은 의미로는 공동체의 교류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해 이용되는 시설, 넓은 의미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생활 영위를 위해 공동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 정의했다.

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반사적·반공적 공간은 골목이나 복도 및 계단 등의 공간으로 이들 공간에 물리적으로 접해있는 주택의 거주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반사적·반공적 공간은 인접한 주택 거주민에 의해 상대적 소유의식이 있는 개념적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 '공적공간'은 특정 집단에 소유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누구든 비용을 지불하거나 특정 활동에 동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정의한다.

<표 5> 교류공간의 분류

유형 구분		교류공간
계획된 공간		놀이터, 주민운동공간,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문고, 유치원, 어린이집, 산책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다세대다가구)
비계획 공간	사적공간	내집 또는 상대의 집
	반사적·반공적 공간	계단 또는 복도 / 골목
	공적공간	상업시설, 자녀 교육시설, 종교시설, 운동/문화/주민센터

제 2 절 대상지 선정 및 개요

이웃관계의 중요도뿐만 아니라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와 교류공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개별면담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사례지역은 2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다가구 주택지가 가로를 사이에 두고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이웃관계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웃관계에 대한 영향요인 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웃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조사대상지역 내 아파트

단지의 규모는 일정 규모(500세대) 이상의 단지들로 제한하였다. 주민교류의 공간으로써 이웃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36]은 아파트 단지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에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포함 여부를 고려하였다.

이웃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 자녀는 이웃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웃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시설로써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37]가 있다. 초등학교는 과거 근린주구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설치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생활시설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공유한 지역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지역은 동일한 초등학교 통학구역 내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2개 이상 위치하며, 다세대다가구 주택지가 인접하고 있는 지역을 연구의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앞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지역[38]으로 서울시 성북구(이후 'A사례지역'으로 칭함.)의 서울미아초등학교와 송파구(이후 'B사례지역'으로 칭함.)의 서울문정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선정하였다.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및 개별면담조사는 전 생애주기단계에 속한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

36) 주민공동시설의 수준은 주민간 교류를 증대시키는 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통제가 요구된다.

37) 초등학교의 경우 통학거리는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 도로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2개의 근린주구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며, 통학거리는 1천5백미터 이내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의 10).

38) 이들 조건에 적합한 사례지역으로는 ① 강북구 미아동의 송천초등학교, ② 성북구 길음1동, 정릉1,2동의 길원초등학교가 해당되었다. 하지만 ①은 대상지 내 아파트단지들이 2010년에 준공되어 이웃관계를 확인하기에는 짧은 거주기간으로 부적절하였으며, ②는 통학구역이 인근의 숭덕초등학교 통학구역과 중복되었다.

<표 6> 사례지역의 통학구역

지역	초등학교명	행정동	통학구역
성북구 (A사례지역)	미아초등학교	길음1동	2~7통, 16~17통, 18통(현대아파트 제외), 20통
		길음2동	1통(5반), 2통, 6통, 12통(1~7반), 14~17통
송파구 (B사례지역)	문정초등학교	문정1동	1-10통, 11통(1-3반), 12-14통, 17통, 18통, 22통, 23통
		장지동	13-22통

A사례지역은 기성시가지로서 아파트단지들은 뉴타운 사업에 의해 재개발되었으며, 인접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지를 포함하여 서울미아초등학교 통학구역에 해당한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에는 1개의 근린공원과 경로당(길음2동경로당),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길음1동 주민센터, 종교시설이 있어 주민 교류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B사례지역은 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조성된 지역으로 A사례지역에 비해 오픈스페이스(문정근린공원)의 규모가 크다.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에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종교시설 등이 있다. 두 지역 모두 아파트 단지 사이와 다세대다가구 주택지 주변으로 음식점, 카페 등의 근린상업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A 사례지역 B 사례지역

<그림 3> 연구 사례지역

A사례지역 아파트 단지들은 재개발로 인해 송파구 아파트 단지들에 비해 건축연한이 길지 않으며,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주로 20~40평형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B사례지역 아파트 단지 중 시영아파트는 18평형대의 세대가 많다.

<표 7> 사례지역 아파트 단지 현황

위치	아파트명	입주 연도	세대수	평형유형	비고
A사례 지역	길음뉴타운6단지	2006	977	23,31,40	
	래미안길음8단지	2010	1,617 (일부)	25,33	815-824동
	래미안길음1차	2003	1,125	22,30,39	
	동부센트레빌	2001	1,677	15,24,33,43	임대 포함(300)
	길음뉴타운5단지	2006	560	24,33,41	
B사례 지역	문정래미안	2004	1,696	33,44,48,53, 60	40평대 위주
	현대1차	1984	514	31,44	
	시영	1989	1,316	13,16,18,23	18평대 위주

제 3 절 조사방법 및 내용

대도시 주민의 이웃관계의 중요도와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 및 교류공간 등에 관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개별면담조사를 통해서 이웃관계를 맺게 되는 배경과 목적, 관계 형성의 과정, 공간적 특성 등을 고찰하고, 사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웃, 친구, 동료관계 등의 사회관계와 개인 및 가구특성 및 주거환경과 관련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개별면담조사에서의 결과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한다.

1. 개별면담조사

개별면담 대상자들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사례지역 거주자들 중에서 자녀 출산 여부, 맏자녀의 연령 및 성장발달, 부모로부터의 독립 여부 등을 고려하였으며, 각각의 생애주기단계별로 2인 이상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주거지에서 오랜 시간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이웃과 유대를 형성하는 주요 역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개별면담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개별면담은 2012년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진행되었다.

개별면담 대상자들은 각각의 생애주기단계에 속하는 여성들 중 면담요청에 응해준 12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생애주기단계별로 가구형성기 2인과 자녀양육기 3인, 자녀초등기 2인, 자녀중고등기 2인, 자녀성년기 1인, 자녀진수기 2인으로 구성되었다. 면담방식은 주로 반구조화(semi-structured) 방식을 이용했다. 반구조화된 방식은 구조화된 면담방식이나 비구조화된 면담과는 달리, 면담자와 피면담자간의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면서도 어느 정도 분명한 면담지침에 의해 면담이 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면담은 면담 대상자의 자택인근의 공원 및 놀이터나 카페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연구의 내용상 이웃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중요성 등 개인적 차원의 고유한 의견을 수집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함이다. 개별면담은 사전면담을 포함하여 40분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개별면담 참여자들의 이야기 방식은 다양했다. 어떤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기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자세히 이야기 하는 반면, 어떤 참여자들은 질문에 단답식으로 간단히 진술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면담이 시작된 얼마 동안은 질의 응답식으로 흘러갔으나, 면담이 진행되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구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참여자들에게는 면담내용을 사전에 녹음하는 것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했으며, 녹음된 내용은 면담 후 바로 텍스트화 하였다. 또한 정리과정에서 발견된 의문점은 전화로 추가 면담을 실시했다. 면담대상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A, B, C 등의 가명을 사용하였다.

<표 8> 개별면담 응답자 개요

생애주기	응답자	연령	자녀연령	주택유형	점유형태	거주기간
가구 형성기	A	35	X	아파트	자가	2년
	B	37	X	아파트	자가	4년3개월
자녀 양육기	C	33	2세, 5세	아파트	임차	1년3개월
	D	31	1세, 3세	아파트	임차	1년9개월
	E	36	3세	아파트	자가	4년
자녀 초등기	F	40	10세, 11세	아파트	임차	5년
	G	40	11세	아파트	임차	4년
자녀 중고등기	H	40	14세	아파트	자가	6년
	I	41	7세, 15세, 18세	아파트	임차	5년
자녀 성년기	J	59	22세, 30세	상가주택	임차	10년
자녀 진수기	K	65	출가 30대(1) 40대(2)	아파트	자가	22년
	L	78	출가50대(1)	다가구	임차	12년

개별면담은 응답자 개인 및 가족사항, 자녀의 양육과 교육 환경 등 생활환경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전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후 이웃형성의 계기와 교류의 내용, 이웃관계에 있어서 거리의 영향, 교류의 장소와 선호공간 등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우리 동네'로 인식하는 공간을 이웃 거주지와 응답자의 생활권영역과 비교하여 규모와 중첩성의 측면에서 확인하고자 했다. 더불어 아파트 사이버공동체의 활용과 이웃관계 형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버공동체에서 형성된 관계의 친밀도 및 대면접촉으로의 진전 여부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주요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9> 주요 면담 내용

연구 질문	질문의 내용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이웃관계 형성의 계기의 차이	- 이웃이 생긴 시기 - 이웃관계 형성의 계기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이웃관계의 중요성 여부 - 이웃과의 기능 측면에서 - 이웃의 중요성, 지속성	- 다른 관계 대비 이웃의 중요성 - 현재 또는 과거 이웃과의 지속성 - 이웃관계 유지의 이유(필요성) (정서적 유대 vs. 기능적 유대)
주거지 사이버공동체의 이웃관계 형성에 대한 영향	- 사이버공동체 활동 여부 - 사이버공동체를 통해 형성된 관계가 대면접촉으로의 진전 여부 - 사이버 공간 활용 및 인식 (물리적 근린 vs. 네트워크 근린)
이웃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물리적 인접성(거리)의 중요성 - 주택유형의 차이 - 이웃의 사회경제적 수준	- 이웃관계를 맺는 데에 이웃과의 멀고 가까움의 거리의 중요성 - 이웃관계 형성에 있어서 주택유형 차이의 영향 유무 - 이웃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이웃관계 형성에 대한 차이
우리 동네와 이웃관계, 생활편의시설의 공간적 범위 차이	- 우리 동네의 범위, 이웃거주지의 범위, 자주 이용하는 생활편의시설 분포의 범위
주로 이용하는 교류공간은 무엇이며, 어떠한 이유에서 선호되는가?	- 선호되는 교류공간과 중요성 그 이유 - 교류공간에 대한 요구

개별면담조사를 이용한 질적분석은 생애주기단계를 중심으로 이웃에 대한 인식, 관계 형성의 시작과 그 배경, 이웃관계의 기능 및 지속가능성, 교류의 범위 및 교류장소 선택의 배경 등을 과정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웃관계의 형성과 관계유지 등 이웃과의 교류행태를 과정에 따라 범주화한 후, 그에 대한 논거는 면담참여자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구어체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일부 필요에 따라서 대화내용의 중복이나 정정, 문맥상 생략된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참여자의 의도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맥에 맞게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 설문조사

사례지역에서의 설문조사는 본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앞서 2012년 9월 24일부터 일주일간 질문지 응답형태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40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토대로 질문지 수정 후, 본조사는 2012년 10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 달간 수집되었으며 이후 2013년 6월과 9월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례지역 주민의 사회관계는 현재 개인의 필요에 의해 만나거나 연락을 하며 친분이 있는 관계임을 사전에 알렸으며, 이웃과 친구, 동료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웃을 제외한 친구와 동료관계에 대해서는 공간적 제약이 없으며, 이 세 가지 유형의 관계를 합하면 친인척을 제외한 응답자의 비혈연 사회관계 전체임을 사전에 언급하였다. 이웃관계와 나머지 관계들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웃은 친구와 동료관계를 제외한 관계로써 순수하게 주거지에서 거주하면서 관계를 맺게 된 경우임을 사전에 알렸다.

이웃관계의 공간적인 범위를 분석하기 위해 응답자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의 거주지를 주택유형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39]. 예비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이웃의 거주지를 지도에 표시하는 방식을 부담스러워하여 응답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질문지를 수정하여 이웃의 거주지를 범주화하였다. 이는 이웃 거주지의 범위를 확인하는 연구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응답자의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기에 질문지를 수정하여 조사하였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지 거주자는 앞집 또는 옆집, 같은 건물, 골목을 공유하고 있는 인접주택, 간선도로에 구획된 블록[40]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지, 주변 아파트 단지 및 그 외 지역

39) Bertrand(1958)가 제안한 방식을 이용하여 이웃의 공간적 범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는 근린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서로가 이웃(neighbor)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각 가구에 질문하여 그들이 이웃이라고 응답한 것을 이용하여 특정한 근린을 기술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각 응답자에게 그들의 이웃의 이름을 묻고, 지도에 응답자가 알려준 이웃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가족에게 공동의 이해와 활동에 의해 식별된 이웃을 포함하는 것이다.

40) 본 연구에서의 '블록'은 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지로 제안하였

으로 구분하였다. 아파트 거주자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의 거주지는 같은 층, 단지 내의 같은 동, 같은 단지, 인근의 아파트 단지와 주변 다세대다가구 주택지 및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웃과의 교류장소는 주거지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파트 거주민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지 거주민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아파트의 교류공간은 단지 내·외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단지 내의 교류공간으로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 문고, 주민운동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 경로당 등의 복리시설과 주민공동시설[41], 단지 내 산책로(휴게시설 포함), 내 집 또는 상대의 집, 계단 및 복도로 구분하였다. 단지 외의 교류공간은 자녀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과 주거지 인근의 카페 또는 음식점 등의 상업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문화센터/주민센터 등의 취미·여가시설로 구분하였다. 다세대다가구 지역은 내 집 또는 상대의 집, 골목, 놀이터, 근린공원과 아파트 단지 외부 공간과 동일한 공간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교류공간에 대한 선택은 각각의 이웃과 만나는 공간으로 한 곳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두 곳 이상의 장소에 만나는 경우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공간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연령, 자녀의 연령 및 자녀의 수를 포함한 가구구성, 응답자의 학력, 직업, 거주지, 주택유형, 점유형태,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대해 조사하였다.

제 4 절 응답자 현황

설문조사를 통해 회수된 설문 582부 중 다른 지역 거주민 16부를 제

으며, 이는 설문 대상 지역 내에 입지해 있는 아파트 단지와 유사한 규모이다.

41) 본 연구의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에 의해 정의되는 시설이 아닌, 입주자집회소, 부녀회실, 다목적행사실, 주민지원센터 등으로 지칭되는 시설들로 주민조직 활동 및 다양한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시설로 정의한다. 해당 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어린이집, 사회복지지설 등을 의미한다.

외한 566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효설문부수는 566부로 A, B지역의 응답자는 각각 306부(54.1%)와 260부(45.9%)이며,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거주자의 비중이 62.0%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지 거주자의 38.0%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표 10> 지역별 응답자 분포 (단위: 빈도, (%))

구 분		A사례지역	B사례지역	전체
주택 유형	다세대다가구	103 (18.2)	112 (19.8)	215 (38.0)
	아파트	203 (35.9)	148 (26.1)	351 (62.0)
지역구분		306 (54.1)	260 (45.9)	566 (100.0)

조사대상자 566명 중 여성은 447명으로 응답자의 79%에 해당한다. 평균 연령은 44세이며, 성별에 관계없이 30-40대의 응답자 비중이 높았다. 응답자의 53.9%가 미취업 상태이며, 이중 여성의 62.9%가 전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은 68.4%가 대졸이상으로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으며, 가구원수는 평균 3.6명으로 3-4인 가족 비중이 68.6%로 높았다. 가구내에 동거하는 자녀의 수는 1.3인이며, 두 명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42.8%로 가장 많았다. 생애주기단계는 맏자녀의 성장발달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맏자녀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인 자녀초등기와 자녀중고등기 가구의 응답자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형성기에 속하는 응답자는 15.4%로 가장 적었다. 여성응답자 중 35.8%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녀가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아직 자녀가 없는 가구형성기의 비중이 29.4%로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비중이 높다. 가구월소득[42]은 본 설문조사 응답자들을 상, 중, 하위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평균 가구월소득은 432만원[43]이다.

응답자의 62%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유형에

42) 설문응답자 가구월소득은 월 300만원 이하, 300만원-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로 구분하고 이를 하위, 중위, 상위 그룹으로 정의하였다.

43) 2013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계 평균의 7분위 평균인 452만원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해당 지역의 응답자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계의 중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따른 표본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51.3%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본의 편차가 거의 없었다. 응답자의 주택점유 면적은 평균 100.3㎡이며, 응답자의 58.4%가 85㎡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비중은 51.1%로 임차의 비중과 거의 비슷하다. 평균 거주기간은 66.1개월(약 5.5년)로 3년 이하의 거주비중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5-10년 이하 거주한 경우는 26.1%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응답자 비중이 54.1%로 송파구에 비해 다소 높았다.

<표 11> 조사대상자의 일반 현황

구 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개인 속성	성별	남성	119	21.0	-	-	-	-
		여성	447	79.0	-	-	-	-
	연령	20대	31	5.5	18	4.0	13	10.9
		30대	230	40.6	188	42.1	42	35.3
		40대	146	25.8	123	27.5	23	19.3
		50대	78	13.8	60	13.4	18	15.1
		60대	48	8.5	35	7.8	13	10.9
		70대 이상	33	5.8	23	5.1	10	8.4
		평균	44세		43.7세		44.9세	
	취업유무	미취업	305	53.9	281	62.9	24	20.2
		취업	261	46.1	166	37.1	95	79.8
	학력	중학교 졸 이하	49	8.7	41	9.2	8	6.7
		고등학교 졸	130	23.0	97	21.7	33	27.7
		대학교 졸 이상	387	68.4	309	69.1	78	65.5
가구 속성	가구원수	1인	15	2.7	8	1.8	7	5.9
		2인	85	15.0	61	13.6	24	20.2
		3인	134	23.7	100	22.4	34	28.6
		4인	254	44.9	212	47.4	42	35.3
		5인 이상	78	13.8	66	14.8	12	10.1
		평균	3.6명		3.7명		3.3명	

비중 : 유효자료를 기준(100%)으로 산정

<표 12> 조사대상자의 일반 현황(계속)

구 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가구속성	동거자녀수	없음	159	28.1	105	23.5	54	45.4
		1인	133	23.5	107	23.9	26	21.8
		2인	242	42.8	206	46.1	36	30.3
		3인	29	5.1	26	5.8	3	2.5
		4인	3	0.5	3	0.7	-	-
		평균	1.3명		1.4명		0.9명	
	생애주기 단계	가구형성기	87	15.4	52	11.6	35	29.4
		자녀양육기	120	21.2	99	22.1	21	17.6
		자녀초등기	114	20.1	106	23.7	8	6.7
		자녀중고등기	69	12.2	54	12.1	15	12.6
		자녀성년기	92	16.3	71	15.9	21	17.6
		자녀진수기	84	14.8	65	14.5	19	16.0
	가구월소득 (결측: 각 17, 14, 3)	하	212	38.6	157	36.3	55	47.4
		중	207	37.7	175	40.4	32	27.6
		상	130	23.7	101	23.3	29	25.0
		평균	432만원		441만원		399만원	
주택속성	주택유형	다세대다가구	215	38.0	154	34.5	61	51.3
		아파트	351	62.0	293	65.5	58	48.7
	주택면적 (결측: 각 6, 3, 3)	60㎡이하	74	13.2	55	12.4	19	16.4
		60㎡~85㎡	159	28.4	125	28.2	34	29.3
		85㎡초과	327	58.4	264	59.5	63	54.3
		평균	100.2㎡		101.2㎡		96.5㎡	
	점유유형	임차	277	48.9	217	48.5	60	50.4
		자가	289	51.1	230	51.5	59	49.6
	거주기간	3년 이하	262	46.3	205	45.9	57	47.9
		3-5년 이하	106	18.7	85	19.0	21	17.6
		5-10년 이하	148	26.1	121	27.1	27	22.7
		10년 이상	50	8.8	36	8.1	14	11.8
		평균	66.1월(5.5년)		64.7월(5.4년)		71.3월(5.9년)	
거주지		성북구	306	54.1	244	54.6	62	52.1
		송파구	260	45.9	203	45.4	57	47.9

비중 : 유효자료를 기준(100%)으로 산정

제 4 장 이웃관계의 중요도와 관계형성 요인

제 1 절 이웃관계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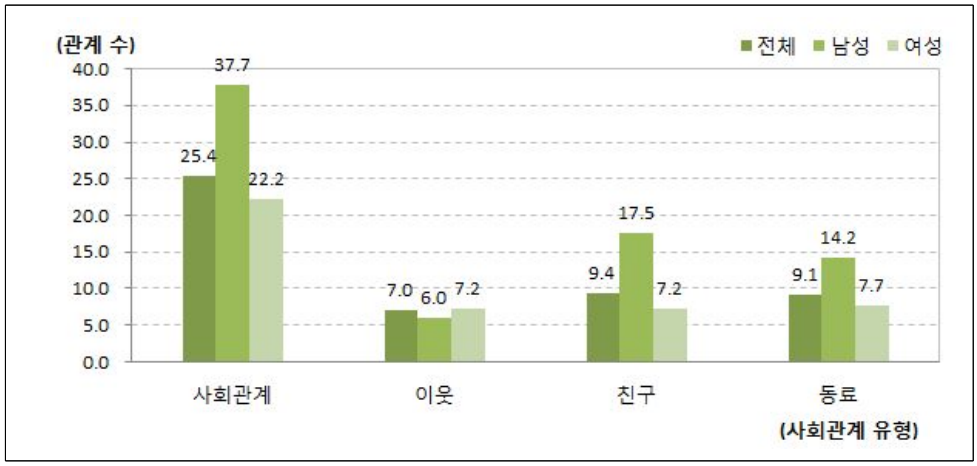
1. 응답자의 사회관계

도시민에게 있어서 이웃관계의 중요도를 분석하기에 앞서 도시민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응답자 566명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의 유형은 이웃, 친구, 동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전체 사회관계의 평균은 약 25명이며, 친구와 동료는 각각 9명으로 비슷한 수준이고, 이웃은 상대적으로 적은 7명으로 나타났다.

<표 13> 사회관계의 유형별 남녀의 규모 차이 (단위: 명)

관계유형	사회관계		이웃		친구		동료	
성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평균	37.7	22.2	6.0	7.2	17.5	7.2	14.2	7.7
표준편차	36.2	25.6	10.1	9.3	24.1	9.2	14.3	14.6
t-검정	4.394***		-1.236		4.561***		4.380***	

*** P<0.01, ** P<0.05, * P<0.1



사회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66명 중 남성 119명이 맺고 있는 전체 사회관계 수는 평균 38인이며, 여성 447명의 평균 사회관계는 약 22인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사회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사회관계의 차이는 친구와 동료관계의 차이에 의해 초래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친구관계와 동료관계는 각각 18인, 14인으로 여성의 7인, 8인에 비해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의 수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6인, 7인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웃관계의 중요도 차이

1) 성별에 따른 중요도 차이

응답자들의 사회관계 중 주거지 공간 기반의 이웃관계의 비중은 38.3%로 친구와 동료관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친구 및 동료관계에 속하는 관계의 규모보다 주거지에서 관계를 맺은 이웃들이 더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다른 유형의 사회관계에 비해 이웃관계가 다소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유목사회와 네트워크 사회를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주거지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한 사회관계가 다른 유형의 사회관계에 비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으로써, 사회성의 토대로서 네트워크가 장소를 대체하였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이웃관계의 중요도는 여성에게 있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전체 사회관계 대비 이웃의 비중은 42.2%로 남성의 23.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동료관계는 여성이 각각 30.6%와 27.1%로 남성의 38.4%와 38.1%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웃관계의 규모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구 및 동료관계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44]. 결국, 여성의 이웃관계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것은 여성의 사회관계가 남성의 그것에 비해 주거지 중심의 사회관계를 맺고 있으

44) <표 13> 참고

며, 여성에게 이웃관계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의 경우 주거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남성보다 많고, 일반적으로 여성이 가족의 모든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가 크며, 가족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기능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있어서 주거지 중심의 사회관계는 남성에 비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대로 주거지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고, 가족의 모든 일상생활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친구 및 동료관계를 유지 또는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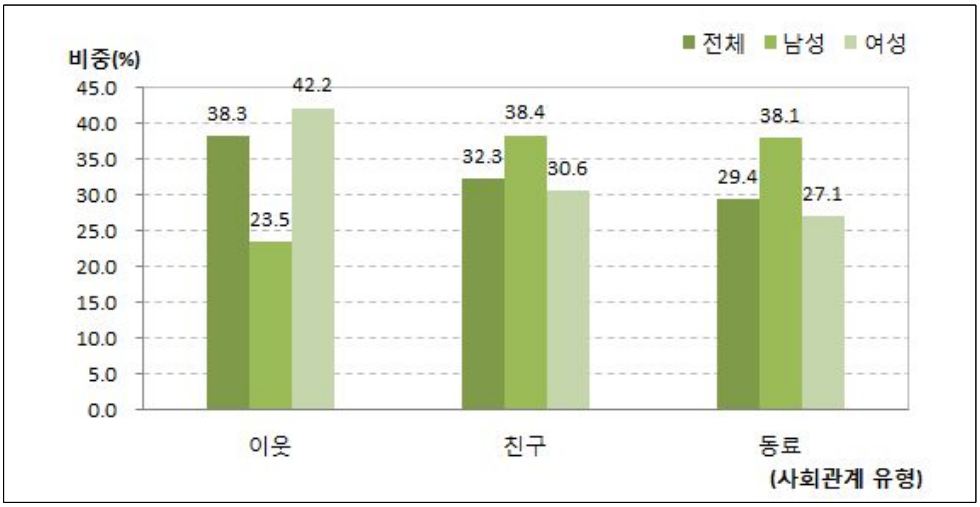
<표 14> 성별 사회관계의 비중 차이 (단위: %)

관계의 유형	이웃		친구		동료	
성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사회관계 비중[1)]	23.5	42.2	38.4	30.6	38.1	27.1
표준편차	28.4	31.3	27.5	25.5	23.9	23.2
t-검정	-6.249 ***		2.895 ***		4.556 ***	

*** P<0.01, ** P<0.05, * P<0.1

1) 사회관계의 비중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며, 개별 응답자의 사회관계 유형별 비중을 산술평균한 값이다.

$$= \frac{\text{사회관계의 각 유형별 규모}}{\text{전체 사회관계의 규모}} * 100$$



이후부터는 남성보다 이웃관계의 중요도가 높은 여성을 중심으로 어떠한 경우에 이웃관계의 중요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웃교류의 공간적 범위 및 교류공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도 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중요도 차이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여성 응답자의 사회관계 규모는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중고등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생애주기단계와는 상관없이 여성응답자의 사회관계 규모는 평균 약 22명으로 전 생애에 걸쳐 일정한 수준의 사회관계를 맺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이웃 및 친구, 동료 등의 사회관계의 유형별 규모는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변화하여 이웃관계의 비중에 영향을 주고 있다. 생애주기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이웃관계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의 친구 및 동료관계의 규모가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웃관계가 중요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구형성기의 이웃관계의 비중은 14.9%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이웃의 수는 2명으로 가장 적은 반면 친구 및 동료관계의 수가 10명, 9명으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가구형성기에 속하는 주민에게는 주거지에서의 사회관계가 다른 사회관계에 비해 그 중요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의 여성에게는 이웃관계보다는 동문 및 동향의 친구와 직장 등의 동료관계가 더 중요하며, 특히 친구관계는 49.1%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양육기의 이웃관계 비중은 34.1%로 가구형성기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며, 이는 이웃관계가 증가하는 반면 친구 및 동료관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사회관계는 평균 18명으로 생애주기단계 중 가장 적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것은 자녀양육기에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친구와 동료와의 교류가 불가피하게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경제활동이나 취미활동 등 자발적 단체에의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동료관계의 경우, 활동의 범위가 주거지를 벗어나고 지속적인 시간자본의 투자가 요구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부모자녀간의 상호의존도가 큰 자녀양육기에는 관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사회

관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자녀 출산 이후부터 이웃관계의 수와 비중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웃관계는 자녀초등기 이후부터 친구 및 동료관계보다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 이웃관계의 중요도는 다른 사회관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진수기와 자녀초등기의 이웃관계 비중은 각각 55.3%, 50.8%로 다른 생애주기단계의 여성에 비해 높다. 이는 생애주기단계의 진행에 따라 이웃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친구 및 동료는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시기 여성의 경우 다른 생애주기단계에 속한 여성들에 비해 이웃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회관계임을 의미한다.

즉, 자녀의 출생 여부에 의해 이웃관계의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의 사회관계는 주거지 중심의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즉 자녀의 출생은 여성에게 있어 이웃관계의 중요도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5> 여성의 생애주기단계별 사회관계의 규모와 비중의 평균 차이 (단위: 명, %)

관계유형 / 생애주기	사회관계	이 웃			친 구			동 료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가구형성기	20.8	2.3	14.9	a	9.5	49.1	c	9.0	36.1	b
자녀양육기	17.9	4.6	34.1	b	7.7	42.1	b	5.6	23.8	a
자녀초등기	20.0	8.1	50.8	c	6.2	23.9	a	5.7	25.3	a
자녀중고등기	35.3	13.5	46.7	c	7.6	24.5	a	14.2	28.7	ab
자녀성인기	25.5	9.0	45.5	c	7.9	25.3	a	8.7	29.2	ab
자녀진수기	18.8	6.6	55.3	c	5.5	20.4	a	6.7	24.3	a
평 균	22.2	7.2	42.2		7.2	30.6		7.7	27.1	
Kruskal-Wallis 검정[45]	10.947 *		74.906 ***			74.406 ***			12.401 **	

*** P<0.01, ** P<0.05, * P<0.1

사후검정 : Mann-Whitney 검정

45)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전체 사회관계 대비 유형별 관계의 비중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하였으나, 분산의 동질성이 전제되지 않아 비모수검정방법인 Kruskal-Wallise H 검정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은 Mann-Whitney 검정을 통해 검정하였다. Kruscal-Wallis 검정의 결과는 <부록 3>참고할 것.

3. 이웃관계의 중요도에 대한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이웃관계를 포함한 모든 사회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요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산정하였다. 특히 자녀의 출산과 양육, 교육 등의 변화는 가구 내에서 가구 구성원의 역할 및 요구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에 가족의 생애주기단계를 중심으로 사회관계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사회관계 대비 이웃관계의 중요도가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앞으로의 분석에서는 생애주기단계가 이웃관계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요인으로써 작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이웃관계의 규모 및 관계의 강도 등과 유의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분석된 변수들을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다른 유의한 변수들을 통제하더라도 생애주기단계 변수가 이웃관계의 중요도를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설명변수로는 연령, 취업유무, 학력 등의 개인속성과 가구원수, 동거자녀수, 생애주기단계, 가구월소득 등의 가구속성, 주택유형, 점유면적, 점유형태, 거주기간[46] 등의 주택속성 및 거주지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개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관계 중 이웃관계의 비중(%)을 이용하였다. 이 중 연령과 동거자녀수는 가족의 구성과 자녀의 성장발달의 정도 등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변수이기는 하지만, 생애주기단계[47]와 같이 가족의 구성과 자녀의 유무, 자녀의 성장·발달에 따라 가족과 개인의 욕구가 달라지고 부모자녀간의 상호의존관계가 달라짐을 동태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미흡하다. 이에 생애주기단계 변수가 이들 변수들에 비해 이웃관계의 비중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령 및 동거자녀수가 포함된 모형1과 이를 제외하고 생애

46) 가구형성기 여성의 경우 결혼 후 새로운 지역에 정착함에 따라 이웃관계를 맺는 데에 충분한 시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거주기간 변수를 포함시킴으로써 거주기간을 통제하더라도 가구형성기 여성의 이웃관계의 중요도가 다른 생애주기단계에 비해 낮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였다.

47) Gans(1961)는 연령과, 결혼여부, 자녀의 연령에 의한 특성들을 생애주기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Gans, 1961:137).

주기단계만을 포함한 모형2, 이들 변수들이 모두 포함된 모형3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생애주기단계 요인이 이웃관계의 비중에 대해 결정적 영향 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20세부터 86세까지로 평균 44세이다. 가구원수는 1인 가구부터 11인 가구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가구원수는 3.6인이다. 가구내에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수는 없는 경우부터 4명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1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월소득은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는 경우인 2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그 폭이 컸다. 주택의 점유면적은 가장 작은 26.4㎡부터 323.4㎡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점유면적은 101.2㎡(약 30.7평)이다. 거주기간은 1개월부터 648개월까지이며, 평균거주기간은 64.7개월로 약 5년 4개월 정도이다.

<표 16> 기초통계량

구분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이웃비중(%)	447	0.0	100.0	42.2	31.3
독립변수	개인속성	연령(세)	447	20	86	43.7	12.3
	가구속성	가구원수(명)	447	1	11	3.6	1.1
		동거자녀수(명)	447	0	4	1.4	0.9
		가구월소득(만원)	433	20	2000	441.3	234.8
	주택속성	점유면적(㎡)	444	26.4	323.4	101.2	36.0
		거주기간(개월)	447	1	648	64.7	74.5

주거지 중심 이웃관계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이웃관계 비중 변수와 이를 설명하는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48]. 독립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여 분석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웃관계의 비중은 연령과 정(+)의 상관관계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이웃관계의 비중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이웃관계의 비중은 부(-)의 관계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이웃관계의 비중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변수들이다. 생애주기단계 관련 더미변수들은 상대적으로 연령, 학력, 동

48) <부록 4> 참고.

거자녀수와 관계가 높은 편이며[49], 특히 생애주기단계 중 자녀성년기, 자녀진수기 더미변수와 연령, 학력, 동거자녀수는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높았다.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 중 이웃관계의 비중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 개인속성과 가구속성이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주택의 물리적 속성 및 거주행태는 이웃관계의 비중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은 생애주기단계 외에 일반적으로 이웃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요인을 포함한다. 해당 모형에 의하면 개인 및 가구속성 중 연령과 동거자녀수는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웃관계의 비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내에 동거자녀수가 증가하고 연령[50]이 많아질수록 사회관계 대비 이웃관계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연령과 동거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여성에게 이웃관계는 그 중요도가 커짐을 의미한다.

모형2는 자녀 유무 및 자녀의 성장발달을 나타내는 생애주기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단계 변수들은 개인 및 그 외 가구 속성 변수들에 비해 이웃관계의 비중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관계 비중에 대한 생애주기단계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자녀가 없는 가구형성기에 비해 자녀의 출생 이후의 모든 생애주기단계는 이웃관계의 비중을 증가시킨다. 특히, 자녀초등기에 속한 여성은 가구형성기의 여성에 비해 이웃관계 비중이 가장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중고등기 이후의 모든 생애주기단계는 자녀초등기 보다는 다소 그 영향력이 작지만, 가구형성기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51].

---

49) 일부 설명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어 분산팽창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와 공차(tolerance)[1]를 통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다. 설명변수들 중 생애주기단계 더미변수들과 연령의 분산팽창인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단계 더미변수들과 연령과 동거자녀수 변수들은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크고 공선성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록 5> 참고.

50)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웃관계에 대한 연령효과는 일정한 방향으로 일률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생애주기단계를 수반하는 생활양식과 관련하여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Bulmer, 1986).

51) 이경희(1988)는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생애주기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웃과 함께 친숙하게 지내온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았다(이경희, 1988:56). 즉, 거주기간에 의한 영향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거주기간은 이웃관계의 비중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

모형3은 선행연구에서 이웃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연령 및 동거자녀수와 함께 생애주기단계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본 모형에서 연령과 동거자녀수는 이웃관계의 비중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생애주기단계 변수 중 자녀양육기와 자녀초등기, 자녀중고등기는 가구형성기에 비해 이웃관계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령이나 동거자녀수 등의 변수를 통제하더라고 가족 구성원의 성장·발달을 고려한 생애주기단계가 여성의 이웃관계의 중요도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주요한 변수임을 의미한다. 즉, 여성의 사회관계의 변화는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되었다.

<표 17> 이웃관계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상수)			48.724 ***		65.081 ***		50.502 ***	
개인속성	연령		.537 ***	.209			.377	.147
	학력		-9.385 ***	-.194	-12.430 ***	-.257	-11.513 ***	-.238
	취업유무 (0=미취업)		-11.725 ***	-.182	-11.393 ***	-.177	-10.858 ***	-.169
가구속성	가구원수		-2.414	-.085	-2.616 *	-.092	-2.620	-.092
	동거자녀수		7.284 ***	.216			1.852	.055
	가구월소득		.018 **	.136	.019 ***	.144	.019 ***	.141
	생애주기 (r = 가구형성기)	양육기			16.675 ***	.224	13.179 **	.177
		초등기			35.514 ***	.482	29.585 ***	.401
		중고등기			29.845 ***	.310	22.518 ***	.234
		성년기			24.516 ***	.289	13.901	.164
		진수기			23.987 ***	.269	12.930	.145
주택속성	주택유형 (0=다세대다가구)		-3.644	-.055	-4.637	-.070	-5.190	-.079
	주택규모		-.053	-.062	-.025	-.028	-.023	-.027
	점유유형 (0=임차)		4.011	.064	2.605	.042	2.970	.048
	거주기간		-.027	-.066	-.017	-.041	-.025	-.061
거주지 (0=A사례지)			-5.932 **	-.095	-6.061 **	-.097	-5.861 **	-.094
R^2			18.4		23.4		23.9	
수정된 R^2			16.3		20.9		20.9	
모형적합도			8.596 ***		9.007 ***		8.101 ***	

*** P<0.01, ** P<0.05, * P<0.1

종속변수 = 이웃관계의 비중(%) $= \frac{\text{이웃관계의 규모}}{\text{전체 사회관계의 규모}} \times 100$

일반적으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이웃관계의 친밀도가 높고 관계의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이웃관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진수기에 속하는 1인가구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의 경우 주말부부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녀가 출가 및 분가한 여성들이다[52]. 이들 자녀진수기의 단독가구 여성들은 이웃비중이 78.5%로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 비해 주거지 중심적 경향이 강한 것으로 이웃관계가 다른 사회관계에 비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1인 가구를 제외한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따른 사회관계의 비중 차이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가구원수에 따른 사회관계의 규모와 비중의 평균 차이 (단위: 명, %)

관계유형 / 학력수준	이 웃			친 구			동 료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인	5.5	78.5	b	1.8	8.7	a	4.5	12.9	
2인	3.8	30.7	a	8.9	39.4	b	7.1	29.9	
3인	7.0	40.7	a	6.7	30.7	b	8.4	28.6	
4인	8.2	44.4	a	7.2	29.1	b	7.5	26.4	
5인이상	7.9	43.8	a	7.3	30.0	b	8.3	26.2	
F-검정	2.911	5.305 ***		1.293	3.534 ***		.226	1.151	

*** P<0.01, ** P<0.05, * P<0.1

사후검정 : Duncan의 사후검정

주) 1인 가구는 평균 연령 65세 이상의 자녀진수기 여성으로 구성

생애주기단계와 함께 학력은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이웃관계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이웃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웃과 상호작용이 높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친구관계의 수가 유의하게 적어지는 반면, 이웃의 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이웃관계의 비중은 유의하게 증가하

52) 본 분산분석에서는 연령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졸 이하의 여성의 경우에는 64.9%로 친구 및 동료관계보다 이웃관계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9> 학력수준별 사회관계의 규모와 비중의 평균 차이 (단위: 명, %)

관계유형 / 학력수준	이 웃				친 구				동 료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중졸이하	6.9		64.9	c	3.1	a	14.4	a	5.9		20.7	
고 졸	8.6		48.0	b	5.8	ab	24.8	b	6.9		27.2	
대졸이상	6.8		37.4	a	8.2	b	34.6	c	8.2		27.9	
F-검정	1.452		17.234 ***		7.405 ***		15.643 ***		0.633		1.744	

*** P<0.01, ** P<0.05, * P<0.1
사후검정 : Duncan의 사후검정

전업주부 등 미취업 여성인 경우에는 취업여성보다 이웃관계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취업여성에 비해 미취업 여성이 거주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되고, 이로 인해 이웃과의 접촉 빈도와 정도가 증가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웃관계의 중요도에 대한 취업유무의 차이를 다양한 사회관계의 구조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여성의 취업유무와는 상관없이 이웃관계 규모의 평균은 차이가 없는 반면, 취업여성의 친구 및 동료관계의 증가로 이웃관계의 비중이 작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미취업 여성의 경우에는 친구 및 동료관계가 취업여성에 비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지 중심의 이웃관계가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0> 취업유무별 사회관계의 규모와 비중의 평균 차이 (단위: 명, %)

관계유형 / 취업유무	이웃		친구		동료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미취업	7.4	47.6	6.6	30.3	5.4	22.1
취 업	6.9	33.2	8.3	31.2	11.6	35.6
t-검정	0.593	4.803 ***	-1.843 *	-0.367	-3.818 ***	-6.150 ***

*** P<0.01, ** P<0.05, * P<0.1

가구월소득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웃관계의 비중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웃관계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다른 사회관계 대비 이웃관계의 중요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앞에서 학력과 같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이웃관계의 관계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이웃간의 상호작용 역시 자원과 영향력의 교환관계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학력과 소득은 사회경제적 수준을 대리하는 변수들로 일반적으로 두 변수간에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웃관계의 중요도에 대한 두 변수의 해석에 모순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53].

주거지역의 집합적 특성이 이웃관계의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거주지 더미 변수는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웃관계의 중요도는 개인 및 가구속성, 주택의 물리적 속성 등에 의해 설명되는 것 외에, 지역의 집합적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A사례지역은 B사례지역에 비해 이웃관계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B사례지역 주민의 경우 A사례지역 주민보다 친구 및 동료관계가 유의하게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평균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차집단과의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B사례지역 주민들이 이웃관계보다 친구 및 동료관계가 많은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B사례지역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54].

<표 21> 사례지역별 사회관계의 규모와 비중의 평균 차이 (단위: 명, %)

관계유형 / 사례지	사회관계	이 웃		친 구		동 료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A사례지역	17.8	6.3	45.5	5.9	29.6	5.7	24.9
B사례지역	27.5	8.4	38.4	8.9	31.9	10.2	29.7
t-검정	-3.822 ***	-2.315 **	2.413 **	-3.423 ***	-.962	-3.100 ***	-2.189 **

*** P<0.01, ** P<0.05, * P<0.1

53) 소득수준별 사회관계의 수와 비중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6> 참고.
54) <부록 7> 참고.

주택속성 변수들과 거주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이웃관계의 중요도에 대한 방향성은 다세대다가구에 거주할수록, 주택규모가 클수록, 자가에 거주할수록 이웃관계가 중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들은 기존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이웃관계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었던 거주기간은 이웃관계의 비중과 부(-)의 관계로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택유형, 점유면적, 점유형태에 따른 이웃관계의 비중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55]. 선행연구에 의하면 주택유형이 단독주택일 경우 이웃과의 관계가 친밀하거나 교류하는 이웃의 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웃관계의 비중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의 경우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 및 빌라 등 다양한 주택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과 같이 주택유형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점유면적은 주로 소득과 함께 가구의 경제적 특성 및 가구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수[56]와 함께 사회관계 비중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역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이웃과 친밀한 관계 형성과 지역공동체에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관계 유형별 관계 규모 및 관계의 비중 모두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거주기간은 이웃관계 형성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거주기간이 길수록 주거지역에서 교류하는 이웃의 규모와 친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기간과 이웃관계 비중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거주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이웃관계 비중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57].

---

55) 주택유형, 점유면적, 점유형태에 따른 사회관계 유형별 규모에 있어서도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6) 1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규모에 따른 이웃관계 비중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57) 이러한 경향은 이웃의 수에 있어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 2 절 이웃관계 형성요인

이웃관계의 중요도는 가구형성기 이후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이웃관계 형성의 계기 및 그 필요성 및 기능은 자녀의 출생과 성장발달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절에서는 이웃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와 그 목적 또는 교류의 기능 등이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개별면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1. 생애주기단계별 관계형성 계기

여성응답자[58]의 이웃관계 형성에 가장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것은 '자녀'로 분석되었다[59]. 이웃관계 형성의 계기로서 자녀를 매개로 형성된 관계가 52.0%로 가장 중요한 계기이며, 다음으로는 특별한 계기 없이 자주 마주치게 되어 형성된 관계가 25.4%로 많았다. 이웃관계의 계기 중 9.6%가 취미여가 활동을 계기로 만났으며, 9.3%는 종교활동을 통해 이웃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상회 등의 주민조직 활동을 통해 이웃관계를 맺는 경우는 가장 낮은 3.7%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주거지 기반의 공동체 활동이 이웃관계 형성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60].

자녀의 출생과 자녀의 성장·발달 단계의 변화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의

---

58) 여성응답자 447명 중 관계를 맺은 각각의 이웃과 교류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응답한 주민 401명의 이웃관계 속성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웃관계 형성의 계기에 응답한 이웃관계 수는 2,471명이다

59) 일반적으로 이웃관계는 주거지에서 가까이 거주하면서 잦은 접촉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천현숙(2001)의 연구에서도 이웃관계의 계기는 '특별한 계기 없음'(45.4%)이 '자녀를 통해(20.5%)'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도출되었다.

60) 윤복자 외2는 이웃관계 형성의 동기가 주로 공식적인 정부차원의 행사로서 다소 의무적인 반상회를 통한 접촉기회(41.2%)와 가까이 산다는 물리적인 근접성에 기인한 접촉기회(38.1%), 자녀들간의 교제(11.0%)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분석하였다(윤복자 외 2, 1989: 52). 본 연구와 비교했을 때 이웃관계 형성의 동기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존성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역할전이를 발생시킨다. 특히 여성은 자녀와의 상호의존성 변화에 따라 부모로서의 역할 변화 및 그에 따른 시간자본의 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생애주기단계의 변화는 여성의 사회관계의 유형뿐만 아니라 계기 및 교류행태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녀의 출생은 이웃관계 형성의 동기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가 없는 가구형성기에 비해 자녀의 출생이후 자녀양육기에는 자녀를 계기로 한 이웃관계가 63.0%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다. 즉,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가구형성기 여성에 비해 이웃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자녀가 가장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양육기의 여성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주민과 자주 마주치면서 이웃관계를 맺는 경우는 21.6%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생애주기단계(자녀초등기, 자녀중고등기)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민조직 및 종교, 취미활동 등의 계기를 통해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초등기에는 부모와 자녀의 신체적 상호의존성이 감소하는 반면 자녀가 학교에 진학함으로써 자녀의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자녀를 계기로 관계를 맺은 이웃관계의 비중이 76.4%로 이웃관계에 자녀가 가장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주거지에서 특별한 계기 없이 자주 마주치면서 형성된 이웃의 비중은 13.0%로 자녀양육기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중고등기에는 상대적으로 자녀를 계기로 한 이웃의 비중은 61.1%로 감소한 반면, 취미여가 및 종교, 주민조직활동을 통한 이웃관계의 비중은 각각 10.1%, 7.8%, 4.8%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는 자녀가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면 부모자녀간 상호의존성이 크게 감소하여 가족외부 관계에 더 많은 시간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성년기에는 특별한 계기 없이 주거지에서 자주 마주치면서 관계를 형성한 경우가 38.8%로 크게 증가하는 반면, 자녀를 계기로 한 이웃관계 형성은 27.5%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 시기에는 취미여가 및 종교, 주민조직활동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각각 18.2%, 9.5%, 6.0%로 이전의 생애주기단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자녀간 상호의존성이 감소하여, 가족외부 관계에 더 많은 시간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진수기에는 주로 특별한 계기 없이 주거지에서 마주치다가 관계를 맺은 이웃의 비중이 49.8%로 다른 생애주기단계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는 경제적 측면과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진수기기 여성의 활동범위가 축소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이웃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애주기단계 중 가구형성기에는 주로 특별한 계기 없이 주거지에서 자주 마주침에 따라 형성된 이웃관계가 48.0%로 가장 많았으며, 38.8%는 종교활동을 통해서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생애주기단계별 이웃관계의 계기 분포 (단위: 빈도, %)

계기 / 생애주기	자녀	자주 마주침	주민 조직	취미 여가	종교 활동	전체
가구형성기	0 (0.0)	1 (1.0)	12 (12.2)	38 (38.8)	47 (48.0)	98 (100.0)
자녀양육기	257 (63.0)	3 (0.7)	31 (7.6)	29 (7.1)	88 (21.6)	408 (100.0)
자녀초등기	499 (76.4)	6 (0.9)	29 (4.4)	34 (5.2)	85 (13.0)	653 (100.0)
자녀중고등기	358 (61.1)	28 (4.8)	59 (10.1)	46 (7.8)	95 (16.2)	586 (100.0)
자녀성년기	124 (27.5)	27 (6.0)	82 (18.2)	43 (9.5)	175 (38.8)	451 (100.0)
자녀진수기	47 (17.1)	27 (9.8)	25 (9.1)	39 (14.2)	137 (49.8)	275 (100.0)
전체	1,285 (52.0)	92 (3.7)	238 (9.6)	229 (9.3)	627 (25.4)	2,471 (100.0)

Pearson X2 = 668.913 P=0.000

여성 중 이웃관계의 계기에 대한 응답자 수 : 401명

401명이 관계를 맺고 있는 전체 이웃관계의 수 중 관계 형성의 계기에 응답한 유효 사례 수 = 2,471

2. 이웃관계의 필요성 인식과 기능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이웃관계의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관계 형성의 계기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생애주기단계별로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개별면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질적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주거지에서 유대관계의 필요성 및 그에 대한 의식적 행위와 관계의 기능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이웃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웃관계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이웃관계의 기능과 그에 따르는 행동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에서 유대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가구형성기를 제외 한 모든 생애주기단계에서 나타났다. 가구형성기 여성의 경우에는 맞벌이로 인한 이웃교류에 대한 시간부족, 이웃으로부터의 도움 불필요 등 자신의 현재 상황 상 거주지에서 이웃관계가 필요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이웃교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웃의 필요성과 요구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 시기의 여성들이 이웃에 대해 느끼는 막연한 필요는 자녀로 인한 경험적 정보의 획득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구형성기 면담 대상자 모두 현재의 이웃관계보다 자녀가 태어난 이후의 이웃관계에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현재의 이웃관계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 또는 필요에 대해 회의적[61]이었으나, 자녀출생 이후의 이웃 관계 맺음의 중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 (이웃이) '필요하다'라고 막연하게 느끼는 것뿐이지, '나는 주변에 지인이 없으니까 외롭다'는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웃이) 없어서 불편한 것은 없고요, 꼭 (이웃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61) 종교활동을 통해 맺은 이웃을 제외하고는 이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라는 응답과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것은 못 느껴요. …(중략)… 그래서 나도 아이가 생기면 장기적으로 나도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편하게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정보도 서로 얻을 수 있고 내 자녀도 친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A씨_가구형성기

아직까지는 (이웃을 사귀고 싶은) 큰 욕구는 없는 것 같아요. …(중략)… 일부러 억지로 이웃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중략)… 근데 아이가 생기면 좀 다를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좀 그래요.

B씨_가구형성기

가구형성기 응답자들을 제외한 모든 면담 응답자들도 자녀의 출산 이전에는 이웃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녀의 출산 이후부터 친한 이웃관계가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직업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도 자녀의 주양육자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웃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요 애가 없으면 굳이 이웃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필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중략)… 첫째가 어린이집에 가면서 친한 이웃들이 생긴거죠.

C씨_자녀양육기

사실 결혼 전에는 우리 주변에 아이 부모들을 몰랐다고 한다면, 출산이나 학부형이 되고나서는 그런 이유로 새롭게 이웃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변화가 크죠.

F씨_자녀초등기

이웃이 필요가 없었죠. 결혼 후에도 아이 낳기 전에는 (필요 없었어요). …(중략)… 지금은 제가 주양육자가 되면서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의식하면서 (이웃을) 만들려고 했어요.

G씨_자녀초등기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죠. 결혼 전이나 아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웃이 없었고요. …(중략)… 임신을 했을 때도 계속 직장을 다니니까

이웃을 사귈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요.

H씨_자녀중고등기

아이 낳기 전에는 이웃과 친해지지가 않죠.

I씨_자녀중고등기

2) 관계의 기능과 의식적 행동

실제로 여성이 이웃관계를 시작하고 이웃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시기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간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자녀양육기부터 자녀중고등기까지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의 획득과 자녀의 교우관계 형성, 자녀양육에 도움을 얻기 위해 이웃관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이 시기 이웃관계의 기능은 정서적 유대보다 실용적, 기능적 유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은 자녀가 주거지에 있는 보육시설이나 학교 등에서 또래를 만나게 되면서, 자녀를 계기로 이웃과 교류하게 되며 특히,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어머니가 자녀와 유사한 연령의 아이가 있는 이웃과 관계를 맺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낳고나서 (이웃이) 생겼어요. (아이 낳고나서) 어느 정도는 (필요했어요), 우선, 교육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느 어린이집이 좋고, 어느 유치원이 좋고, 어느 학습지가 좋은지 좀 많이 듣고서, 알아서 애들(교육)을 시켜야되니까. 엄마들이 서로 두루두루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엄마들이 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친해지려고) 노력하죠.

C씨_자녀양육기

거의 아이 관련한 정보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내지는 (문화)센터 관련한 정보들과 그 나이의 발달상황과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 (중략)… 아이들 관련한 정보는 동네에 사시는 분들한테만 정보를 많이 얻으니까요.

D씨_자녀양육기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자녀를 중심으로 한 이웃관계 형성에 대한 의지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녀의 미숙함이 공교육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에 대한 우려와 자녀의 교우관계 형성과 자녀의 학업을 돕기 위해 부모의 역할에 대한 필요를 더욱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중략)… 계속해서 이 커뮤니티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중략)… 아이의 사회생활을 잘 관찰하고 엄마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교류를 갖고 친분관계를 맺는)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죠. 언젠가는 제 아이도 친구들 커뮤니티 속에서 계속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중략)… 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활동을 좀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를 좀 더 교류하고, 아이 학교활동에 대해서 서로 묻고, 학교일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이런 점에서 조금 더 깊어졌다고 할까요. 그런 차이가 있죠.
>
> F씨_자녀초등기

> 저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는 제 아이가 좀 적극적이지 않고 좀 얌전한 편이라서 아이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려면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아이 엄마들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좀 필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중략)… 그 시기부터는 선생님의 도움이 아니고 본인이 혼자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학년일 때는 (아이들이) 미숙한 단계이고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엄마로써 아이를)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
> G씨_자녀초등기

>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들은) 서로간에 애들을 케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해지는 거죠. 또 볼일도 보다가 좀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애 좀 같이 데리고 있어줘” 하는 거죠.
>
> I씨_자녀중고등기

자녀가 초등학교 이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기존 초등학교 저학년 당시에 맺었던 이웃관계 위주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는 학업의 수준과 진학의 방향, 자녀의 성별과 성향에 따라 새로운 이웃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기

존의 이웃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지속되는 등 변화가 생기는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 아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학습을 해야 하나? 지금 내 아이가 이렇게 학습을 하는 데 다른 집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하는 방식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진도는 어떠하고 …(중략)…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판단이 안서거든요. 특히 남자 아이들 엄마들은요. 그래서 교류를 하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중략)… 지금은 아이의 수학 레벨이랑 같으냐, 지금 선행이 이 아이는 중3인데, 저 아이는 고1이다 하면 별로(연락하지 않고요.). 영어도 레벨이 같으냐 하는 그런 학업 위주로 매칭이 되고요. 그래서 제 이웃들은 다 아이 위주예요.
>
> H씨_자녀중고등기

> 모두 애들 학교 때문이에요. …(중략)… 우리 둘째(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운동(펜싱)을 해요. …(중략)… 어차피 (운동)그거는 계속 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친해져야 해요. 안 친하면 내가 불편하거든요. 정보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구조고요. …(중략)… 일반적인 엄마들은 애들이 크면 직장을 다니더라고요. 아르바이트라도 하게 되고요. 좀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잖아요. 오히려 시간적으로는 초등학교 때가 제일 바빠요. …(중략)… (중고등학생) 엄마들은 자기 생활을 좀 가져요. 운동을 한다던가.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놀러 다니는 부류가 바뀌는 것 같아요.
>
> I씨_자녀중고등기

자녀 출생이후부터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등 경험적 정보획득과 자녀의 사회관계 형성을 위해서, 자녀양육기에서 자녀중고등기까지의 여성은 이웃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주로 자주 연락을 하거나, 만남과 활동을 주도하고, 사적인 공간을 먼저 개방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아무래도 이웃은 만나려고 먼저 연락도 하고, 같이 문화센터도 다니고 하니까. 친구에 비해 이웃과 관계를 맺는 게 더 노력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놀이터에 나갈 때는 일부러 아이 친구들 간식도 더 챙기고, 집으로 가끔씩 초대해서 저녁도 차려서 함께 먹이고 놀리고 하려면 신경이 좀 쓰이죠.

D씨_자녀양육기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 전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고 새롭게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더 하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만나고요.

F씨_자녀초등기

저는 (아이들이) 집안에서 플레이데이트(playdate) 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엄마들도 같이 오게 해서 만나다 보니까 …(중략)… 집으로 부르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집에서 있는 것이 편하고 해서 집으로 오시라고 해서 같이 어울렸어요. 그리고 나가서 놀린다 하더라도 놀이터 말고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애들 놀이 공간에 데리고 가서 같이 놀아주는 것을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G씨_자녀초등기

저는 우리 막내 때문에 ○○카페에 와요. 목적이 있어서 와요. …(중략)… 우리 아이가 말이 늦으니까. 친구나 한두 살 많은 형들이 오후에 몇 시간 같이 놀아주고,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주고, 대신, 그 아이를 내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I씨_자녀중고등기

반면, 자녀성년기 이후부터 이웃교류의 목적은 주로 정서적 유대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들은 주거지에서 특별한 계기가 없이 자주 마주치면서 서로의 안부 묻기, 음식 나누어 먹기, 담소나누기, 운동하기 등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하면서 정서적 유대를 나누는 이웃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웃집에 살면서 자주 보게 되고 해서 친해졌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친구가 되었죠. …(중략)… 서로가 고충이나, 즐거운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지만, 특히 고충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상대나, 얘기해 줄 수 있는 상대가 되니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J씨_자녀성년기

가까이에서 자주 보고 인사하고 먹을 것도 나누어 먹고 하면서 친해진거야, 그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니까 친해진거야. …(중략)… 중요하지. 울적한 마음이 생겼다가도 만나면 대화도 하고 웃고 하니까 없어지잖아. 또 어디 아프면 서로 위로해주고 하는 거지. 없으면 얼마나 쓸쓸한데, 우리 나이쯤에는 친구[62]가 제일이야. 친구가 제일이야.

K씨_자녀진수기

여기(공원) 있다가 만나서 알게 된 거지. …(중략)… (유년기의) 친구들은 하나도 없어. 여가활동도 안해. …(중략)… 우리 동네 양반들이 중요하지. 매일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도하고 외로울 땐 친구도 되고 말동무도 되고.

L씨_자녀진수기

이와 더불어 자녀가 없는 가구형성기의 B씨는 종교활동과 주거지에서 자주 마주치면서 이웃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관련된 학교 등의 근린문제와 관련이 없는 생애주기단계이므로 다른 계기 외에 자신의 주택을 출입하면서 우연하게 마주치는 계기를 통해 이웃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교활동을 통해 만난 지역주민과 교류함에 따라 주거지에서 종교시설이 이웃교류의 주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랑 이웃관계를 맺고 있는데, 가까이 살다보니까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음식처럼 나눌 수 있는 게 넉넉하게 생기면 그걸 드리게 되었고, 또 그 분도 제게 음식과 같은 것들을 주시게 되었고요. 또 동네에 좋은 병원이라든지 그 외 좋은 것들에 관한 정보를 제가 얻는 과정에서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요. …(중략)… 교회를 통해서 성경공부 모임을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중략)… 저희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공부를 하기 위해 돌아가면서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다과를 먹고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종종 성경공부 외에도 함께 외식

62)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만난 이웃으로 K씨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친구'로 표현하였다.

을 한다든지 공연을 본다거나 단거리 여행 등을 하고 있어요.

B씨_가구형성기

본 연구에서는 '이웃'을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맺게 된 관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응답자에게 이웃과 그 외 관계로서 '친구'의 차이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서 자녀진수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유대관계의 기능에 따라 '친구'와 이웃의 중요성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다. 응답자들은 '친구'의 경우, 지극히 사적이며 정서적 측면의 유대관계로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때문에 대면접촉과 같은 직접적인 교류의 빈도가 낮더라도 '친구'관계에 대해서는 이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표현하였다. 반면 이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서적 친밀도는 낮지만 자녀양육 및 교육 등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해 교류의 빈도가 높으며, 도구적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이웃과의 교류는 실용적이며, 기능적인 관계로써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때문에 자녀의 성장이나 진학으로 인해 관계의 단절 또는 교류빈도의 감소 등 관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웃과는) 상당히 많은 것을 교류하고 오픈하고는 있지만 격식이나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죠. 순위로는 매길 수는 없지만 중요성을 든다면 친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중략)… 친구가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가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친구라는 존재가 더 오랜 관계를 유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더 우선이에요.

B씨_가구형성기

정서적 측면에서는 초등학교 친구가 더 많이 위로가 되는 거 같고요.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웃은 자녀교육을 위한 정보공유라는 차원에서 중요한거고요.

C씨_자녀양육기

차이가 있어요. 교류의 빈도수를 따지면 이웃이 훨씬 더 많은데, 제 직장 동료들이랑 제 학교 친구들에게는 내가 내 가족이라든지 내 아주 깊은 얘기를 하기에는 더 좋아요. 친구들은 훨씬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웃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쁜 얘기들은 서로가 이야기 하기를 좀 꺼리는 것 같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얘기가 어떻게 돌지 모르겠다는 것을 다들 아니까요. 그래서 저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G씨_자녀초등기

자녀를 계기로 한 만남은 주거지에서 우연히 형성되는 잦은 마주침이나 종교 등의 다른 활동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실용적이고 기능적이며, 관계의 지속성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도 이사나 자녀의 진학에 따라 이웃관계가 단절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하지만 자녀초등기 및 자녀중고등기에 속하는 면담자들은 처음에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서 교류를 시작했던 이웃들 중 소수의 이웃과 정서를 교류할 수 있는 친구관계로 바뀌었다고 응답하였다. 즉, 자녀를 계기로 한 이웃관계는 실용적이며 기능적인 유대관계로써 자녀의 성장발달에 따라 관계의 단절이나 변화가 예상되나, 일부 이웃이 정서적 기능의 유대관계로 전환됨으로써 이웃관계가 지속가능한 관계로 바뀌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은요. 개인적으로 저랑 잘 맞는 사람들은 오래가겠지만, 대부분은 이사를 가거나 하게 되면, 나중에는 좀 멀어질 것 같아요.

C씨_자녀양육기

그게 사람들 말이 아이로 인해서 맺게 된 관계에 있어서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서 다른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그런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지금의 관계는 많이 바뀌지 않을까(하고 생각돼요).

D씨_자녀양육기

유치원에서 만났던 엄마들은 학교를 가면서 좀 멀어지는 것 같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나서는 1학년 때 만났던 엄마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중략)… 아마도 이 관계들은 초등학교까지는 지속될 것 같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가면 일부 몇 명을 제외하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중략)…결국에는 정보교류 목적도 있지만, 정서적인 측면과 상대의 정서적 측면이 맞으면 좀 더 관계가

깊어져서 그냥 언니와 같은 관계로 가는거죠.

F씨_자녀초등기

1/3 정도는 그래도 아이와 별개로 계속 친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를 가더라도) 그 사람들과는 관계를 유지할 것 같아요.

G씨_자녀초등기

아이가 학교를 어디로 가느냐, 이사를 가느냐, 아니면 학교를 특목고를 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중략)… 부모의 직업이 비슷하거나 공통된 취미가 있거나 아이의 성적이 비슷하거나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리고 그때부터는 동성의 자녀를 둔 부모와 더 친해지죠.

H씨_자녀중고등기

엄마들은 애들이 크면 직장을 다니더라고요. 아르바이트라도 하게 되고요. 좀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잖아요. …(중략)… 근데 중학교가 되면 애들이 바빠지게 되잖아요. 학원을 늦게까지 보낸다던가, 이런식으로 하니까. 근데 그 시간에는 엄마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생활을 좀 가져요. 운동을 한다던가. 그래서 정말...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놀러 다니는 부류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I씨_자녀중고등기

제 3 절 소 결

본 연구에서 사회관계 대비 이웃관계의 비중은 친구 및 동료관계의 비중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이웃관계로부터 요구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다른 사회관계에 비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웃관계는 다른 사회관계에 비해 중요도가 다소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여성의 사회관계 중 이웃관계의 비중은 42.2%로 남성의 23.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주거지라는 공간

기반의 사회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성에게 이웃관계는 다른 사회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여성의 사회관계를 고려한 이웃관계의 중요도는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이웃관계의 비중은 가구형성기와 자녀양육기, 자녀초등기 이후와 같이 세 그룹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이들 세 그룹 간에 이웃관계의 중요도가 다름을 의미한다. 가구형성기에는 이웃관계의 비중이 가장 낮은 시기로, 주거지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한 사회관계의 중요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자녀의 출생 후 미취학 어린 자녀가 있는 자녀양육기에는 이웃관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시기부터 주거지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계의 중요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맏자녀의 활동기반이 가정에서 학교로 전환되는 자녀초등기부터는 사회관계 대비 이웃관계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자녀진수기의 이웃관계는 다른 생애주기단계보다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초등기 이후의 생애주기단계의 여성에게는 주거지 중심의 공간을 기반으로 한 이웃관계가 친구 및 동료 등의 사회관계보다 중요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유목사회와 네트워크 사회를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주거지라는 공간기반의 이웃관계가 다른 유형의 사회관계에 비해 중요한 것임을 뜻한다. 즉, 사회성의 토대로서 네트워크가 장소를 대체하여 지역공동체의 형태가 해체되었다는 선행연구와는 대조적인 결과이며, 성별과 생애주기단계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에서의 이웃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려는 행위자는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웃관계의 중요도(비중)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생애주기단계 요인이 여성의 사회관계 대비 이웃관계의 비중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개인속성이나 주택의 물리적 속성보다 자녀의 출생과 발달 과정을 의미하는 가족의 생애주기단계와 같은 가구속성이 여성의 사회관계의 형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생애주기단계 중 자녀초등기와 자녀중고등기 여성의 경우에는 가구형성기에 비해 다른 사회관계 대비 이웃관계의 중요도를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생애주기단계를 중심으로 이웃관계의 중요도와 관계형성의 계기 및 이웃교류의 기능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웃관계의

비중은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웃관계의 비중이 다른 이유는 이웃관계에 대한 필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초래된다고 할 수 있다. 이웃관계의 비중이 가장 낮은 가구형성기 여성들은 이웃교류를 통해 의도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웃의 필요성과 이웃교류의 욕구가 없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가 없었던 가구형성기를 회상한 모든 여성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여성의 경우에는 주로 주택 인근에서 특별한 계기 없이 주민과 자주 마주치면서 이웃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자녀간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자녀양육기에서 자녀중고등기의 여성들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정보획득과 자녀의 안정적인 사회관계 형성 및 자녀양육에 도움을 얻기 위해 주거지에서의 이웃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시기의 여성들에게 이웃관계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녀'이며, 이웃과 기능적이며 실용적인 측면의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녀'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자녀양육기와 자녀초등기 및 자녀중고등기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 또래 부모들과의 유대관계 형성 및 확대를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자녀의 보육시설 및 학교 등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이를 함께 이용하는 주민들과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등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이웃으로써 그 관계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구 내에 미성년 자녀의 존재는 여성으로 하여금 친구나 동료 등의 사회관계에 비해 이웃과의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자녀의 성장발달에 따라 자녀중고등기 이후에도 이웃관계의 비중은 친구와 동료관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를 계기로 한 관계 형성은 감소하고 그 외의 계기에 의한 이웃관계 형성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약화되면서 부모들은 시간 자원의 증가와 함께 비공식적 관계를 발달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지게 된다. 이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부모자녀간의 상호의존성이 약화되면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 등을 위한 관계형성에 대한 필요는 감소하고, 취미여가활동, 종교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웃관계를 확대시키는데 투자할 수 있는 시간자원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성인기와 자녀진수기는 자녀들이 성년이 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로 가족외부의 사회관계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며, 이 시기의 여성에게 이웃과의 정서적 유대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자녀성인기에는 특별한 계기 없이 주거지에서 자주 마주침에 의해 관계를 형성하는 비중이 증가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웃관계를 맺는다. 자녀진수기의 이웃관계는 주로 주거지에서 잦은 만남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진수기의 홀로 사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주거지에서의 사회관계는 아주 중요한 사회관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5 장 이웃관계의 공간적 특성

생애주기단계는 여성의 전체 사회관계 중 이웃관계의 비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생애주기단계의 특성에 따라 이웃관계 형성의 계기 및 필요성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주거지에서 형성되는 이웃교류의 공간적 범위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특성도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와 개별면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이웃교류의 공간적 범위와 교류공간의 이용특성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는 사회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의 거주지 분포를 통해 분석하였다.

제 1 절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

1.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이웃관계의 공간범위

1) 이웃의 거주지 분포

설문응답자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중 68.0%가 단지 및 동네 내부에 거주하고 있으며, 32.0%는 단지 및 동네의 외부주거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의 주택과 가까운 인접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의 비중은 19.4%로 단지 및 동네 밖의 외부주거지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는 물리적으로 인접한 주거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본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단지 및 동네 밖의 주민과 교류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주민의 경우에는 단지 및 동네 밖의 외부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교류가 43.7%로 다세대다가구 주민의 14.8%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같은 층이나 아파트의 같은 동, 같은 골목 내 주택과 같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인접주택'에 거주하는 이웃과 교류하는 비중

은 다세대다가구 거주민이 25.3%로 아파트 거주민의 15.4%보다 높았다. 이는 물리적인 근접성이 수직적으로 밀집된 주택유형보다 수평적으로 밀집된 주택유형의 이웃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63].

<표 23> 주택유형별 이웃의 거주지 분포 (단위: 빈도, (%))

이웃거주지 / 주택유형	단지/동네 내부			단지/동네 외부 주거지	전 체
	인접주택	단지/동네	소계		
전 체	492 (19.4)	1,232 (48.6)	1,724 (68.0)	810 (32.0)	2,534 (100.0)
아파트	231 (15.4)	615 (40.9)	846 (65.3)	657 (43.7)	1,503 (100.0)
다세대다가구	261 (25.3)	617 (59.8)	878 (85.2)	153 (14.8)	1,031 (100.0)

Pearson X^2 = 235.692 P=0.000

이웃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 404명 중 이웃관계에 대해 응답한 사례 수 = 401명

401명이 관계를 맺고 있는 전체 이웃관계 중 이웃의 거주지에 응답한 수 = 2,534

이웃관계 형성의 계기에 따라서 교류하는 이웃의 공간적 분포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웃관계 형성에 있어서 '자녀'는 가장 주요한 계기로써 자녀를 계기로 관계를 형성한 이웃 중 38.8%는 단지 및 동네 외부의 주거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단지나 동네 내부의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먼 거리의 단지 밖 주민들과 이웃관계를 맺는 데에는 자녀가 중요한 매개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웃관계 형성의 계기가 자녀인 경우, 자녀가 강력한 공통의 관심사 역할을 함으로써 이웃과의 거리가 관계형성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취미여가 및 종교활동을 통해 관계를 맺은 이웃의 경우에는 단지 및 동네 밖의 외부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중이 각각 46.2%, 42.5%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록 이들 계기로 이웃관계를 형성하는 비중은 자녀를 계기로 한 경우에 비해 크게 낮지만, 취미여가 및 종교활동은 단지 및 동네 밖의 주민과 이웃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63) 이것은 단순한 공간적 근접성만으로는 시각적이고 이웃간의 교류를 유도할 수 없다고 한 Gans(1961)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웃관계는 자녀와 취미여가활동, 종교활동을 계기로 단지 및 동네 밖으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반면, 주거지에서 특별한 계기 없이 자주 마주치거나 부녀회 등 주민조직 활동을 통해 이웃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주로 단지 및 동네 내부에 거주하는 주민이 각각 89.7%, 8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거지에서 특별한 계기 없이 자주 마주치면서 관계를 형성한 이웃 중 44.1%는 인접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응답자의 주택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과는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주거지에서의 잦은 마주침으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조직활동을 통해 주로 단지 및 동네의 주민과 이웃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이들 조직들이 주민이 거주하는 단지 또는 동네와 관련한 활동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

<표 24> 이웃관계 형성 계기에 따른 이웃의 거주지 분포 (단위: 빈도, (%))

거주지 \ 계기		자녀	자주 마주침	주민 조직	취미 여가	종교 활동	전체
단지/동네 내부	인접 주택	133 (10.4)	275 (44.1)	14 (15.2)	27 (11.3)	26 (11.5)	475 (19.3)
	단지/동네	654 (50.9)	284 (45.6)	61 (66.3)	101 (42.4)	104 (46.0)	1,204 (48.9)
	소계	787 (61.2)	559 (89.7)	75 (81.5)	128 (53.8)	130 (57.5)	1,679 (68.1)
단지/동네 외부 주거지		498 (38.8)	64 (10.3)	17 (18.5)	110 (46.2)	96 (42.5)	785 (31.9)
전체		1,285 (100.0)	623 (100.0)	92 (100.0)	238 (100.0)	226 (100.0)	2,464 (100.0)

Pearson X^2 = 417.992 P=0.000

이웃의 거주지와 이웃관계 형성의 계기에 동시에 응답한 유효사례 수 = 2,464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교류하는 이웃의 거주지 분포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체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생애주기단계 여성은 단지 및 동네 밖의 외부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교류 비중이 높은 반면, 인접주택 주민과의 교류비중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

가 없거나 성년 이후의 자녀가 있는 생애주기단계에는 단지 및 동네 내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교류비중이 다른 생애주기단계에 비해 높으며, 외부주거지 주민과의 교류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애주기단계별 이웃의 거주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구형성기의 경우 자신의 주택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인접주택의 주민과 교류하는 비중이 55.1%로 생애주기단계 중 가장 높다. 단지 및 동네 밖 외부주거지 주민과는 16.3%의 이웃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다른 생애주기단계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이다.

자녀양육기에는 인접주택 주민과 교류하는 비중이 22.2%로 가구형성기에 비해서는 급격히 감소하지만, 가구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른 생애주기단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는 다른 생애주기단계의 여성에 비해 자신의 주택과 물리적으로 인접한 주민과 이웃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류하는 이웃 중 32.2%가 단지 및 동네 밖의 외부주거지역 주민으로 상대적으로 단지 및 동네 밖 주민과의 교류의 비중도 높게 분석되었다.

자녀초등기의 여성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중 43.5%가 단지 및 동네 밖의 외부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른 생애주기단계 여성에 비해 단지 및 동네 밖 외부주거지 주민과 많은 교류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초등학생 자녀의 또래와의 만남이 인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지 주민과의 교류를 유도함으로써 다른 생애주기단계에 비해 이웃관계가 단지 및 동네 밖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녀초등기 여성의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가 자녀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수준임을 의미한다.

자녀중고등기의 여성은 자녀초등기에 비해 단지 및 동네 밖의 외부주거지 주민과의 교류가 30.9%로 다소 낮아진 반면, 단지 및 동네 내부 지역 주민과의 교류는 69.1%로 증가하였다. 인접주택 주민과의 교류는 10.4%로 다른 생애주기단계에 비해 가장 낮았다.

자녀성년기의 경우, 여전히 외부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과 교류가 28.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인접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과 교류하는 비중이 23.5%로 자녀중고등기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진수기에는 83.6%가 단지 및 동네 내부의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단지 및 동네 밖의 외부주거지 주민과 교류하는 경우는 16.4%로 가구형

성기와 같이 생애주기단계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자신의 주택에서 가까운 인접주택 주민들과의 교류 비중이 29.1%로 높게 분석되었는데, 이는 자녀진수기 여성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활동범위의 축소로 인해 단지 또는 동네 밖의 상대적으로 먼 곳에 거주하는 이웃과의 교류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5> 생애주기단계별 이웃의 거주지 분포 (단위: 빈도, (%))

이웃거주지 / 생애주기	단지/동네 내부			단지/동네 외부주거지	전체
	인접주택	단지/동네	소계		
가구형성기	54 (55.1)	28 (28.6)	82 (83.7)	16 (16.3)	98 (100.0)
자녀양육기	89 (22.2)	183 (45.6)	272 (67.8)	129 (32.2)	401 (100.0)
자녀초등기	85 (13.0)	284 (43.5)	369 (56.5)	284 (43.5)	653 (100.0)
자녀중고등기	61 (10.4)	344 (58.7)	405 (69.1)	181 (30.9)	586 (100.0)
자녀성년기	106 (23.5)	215 (47.7)	321 (71.2)	130 (28.8)	451 (100.0)
자녀진수기	80 (29.1)	150 (54.5)	230 (83.6)	45 (16.4)	275 (100.0)
전체	475 (19.3)	1,204 (48.9)	1,679 (68.1)	785 (31.9)	2,464 (100.0)

Pearson X^2 = 206.011 P=0.000

2) 이웃과 동네의 공간적 범위의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교류의 공간적 범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개별면담조사의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웃과 교류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실제로 교류하는 이웃이 거주하는 공간적 범위는 생애주기단계 중 자녀성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녀중고등기까지는 자녀를 계기로 관계를

맺은 이웃과 아파트 단지 밖이나 주택지 블록 밖의 주민들과 교류하고 있었다. 특히 자녀초등기에 속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교류하고 있는 이웃이 모두 자녀를 계기로 만난 경우이다. 결국 자녀와 같은 학교 또래의 부모와 친분을 맺기 때문에, 이들의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정도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자녀성년기 이후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나 주택지 이내로 교류의 범위가 다른 생애주기단계에 비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웃 아파트단지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공부모임을 하면서 각각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거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
> B씨_가구형성기

> 다른 아파트(주민)들도 만나요. 지금 같은 아파트에 있는 엄마들이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엄마들(첫째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 아이들 엄마들)을 소개시켜줘요. …(중략)… 정보도 교류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알 수 있고 하니까. 같은 유치원끼리 엄마들이 다시 모이더라고요.
>
> C씨_자녀양육기

> 우리 아파트랑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요. …(중략)… 이웃이라 함은 이 주변 단지 정도일 것 같아요. 애들 어린이집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우리 단지랑 옆 단지에 살거든요.
>
> D씨_자녀양육기

> 제가 교류하는 사람들은 단지 내에서 또는 바로 이웃하는 단지 내에 있는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략).
>
> F씨_자녀초등기

> 그 때(자녀가 유치원생일 때)는 한 명도 같은 아파트 단지가 없었어요. …(중략)… 결국에는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이웃[64]과 사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거죠.
>
> G씨_자녀초등기

64) 그가 현재 교류하고 있는 이웃 15명 중 11명이 이웃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같은 아파트 단지도 있는데, 주로 학군이 같은 이웃이에요. 초등학군 위주로요 딱.(그 정도예요). 같은 단지가 아니라도 그 넘어 블록 또 그 넘어 블록, 대충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대충 근린공원 하나 끼고 있는데서 왔다갔다 (하죠.)

H씨_자녀중고등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옆집, 앞집에 살죠. 바로 옆에 살아요.

J씨_자녀성년기

어쨌든 지금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모두 이 아파트에 있지, …(중략)… 여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람은 매일 보니까 안부도 묻고 친해지는 것이고요.

K씨_자녀진수기

여기(내가 사는 골목) 옆 골목에도 살고, 저기 ○○아파트[65]에도 살고, 대부분이 요기 골목이지.

L씨_자녀진수기

이러한 결과는 개별면담조사의 응답자들이 대체적으로 이웃과의 물리적 근접성[66]을 이웃과 관계를 맺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이웃과 가깝다고 인식하는 거리는 실제의 공간적 거리와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초등기 및 자녀중고등기 응답자들은 초등학교 통학권 범위 정도의 거리를 이웃과 관계를 맺는 데에 가까운 거리로써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또는 같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또래의 부모와 교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를 '가까운' 거리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진수기의 경우에는 주로 반사적반공적 공간에 의해 인접한 수준의 거리를 가까운 거리로 인식하고 있었다.

65) 응답자가 거주하는 주택지 블록과 인접한 아파트로 응답자 주택과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66) 개별면담조사 결과 주거지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자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이웃과의 거리, 취업유무, 소득수준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별면담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자녀'와 응답자 개인의 성향 및 가치관 등을 제외하면, '거리'가 이웃관계를 맺는 데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났다. <부록 10> 참고.

옆집 아주머니와 친해지게 된 계기도 자주 보게 되었기 때문이고, 옆집이기 때문에 가까워서 음식도 드리기가 편했고요. 좀 더 멀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자주 보고 하다보니까 친해진건데요. 만약 멀리 있다면 자주 뵙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갑자기 성인이 돼서 제가 굳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는 (가까운) 거리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B씨_가구형성기

거리가 당연히 장애가 되죠. 옛말에도 '이웃사촌이 멀리 있는 친인척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잖아요. 정말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멀리가면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그런식으로 될 것 같아요. …(중략)… 어쨌든 그 사람들도 이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니까 자주만나죠. 이사 간 사람들은 가끔 봐요.

E씨_자녀양육기

저는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서로 만나는 장소를 정할 때도 (멀면) 편하게 다가갈 수 없을 것 같고, 중간 거리를 정한다든지 해서 만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공간적인 거리가 만남의 빈도에 차이를 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이웃하는 친구들이 다 애들 때문에 만나는 거라서 우리 초등학교 통학권에 다 사는 정도의 거리죠.

F씨_자녀초등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경우에는 제 여가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낮에 만날 수는 없고, 밤에 시간이 있는지를 서로 탐색해서 만나려면, 밤에도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여야 하죠. 지금도 제가 답답하거나 힘들면 공원에서 산보를 하면서 얘기하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OO동이나 그 이상으로 멀리 이사를 간다면 그렇게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때부터는 보고 싶지만 날짜를 정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H씨_자녀중고등기

거리가 가까우니까 친구가 되었죠. …(중략)… 거리가 가까우면, 특히, 고충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상대나, 얘기해 줄 수 있는 상대가 되니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J씨_자녀성년기

다 여기 골목들이야. 가까우니까 여기 공원에서 자주만나고, 앉아 있다 보니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친해졌어.

L씨_자녀진수기

개별면담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이웃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공간적 범위와 우리 동네의 공간적 범위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웃과의 교류가 이웃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동질감이나 친밀감을 높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아파트 주민이 교류하는 이웃 중 인근 아파트 단지나 주택지 블록에 거주하는 주민이 있을 경우, 이웃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이웃 주거지에 대한 친숙함이 생기면서 자신의 아파트 단지 밖의 지역도 '우리 동네'로 인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이웃이 주택지 블록 내에 한정적으로 존재하거나 이웃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우리 동네의 범위가 주택지 블록이나 단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 동네의 공간적 범위는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거리가 인지가 되지는 않지만 제가 자주가고 방문하는 집들이 있는 곳은 동네로 생각이 되고, 그게 상당히 떨어진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 (행정)동까지는 안되더라도 이웃단지 이상으로 상당히 넓은 범위가 될 것 같아요.

B씨_가구형성기

우리 동네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랑 바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정도죠.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이웃들이 주로 우리 단지랑 이웃 단지에 살거든요.

C씨_자녀양육기

이웃하는 00아파트, △△아파트도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는 사람들이 사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놀러도 가니까 저는 남의 동네 같지는 않아요. 뭐 어차피 길 건너 바로인데요 뭐. 그 정도까지는 동네 같죠 뭐. 동네나 이웃들이 있는 곳들이나 거의 비슷하죠. 유모차가 갈 수 있으면 동네죠.

E씨_자녀양육기

(우리 동네는) 걸어갈 수 있는 범위 정도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정도요. 이웃들이 같은 아파트는 없고. 다른 아파트 단지(에 있어요). 다 우리 동네죠.

I씨_자녀중고등기

이웃은 딱 내가 살고 있는 요지역이죠. …(중략)… 우리 동네도 요 성당이랑 공원정도, OO아파트 벽(경계)부터, 대우아파트 마트 전까지 정도죠[67].

J씨_자년성년기

(아파트)단지를 벗어나면 그냥 또 다른 동네처럼 느껴져요. …(중략)… 이웃이라고 하면 저도 모르게 처음부터 이웃의 범위는 우리 아파트 주민 정도예요. (단지를) 벗어나서 생활편의시설 때문에 찾아가는 그런 곳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안한 것 같아요. 그런 곳은 우리 동네이지 이웃은 (제가 사는) 아파트 정도라고 생각해요.

A_가구형성기

2. 단지 및 동네 밖 이웃관계 형성의 영향요인

여성응답자들은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지 밖의 주민들과도 활발한 이웃관계를 맺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녀초등기나 자녀중고등기에 속하는 여성들은 자녀를 계기로 단지 및 동네 밖의 주민들과의 교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생애주기단계의 특성이 단지 및 동네 밖의 주민과의 이웃관계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단지 및 동네 밖의 주민들과의 교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하더라도 생애주기단계의 특성이 주요한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응답자가 교류하고 있는 이웃 중 단지 및 동네 밖에 거주하는 주민과 교류하는 비중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설명변수로는 이웃관계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이용하였으며,

67) 그가 거주하는 주택지 한 블록에 해당하는 범위임.

역시 생애주기단계와 연령 및 동거자녀수 변수의 포함여부에 따라 모형을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로 가구속성 중 동거자녀수와 생애주기단계 요인과 주택속성 중 주택유형이 단지 및 동네 밖 이웃관계의 비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에 의하면 단지 및 동네 밖 주민과 교류하는 비중은 동거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2에 의하면 생애주기단계 중 자녀초등기와 자녀중고등기는 가구형성기에 비해 단지 및 동네 밖의 주민과 이웃관계를 맺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모형3에 의하면 생애주기단계 요인은 동거자녀수 등의 변수들을 통제하더라도 단지 및 동네 밖 이웃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녀가 초등학생이거나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가구형성기 여성에 비해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가 단지 및 동네 밖으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표 26> 단지 및 동네 밖 이웃의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상수)			-.015		-.050		.092	
개인속성	연령		.001	.025			-.003	-.114
	학력		.006	.055	.006	.054	.004	.038
	취업유무 (0=미취업)		-.042	-.058	-.038	-.052	-.041	-.057
가구속성	가구원수		.015	.048	.014	.043	.011	.035
	동거자녀수		.050 **	.132			-.005	-.014
	가구월소득		.000	.073	.000	.071	.000	.071
	생애주기 (r = 가구형성기)	양육기			.087	.104	.105	.125
		초등기			.236 ***	.284	.271 ***	.327
		중고등기			.255 ***	.236	.302 ***	.278
		성년기			.131 *	.137	.205 *	.215
		진수기			.118	.118	.211 *	.210
주택속성	주택유형 (0=다세대다가구)		.166 ***	.224	.155 ***	.210	.160 ***	.217
	주택규모		-.001 *	-.098	-.001	-.081	-.001	-.082
	점유유형 (0=임차)		.011	.015	-.004	-.006	-.005	-.008
	거주기간		.000	-.023	.000	-.029	.000	-.013
거주지 (0=A사례지)			-.039	-.056	-.044	-.063	-.046	-.065
R^2			12.0		15.6		15.8	
수정된 R^2			9.6		12.7		12.6	
모형적합도			5.160 ***		5.477 ***		4.855 ***	

*** P<0.01, ** P<0.05, * P<0.1

종속변수 = 단지 및 동네 밖 이웃의 비중(%)

$$= \frac{\text{단지 및 동네 밖에 거주하는 이웃의 규모}}{\text{개인이 맺고 있는 전체 이웃의 규모}} \times 100$$

제 2 절 교류공간의 특성

1. 계획공간과 비계획공간의 이용

이웃교류의 장소로는 주민간 교류와 유대감 형성을 위해 계획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공간의 이용이 17.7%로 낮은 반면, 계획되지 않은 공간의 이용이 82.3%로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파트 주민은 단지내부의 커뮤니티시설 및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간을 활용하기 보다는 단지 외부공간을 주요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아파트 주민의 이웃교류가 '단지'라는 물리적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며, 단지 외부 이웃과의 교류 및 거주민의 욕구에 맞지 않는 커뮤니티시설로 인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68]. 즉, 주거지에서 이웃간 교류를 의도한 커뮤니티 공간이 실제로 주민교류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69].

이웃교류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된 계획공간은 다세대다가구 주민의 13.7%가 이용하며, 아파트 주민은 20.5%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지 내에 부대·복리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에는 커뮤니티 공간의 부족과 관련한 공급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계획공간 중 놀이터의 이용률 9.7%로 다른 커뮤니티 공간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아파트의 경우 12.4%로 다세대다가구의 5.9%에 비해 더욱 활용도가 높았다.

교류가 의도되지 않은 비계획 공간 중에서도 공적공간은 53.4%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사적공간, 반사적·반공적 공간 순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적공간 중에서도 음식점 및 카페와 같은 상업시설이 35.2%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다가구 주민이 상업시설 등의 주거지 인근의 공적공간을 사적공간에 비해 많이 이용하는 반면, 아파트 주민의 경우에는 사적공간을 이웃과의 교류공간으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다세대다가구 지역이 아파트단지

68) 진미윤 외2(2001)의 연구에서도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커뮤니티 시설이 이용자의 욕구에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69) 박현정(2006)은 주거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주민교류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고 분석하였다.

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뮤니티공간이 부족하고, 물리적으로 규격화된 주거형태의 아파트보다 사적공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반사적·반공적 공간의 활용은 그 외 공간에 비해 활용도가 높지는 않으나, 다세대다가구 거주민의 경우에는 10.4%로 아파트 거주민의 6.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의 단위주택과 가로(골목)의 접촉공간이 이웃과의 일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매개적 공간으로써, 개인 또는 친밀한 사이의 이웃에 의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주거내부에서 일어나는 사적행동이 외부로 연장된 행동패턴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70].

<표 27> 주택유형별 교류공간의 이용 (단위: %)

교류공간구분1		교류공간구분2	전체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계획공간		커뮤니티 공간*	8.0	8.1	7.8
		놀이터	9.7	12.4	5.9
		계획공간 소계	17.7	20.5	13.7
비계획공간	사적공간	내집 또는 상대집	20.8	24.8	14.9
	반사적반공적	골목/계단 및 복도	8.1	6.6	10.4
	공적공간	자녀교육시설	6.5	8.9	3.1
		상업시설	35.2	31.0	41.2
		종교시설	6.5	4.4	9.4
		운동/문화/주민센터	5.3	3.9	7.4
		공적공간 소계	53.4	48.1	61.1
	비계획공간 소계		82.3	79.5	86.3
전체			100.0	100.0	100.0

여성응답자 401명이 이웃교류 장소에 대해 응답한 유효 응답수 = 2,448
(교류장소에 대한 응답 중 '기타'는 제외)
* : 놀이터를 제외한 커뮤니티 공간 및 시설
**: 이웃과 교류하는 장소는 가장 빈도가 높은 한 곳만 선택하도록 유도하였음

70) 손세관(1986)은 단위주택과 가로가 접하는 공간에서 거주자들이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감시하기도 하고, 작업공간으로 이용하는 등 일정시간 체류하면서 이웃과의 일상적인 교류가 이루지기 때문에 이웃교류에 중요한 매개적 공간으로서 의도적인 확보를 제안하였다.

2. 생애주기단계별 교류공간

1)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교류공간의 분포

이웃교류의 공간은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다소 다른 이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기와 자녀진수기의 여성들은 계획공간의 이용이 각각 37.0%, 38.9%로, 계획공간이 이웃교류를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중 자녀양육기 여성의 경우 놀이터가 27.4%로 교류의 주요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시기의 부모와 자녀는 상호의존성이 높고 자녀의 신체활동 등의 제약으로 인해 단지 또는 동네의 놀이터[71]에서 교류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자녀양육기에는 계획공간 다음으로 사적공간이 32.0%로 이용도가 높았다. 자녀진수기에는 놀이터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 중 경로당의 이용이 11.1%로 높게 나타났다. 즉, 주민교류가 의도된 계획공간은 주로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자녀양육기의 어린 자녀를 동반한 여성과 자녀진수기의 노인에 의해 그 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72].

생애주기단계 전반에 걸쳐 비계획공간의 이용은 높았으나, 특히 자녀양육기와 자녀진수기를 제외한 가구형성기와 자녀의 신체적 발달과 진학으로 인해 부모자녀간의 상호의존성이 약화되는 생애주기단계 여성에 의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가구형성기에는 상업시설과 종교시설의 이용이 각각 28.8%, 24.6%로 높았으며, 다른 생애주기단계에 비해 골목이나 계단, 복도와 같은 반사적·반공적 공간의 이용이 22.9%로 높았다. 자녀초등기와 자녀중고등기에는 비계획공간 중 상업시설과 같은 공적공간의 이용이 높았다. 특히 자녀중고등기에는 주거지 근처에 있는 카페나 음식점 등의 상업시설이용이 63.5%로 생애주기단계 중 가장 높은 이용을 보이고 있다. 자녀성년기에는 취미여가 활동의 공간인 운동·문화·주민센터

---

71) 신연섭 외는 가구생애주기단계에 따른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분석에서 '자녀출산양육기'(부부와 미취학아동) 주민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놀이터가 가장 필요한 부대복리시설임을 밝혔다(신연섭 외, 2006:61). 조성희 외1는 주민들이 놀이터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54.5%) 이용한다고 분석하였다(조성희 외1, 2002: 109).

72) <부록 12> 참고.

등의 이용이 13.2%로 다른 생애주기단계에 비해 높았으며, 반사적·반공적 공간의 이용도 18.4%로 높았다.

<표 28> 생애주기단계별 교류공간의 이용 (단위: %)

구 분			가구 형성기	자녀 양육기	자녀 초등기	자녀 중고등기	자녀 성년기	자녀 진수기	전체
계획공간		커뮤니티 공간*	1.7	9.6	2.6	2.7	11.0	**28.2**	8.0
		놀이터	-	**27.4**	10.8	3.6	1.2	**10.7**	9.7
		계획공간 소계	1.7	**37.0**	13.4	6.3	12.2	**38.9**	17.7
비계획적공간	사적 공간	내집/ 상대의 집	15.3	**32.0**	19.5	16.9	**21.5**	16.0	20.8
	반사적 반공적	골목/ 계단복도	**22.9**	5.8	6.3	0.9	18.4	9.5	8.1
	공적 공간	자녀교육 기관주변	-	6.0	18.1	2.4	0.7	0.0	6.5
		주변 상업시설	**28.8**	13.2	**38.9**	**63.5**	**26.6**	13.7	35.2
		종교시설	**24.6**	3.6	2.0	6.5	7.4	**12.2**	6.5
		운동문화 주민센터	6.8	2.4	1.7	3.6	**13.2**	9.5	5.3
		공적공간 소계	**60.2**	25.2	**60.7**	**76.0**	**47.8**	35.5	53.4
	비계획적공간 소계		**98.3**	63.0	**86.6**	**93.7**	**87.8**	61.1	82.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성응답자 401명이 이웃교류 장소에 대해 응답한 유효 응답수 : 2,448

* : 놀이터를 제외한 커뮤니티 공간 및 시설

교류공간의 이용은 이웃관계를 형성하게 된 계기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체적으로 모든 계기에 있어서 계획공간보다는 비계획공간의 이용도가 절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상업시설 등의 공적공간의 이용도가 높았다. 계획공간 중에서는 놀이터의 이용이 9.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계기로 만난 이웃과는 16.7%가 계획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계획공간 중에서도 놀이터의 이용이 12.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적공간의 이용도 22.6%로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이웃과 자주 마주침에 의해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계획공간이 21.7%, 사적공간이 21.9%, 반사적반공적공간이 28.1%로 이용되는 등 교류공간의 이용이 다른 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골고루 이용되고 있었다. 공적공간의 이용도는 28.3%로 다른 계기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조직활동을 통해 관계를 맺은 이웃과는 계획공간의 이용이 37.5%로 다른 계기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미여가활동 및 종교활동을 통해 관계를 맺은 이웃과는 상업시설이나 문화센터, 종교시설 등의 공적공간의 이용이 각각 69.7%, 77.2%로 높게 분석되었다.

<표 29> 이웃관계 형성 계기에 따른 교류장소 (단위: 명, %)

교류공간 \ 계기		자녀	자주 마주침	주민 조직	취미 여가	종교 활동	전체
계획공간		213 (16.7)	129 (21.7)	33 (37.5)	33 (15.6)	16 (7.1)	424 (17.7)
	놀이터	159 (12.5)	56 (9.4)	1 (1.1)	12 (5.7)	8 (3.6)	236 (9.9)
비 계획 공간	사적 공간	288 (22.6)	130 (21.9)	9 (10.2)	28 (13.3)	34 (15.2)	489 (20.4)
	반사적 반공적	19 (1.5)	167 (28.1)	6 (6.8)	3 (1.4)	1 (0.4)	196 (8.2)
	공적 공간	755 (59.2)	168 (28.3)	40 (45.5)	147 (69.7)	173 (77.2)	1,283 (53.6)
전체		1,275 (100.0)	594 (100.0)	88 (100.0)	211 (100.0)	224 (100.0)	2,392 (100.0)

Pearson X^2 = 555.550 P=0.000

이웃교류 장소 및 이웃관계 형성에 대해 응답한 유효 응답수 = 2,392

2) 교류공간 선호의 이유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이웃교류에 있어서 이용되는 장소에 대한 결과

는 개별면담조사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교류공간 선호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신체적, 정서적 발달이 미숙한 자녀가 있는 자녀양육기 응답자들은 주로 비계획공간인 사적공간과 놀이터와 같은 계획공간을 선호하고 있다. 이들은 자녀가 또래 아이들과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자녀를 동반한 교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발달이 미숙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는 자택이나 상대방의 주택에서 교류하며, 어린 자녀를 동반하고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주택과 물리적인 동선이 길지 않은 도보권 내의 주거지 내 놀이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 문화센터 및 상업용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 우선 집이 제일 편해요. 솔직히 애들이 있으니까. 집 아니면 놀이터, 문화센터 같은데도 애들이 놀기 좋고요. …(중략)… 첫째처럼 크면 만나는 곳은 상관없는데요. 둘째처럼(15개월) 어린애는 집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는 게 최고죠. 정말 좋죠.
>
> C씨_자녀양육기

>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집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첫째(3세) 또래면 놀이터도 좋고, 그 외 산책하는 곳도 되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둘째(1세)처럼 아주 어린 애들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집에서 각자 돌아가면서 만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중략)… 또래가 비슷한 아이 엄마들이 있어서 같이 문화센터도 다니고요.
>
> D씨_자녀양육기

> 문화센터 모임을 1년 정도 같이 했어요. 거기서 만난 엄마들하고 지금까지도 가끔 놀이터에서 만나고요. …(중략)… 일단은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요. 유모차에 태워서 근처에 놀러가기도 아직은 힘들잖아요. 근데 놀이터 가거나 집에서 만나면 동선이 짧으니까 더 긴 시간을 함께 보낼 수도 있고, 편하잖아요. 제 앞마당이니까 편하죠.
>
> E씨_자녀양육기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자녀의 교육,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등에 관한 정보교류가 이웃관계 형성의 주요한 이유가 된다. 이 시기에는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교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

류 형태는 주로 정보교류를 위한 대화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불어 이웃하는 아파트 단지나 주택지 블록에 거주하는 이웃들과 손쉽게 만나기 위해, 주거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기 보다는 주로 주거지 인근의 카페, 음식점 등의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 만나면 주로 상가의 음식점에서 같이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는 정도죠. 그리고 만나서 주로 하는 얘기는 애 학교생활 얘기도 하고요. …(중략)… 결국에는 애들 교육 관련해서 정보교류도 하고, 정서적 교류도 갖는 거죠. …(중략)… 상가의 경우는 접근성이 좋으니까 굳이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지 않아도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서로가 편하게 만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공간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
> F씨_자녀초등기

> 집 또는 상가 정도죠.…(중략)…수다죠.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를 떠는거죠. 거의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이, 학교,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죠.
>
> G씨_자녀초등기

> 가장 큰 이유는 저도 그렇지만 다들 주부라 식사와 식사시간 사이에 주로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밥 먹는 것보다 비용도 저렴하고요. 다들 시간여유가 아주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하니까 가능하면 집 근처에서 보게 되는데 대충 중간쯤에서 만나요. 단지 상가에 있는 커피숍이나 주변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죠.
>
> H씨_자녀중고등기

자녀가 출가 또는 분가한 자녀진수기 응답자들은 주로 주거지 내의 경로당, 공원 등의 계획공간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 주민의 이동 동선 상에 위치한 평상을 주요한 교류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이 시기의 응답자들은 주로 주거지에서 가까운 계획공간을 이용하며, 담소를 나누거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주로 그 집이나 우리 집에서 만나고요. 주변에 있는 가게에서도 만

나고요. 집은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이런 가게(카페)가 있으면 가깝게 있으면 보죠. 공원도 괜찮고요. …(중략)… 멀리 나가면 따로 시간을 내야하고, 또 외출을 하게 되면, 화장도 해야 하고 옷도 차려입어야 되고, 기타 등등 해야될 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편한대로 자기 생활에서 침해받지 않고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편해서요.

J씨_자녀성년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평상이지. 필요하다고 생각한 공간은 없어. 나는 지금 평상으로도 충분해. 비가와도 많이만 안오면 다들 평상에서 놀아.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노인정으로 들어가. 노인정 나가고 평상 나가기 전에 □□(영유아 외손자)이가 있을 때는 우리 집으로 다 모였어.

K씨_자녀진수기

공원에서 만나지. …(중략)… 난 남의 집에 들어가고 이러는거 싫어. 이렇게 공원에 나와 앉아서 얘기하는 게 좋지 …(중략)… 좋지. 서울시내에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에 있어. 공기도 좋고, 앉아서 노는 데도 있고, 가깝고, 공원이 있어서 좋지.

L씨_자녀진수기

교류의 공간 중 놀이터, 경로당, 근린공원 등의 계획공간들은 지역 주민간의 관계 형성에 주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놀이터의 경우는 자녀가 신체적으로 아직 미숙한 생애주기단계에서 선호되고 있으며, 경로당이나 공원 등의 경우는 자녀진수기의 이웃관계 맺음에 있어서 주요한 매개적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먼저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에서 먼저 만난 다음에 첫째를 유치원을 보내게 되었는데, 놀이터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제가 보내고 싶은 유치원의 엄마들하고 다시 친해진거죠.

C씨_자녀양육기

놀이터 같은 곳에서 아이들 데리고 놀다보면 아파트 내에 주변 동에 사는 사람을 알게 되는 경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놀이터에서 (애들을) 데리고 놀다가 (친해진 이웃은) 그냥 몇 명 정도로

좀 규모가 작아요.

F씨_자녀초등기

여기 공원에서 노는 거지 뭐. 여기 있다가 만나서 알게 된 거지. 여기 두 시만 되면 잔뜩 나와.

L씨_자녀진수기

3) 사이버공간의 이용과 이웃교류의 관계

면담대상자 12명 중 자녀진수기 2명을 제외한 10명의 응답자들은 컴퓨터 활용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10명 중 자녀양육기에서 자녀중고등기에 해당 하는 응답자들은 사이버공간에서의 교류를 경험한 후 대면접촉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

<표 30> 면담응답자의 사이버공간 활용과 이웃관계 현황

응답자		컴퓨터 사용여부	주거지 사이버 공동체이용	사이버공간 교류경험*	대면접촉 경험**	선호하는 교류통로 ***
가구 형성기	A	○	X	X	X	-
	B	○	X	X	X	-
자녀 양육기	C	○	X	○	○	대면접촉
	D	○	○	○	○	대면접촉
	E	○	○	○	○	대면접촉
자녀 초등기	F	○	X	X	X	대면접촉
	G	○	○	○	○	대면접촉
자녀중 고등기	H	○	X	X	X	대면접촉
	I	○	X	○	○	모두선호
자녀 성년기	J	X	X	X	X	-
자녀 진수기	K	○	X	X	X	-
	L	X	X	X	X	-

* : 사이버공간에서 교류경험의 유무

** : 사이버공간상에서의 교류가 대면접촉으로 연계된 경험 유무

*** : 주거지에서의 이웃관계 형성시 선호하는 첫 만남의 방식

범례 ○ : 경험 있음, X : 경험 없음

이웃관계는 대면접촉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사이버상에서의 교류를 통해 맺어지기도 한다. 자녀양육기와 자녀초등기, 자녀중고등기의 응답자들은 지역에 대한 다양한 생활정보 및 자녀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사이버공간에서 획득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사이버공동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사이버공간을 통해 이웃과 소통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응답자가 현재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웃 중에는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맺은 경우도 있다.

> (아파트 사이버공동체에서) 엄마들끼리 하는 영어회화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에서 만나서 영어회화하고, 그 이후에는 같이 얘기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어서 거기서 사람들을 알게 되고 친하게 지내게 된 거죠.
>
> D씨_자녀양육기

> 제가 문화센터 모임을 처음에 하게 된 게, 동네에서 ○○라는 엄마는 온라인으로 만났네요. …(중략)… 온라인으로 만나서 둘이 여기 아파트 단지내 공원에서 처음 만나서 문화센터를 간 거예요. …(중략)… 다들 육아를 혼자하는 엄마들이었고, 저도 혼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심심하고, 사실 (그 모임이) 제게는 위로도 되었죠. …(중략)… 애들 친구도 되고 이제는 제 친구가 되었죠.
>
> E씨_자녀양육기

하지만 이들 응답자들은 사이버공간을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교류의 매개공간으로 이용하고는 있으나, 사이버공간에서의 관계형성 보다는 대면접촉을 통해 이웃관계를 맺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사이버공간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접촉으로 만난 이웃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대면접촉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웃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국지적이고 경험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정보를 얻는 사람의 상황에 적절한 맞춤형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 근데 그 온라인상의 교육 관련 정보들은 우리 지역(대상만)은 아니

잖아요. 다른 지역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의 특정 사람들만 공유하는 것(정보)들이 따로 있으니까요.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딱 얻기 위해서는 이웃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C씨_자녀양육기

온라인상에서는 그 분(상대)을 잘 모르잖아요. 제 취향이 아닌 분일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친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더 신뢰가 가고요. 제 취향에 맞춰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서로 알기 때문에 가능하죠. 근데 온라인상에서의 만남은 어쩌면 일방적으로 (정보가) 그 분의 취향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중략)… 그래서 대면적인 만남을 하는 게 훨씬 더 제가 원하는 정보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인거 같아요.

D씨_자녀양육기

우리 동네의 시설이나 서비스에 관해서는 일반 다수의 대중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저를 아는 분들이 권하고 추천해주고 조언해주는 정보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그 분들의 얘기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이 분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저 분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를 그 의견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특성들을 감안을 하면, 저한테 더 적합한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는 데에 좀 더 좋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B씨_가구형성기

(자녀 교육과 관련한) 그런 정보들은 우리 동네 친한 엄마들하고 얘기하면서 얻죠. 우리 애들 또래가 다들 미성숙하니까요. 학교 생활이나 일정을 선생님이 통보해주시면 애들이 놓치는 것도 있고, 학교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건 대부분 친한 엄마들하고 얘기하면 확인하죠. 온라인에서 얻을 수 없잖아요.

F씨_자녀초등기

제 아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거죠. 애 키우면서는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서류상의 정보보다는 암묵적인 정보(드러나지 않는 정보)가 더 중요해서, 그 것을 습득하려면 또래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되죠. …(중략)… (단지 내 주요 논의사항 및 동네 생활정보)그런 것들도 엄마들하고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받아요. 그런 정보가 더 편하게 얻고 더 정확하죠. 보다 더 세밀한 정보죠.

‘그 (학원)선생님한테는 조금 조르면 할인해줘’ 이런 정보는 온라인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병원은 좋긴 좋은데, 꼭 이 시간에 쫓아가야하고’, ‘그 병원 선생 중에는 꼭 이 선생으로 해야 해’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에서는 알려주지 않잖아요.

H씨_자녀중고등기

일부 응답자들은 주거지의 사이버공동체와 오프라인 활동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개인 사생활이 노출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의 과도하게 많은 정보의 분류와 선택에 있어서 많은 시간의 소요 문제와 이로 인해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 및 귀찮음이 대면접촉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너무 말이 많아요. 온라인상에서 알던 사람과 학교에서 아는 사람이 중복이 되다보면 한 다리만 건너면 정말 다 아는 사람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중략)… 저는 온라인상에서는 그게(의견을 올리고 교류하는 것) 좀 편해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닉네임으로 서로 왕래를 한다는 것은 살짝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정보를 주고 받는 정도이지 오프라인상에서 만나는 것은 (부담스럽더라고요). …(중략)… 모두 학교에서 직접 만나서 친해지게 된 거예요. 저는 직접 만나는 것이 훨씬 편해요.

G씨_자녀초등기

잘되면 잘되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만나서 그런지 책임감 없이 하더라고요. 잘되는 곳도 있는데 저랑 그 엄마는 그랬어요. 그 엄마도 답답하고 하니까 (온라인에서 만나서)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기도 했었는데, 잘 안되었나봐요. …(중략)… 그렇게 만나면 괜히 얼굴만 이상하게 알고 좀 서로 이상해질 수 있겠다. (동네에서) 마주치게 되면 인사는 하게 되는데 서로 얼굴만 알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마주치게 되면 불편하죠.

E씨_자녀양육기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정보서핑) 귀찮기도 하고요. 서핑해서 얻은 그 많은 개개인의 의견들을 다 비교해서 보는 게 좀 귀찮고 해서, 그러기 보다는 바이어스가 있을망정 제가 잘 아는 분에게 (물어

보는 게 좋아요.)

B씨_가구양육기

그런 데(온라인 공동체_카페) 들어가다 보면 많은 글들에 신경을 쓰게 되고요, 제가 사실은 일을 해서 바쁘기도 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알게 되면 더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아서요. (카페에) 가면 뭐 많은 얘기들을 알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 얘기를 아는 것 자체가 제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활동을 안해요). …(중략)… (동네 생활편의시설) 정보를 서치하는 것도 귀찮고, …(후략).

F씨_자녀초등기

자녀양육기 응답자들에게 사이버공간에서 이웃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 하는 데에는 '자녀'라는 공통분모가 필수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공간에서 교류하더라도 대면접촉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보육시설 및 문화센터, 또래 자녀들 간의 공통점이나 부모의 관심 및 성향에 따라 관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이버공간은 이웃과 접촉하는 데에 용이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각적 마주침을 통해서 접촉하지 않더라도 이웃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대면접촉으로 관계가 진전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주거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공동체는 주거지에서의 이웃관계 형성에 있어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거(온라인상에서 이웃관계 맺기)는 둘째 때문에 몇 번 만나봤는데요. 그렇게 많이 친해지지는 못했어요. …(중략)… 근데 결국은 공통의 관심사가 다르니까, 친해지기가 좀 (어렵고), 자주는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그래서 (온라인은 이웃관계를 맺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C씨_자녀양육기

아무래도 아이 어린이집 엄마들이랑 아이 또래 비슷한 분들과 만나야 친분관계가 더 오래 지속이 되는 거 같아요.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분들도 처음에 몇 번은 모임도 나가고 번개 같은 것도 하니까 나가서

가끔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아이 또래가 비슷해야지 그 친분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자주 만나게 되는 거 같아요.

D씨_자녀양육기

(사이버상에서) 그 때 만났던 엄마들이 다 첫애들 엄마였어요. 애들 4개월 때 베이비 요가 하면서 처음 만났으니까. …(중략)… 문화센터 끝나고 밥 먹고 (유모차에) 애들 재우고, 거기서 차마시고요. 그 시간들이 제게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죠. …(중략)… 지금도 그 엄마들하고는 만나요.

E씨_자녀양육기

주거지의 생활정보를 획득하는 통로는 이웃이 있는 부류와 없는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웃과 교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술하였듯이 사이버공간상의 객관적 정보와 함께 이웃의 경험적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반면 이웃이 없는 경우에는 주로 사이버공간상에서 정보를 얻거나 주거지 내에 비치되어 있는 정보지를 통해 획득하고 있었다.

그런 정보(생활편의시설 정보)는 주변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찾아요. …(중략)…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제가 아파트 동네 사람이다 해서 편하게 묻고 싶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웃에게서 그러한 정보를)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략)… 누군가 교류를 통해서 얻는 정보가 아니라 그냥 사실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보통 검색하는 편이고요. …(중략)… 그것(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에 대해 신뢰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직접 한번 이용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 때 안가는 경우기 때문에요.

A_가구형성기

제 3 절 소 결

설문응답자가 교류하고 있는 이웃의 거주지 분포를 분석한 결과, 가구

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생애주기단계 여성의 경우 그 외 생애주기단계의 여성에 비해 자녀를 계기로 단지 및 동네 밖 주민과의 교류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를 계기로 한 이웃관계에 있어서는 이웃 거주지와의 거리는 이웃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녀를 계기로 한 이웃관계가 많은 것을 고려한다면, 단지 및 동네 밖의 이웃과 교류하는 경우에는 자녀를 계기로 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특별한 계기 없이 주거지에서 자주 마주침에 의해 이웃관계를 주로 형성하는 경우에는 단지 및 동네 내부의 주민과의 교류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거주지와의 거리는 이웃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자녀를 통해 이웃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수준의 거리를 가까운 거리로써 이웃과 교류하는 데에 무리가 없는 공간적 범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특별한 계기 없이 자주 마주침에 의해 이웃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주로 자신의 주택에서 가까운 단지 및 동네 수준의 공간적 범위를 가까운 공간적 수준으로 보았다.

가구형성기와 자녀진수기 여성은 주로 특별한 계기 없이 주거지에서 자주 마주침에 의해 이웃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주택에서 가까운 이웃과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생애주기단계에 비해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가 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형성기에 속하는 여성은 반사적 반공적 공간인 골목이나 계단 및 엘리베이터에서 주로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진수기의 경우에는 주로 가까운 이웃과 놀이터나 경로당, 공원 등의 계획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기 여성은 어린 자녀를 계기로 또래 부모와의 교류로 인해 단지 및 동네 밖의 이웃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며, 자주 마주침을 통해 단지 및 동네 주민과의 교류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웃과의 교류는 사적공간과 주거지 인근의 놀이터와 같은 계획공간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발달이 아직 미숙한 영유아기 자녀의 경우 부모에게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까운 도보권 내의 교류장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초등기 여성의 경우에는 교류하는 이웃 중 43.5%가 단지 및 동네 밖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로 초등학교 통학구역 수준의 공간적 범위에서 이웃과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단지 밖의 상업시설

등의 비계획공간을 이용하는데, 이는 단지 및 동네 밖의 이웃과 가까이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중고등기인 경우에는 주로 자녀를 계기로 이웃과 교류하지만, 취미여가 및 종교활동을 통해 관계를 맺은 이웃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여성들이 관계를 맺는 이웃의 공간적 범위는 대체적으로 단지 및 동네에 한해 분포하고 있으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외부주거지 주민과의 관계도 증가한다. 이웃과의 교류는 주로 상업시설 등의 공적공간이 이용되고 있다.

자녀성년기에 속하는 여성은 취미여가와 종교활동 등을 통해 형성된 이웃관계가 늘어나며, 이들 계기에 의해 단지 및 동네 밖에 거주하는 이웃의 비중이 높다. 이는 종교시설 및 운동·문화·주민센터 등이 광범위한 이웃관계 형성에 주요한 매개시설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주거지에서 특별한 계기 없이 자주 마주치면서 형성된 이웃관계의 증가로 근거리의 이웃관계가 확대되기 시작하고, 사적공간에서의 만남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개별면담결과 대부분의 피면접자들은 이웃의 거주지 즉, 이웃교류의 공간적 범위를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 동네의 범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이웃관계의 범위의 차이는 동네에 대한 공간적 범위의 인식차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가구형성기와 자녀진수기의 이웃교류의 범위는 단지 및 동네 수준으로 이들 생애주기 단계의 '우리 동네'에 대한 인식은 아파트 단지 및 주택지 블록 수준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령기 자녀가 있는 여성의 이웃교류의 범위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동네의 범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수준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이웃관계는 주거지에서 대면접촉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의 교류를 통해 형성되기도 한다. 가구형성기와 자녀성년기 이후를 제외한 생애주기단계의 여성들은 사이버공간에서의 교류를 경험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면접촉으로 관계가 진전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면접자들은 사이버공간 상에서의 교류에 대해 신뢰의 문제, 주거지역에서의 온-오프라인을 통한 활동으로 인한 사생활의 과도한 노출, 많은 정보의 분류와 선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면접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은 이웃과

접촉하는 데에 편리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공동체는 주거지에서의 이웃관계 형성에 있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4, 5장에 걸쳐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이웃관계의 계기와 목적, 교류의 공간적 범위, 교류장소 등에 관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31> 생애주기단계별 이웃관계의 특성

구 분	가구 형성기	자녀 양육기	자녀 초등기	자녀 중고등기	자녀 성년기	자녀 진수기
필요성에 대한인식	X	O	O	O	O	O
계기	마주침	자녀			마주침	
교류목적 및 기능	-	기능적/실용적 (자녀 양육, 교육 정보획득)			정서적 기능	
교류범위	단지동네 (인접주택)	단지동네 (내/외부)	단지/동네 밖 (초등학교 통학범위)		단지동네	단지동네 (인접주택)
교류공간	비계획	계획	비계획			계획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결과

오늘날의 교통과 통신기술의 혁신은 네트워크 사회로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지역공동체는 탈공간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거공간에서의 공동체는 해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의 시범마을 사업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의한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마을만들기 사업 등의 정책들이 지역활성화 전략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이들 정책들은 주민주도로 마을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주거지 공간을 매개로한 관계로써 이웃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도시민에게 주거지 공간을 기반으로 한 이웃관계가 다른 사회관계에 비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또한 주거지에서의 이웃관계의 계기 및 공간적 범위, 교류공간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관계를 맺는 이웃에만 주로 초점을 두고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웃관계를 고정된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 및 교류공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특정 주택유형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거나 제한된 주거지 공간에서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를 분석하였다. 때문에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이웃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이웃관계 형성의 계기, 공간적 범위, 교류공간에 대한 연구결과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웃관계를 포함한 모든 사회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요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웃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실체로써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 교육, 독립 등의 변화를 고려한 생애주기단계를 중심으로 개인이 맺게 되는 이웃, 친구 동료 등의 비혈연 사회관계 대비 이웃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주거공간을 기반으로 한 이웃관계가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웃관계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웃관계를 확대시키는 변인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이웃관계의 계기와 공간적 범위, 교류공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이웃관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응답자들의 사회관계 중 이웃관계의 비중은 38.3%로 친구 및 동료관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유형의 사회관계에 비해 이웃관계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있게 인식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웃관계가 모든 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특히 여성의 이웃관계 중요도는 42.2%로 남성의 23.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간기반의 이웃관계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더욱 중요한 사회관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관계는 친구와 동료관계보다 이웃관계가 더 많으며, 이는 남성에 비해 주거지 중심적인 사회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웃관계가 모든 여성에게 같은 수준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이웃관계에 대한 중요도는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웃관계의 중요도는 가구형성기과 자녀양육기, 자녀초등기 이후의 생애주기단계로 구분되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형성기에는 이웃관계의 중요성이 가장 낮은 시기이며, 자녀의 출생 이후 모든 생애주기단계에서 주거지 공간을 기반으로 한 이웃관계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맏자녀의 활동기반이 가정에서 학교로 전환되는 자녀초등기에는 사회관계 대비 이웃관계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자녀진수기의 이웃관계는 다른 생애주기단계에 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간의 중요성이 사라진 신유목사회와 네트워크 사회를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주거공간을 근거로 한 이웃관계가 친구와 동료 등의 사회관계에 비해 중요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이웃관계의 계기와 계기별 교류의 기능은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웃관계 형성의 가장 주요한 계기로써 자녀와 자주 마주침, 주민조직활동 등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이웃관계를 포함한 모든 사회관계는 변화하며 각 시기의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이웃교류 행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의하면 이웃관

계는 '자녀'와 특별한 계기 없이 주거지에서 '자주 마주침'에 의해서 주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출생 이후부터인 자녀양유기부터는 '자녀'를 계기로 주거지에서 이웃관계가 확대되며, 부모와 자녀간 상호의존도가 약화되는 자녀성년기부터는 주거지에서 '자주 마주침'에 의해 이웃관계가 증가하여 자녀진수기에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자녀중고등기부터 자녀성년기까지는 자녀 및 자주 마주침 외에 취미여가 및 종교활동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한 이웃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를 계기로 만나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한 정보의 획득, 자녀의 사회관계 형성, 자녀 양육을 위한 도움 등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웃관계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이웃관계는 기능적이며 실용적인 교류를 위해 이웃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거지에서 '자주 마주침'에 의해 형성된 이웃으로부터는 주로 정서적 지지를 충족하기 때문에 자녀성년 이후의 여성에게는 정서적 유대를 목적으로 한 이웃관계가 중요하게 인식된다.

셋째, 이웃과 교류하는 공간적 범위 또한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도시민이 교류하고 있는 이웃 중 32%는 단지 및 동네 밖의 주민이며,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생애주기단계 여성의 경우에는 그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반면 가구형성기와 자녀성년기 이후의 여성들은 단지 및 동네 내부 주민과의 교류비중이 높았다.

이웃관계의 형성계기 중 '자녀'를 계기로 형성된 이웃관계는 단지 및 동네 밖 이웃과의 교류비중이 높다. 특히 자녀초등기 여성의 경우에 단지 및 동네 밖의 이웃교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녀'를 계기로 초등학교 통학구역 수준의 이웃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를 계기로 한 이웃관계의 범위는 단지 및 동네 밖의 원거리에 점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간적 거리는 이웃관계 형성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주거지에서 '자주 마주침'에 의해 형성된 이웃관계는 주로 단지 및 동네 안의 주민들과 교류하여,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가 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이웃관계 분포는 가구형성기와 자녀성년기 이후의 여성에게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어린 '자녀'를 계기로 형성되었거나 주거지에서 '자주 마주침'에

의해 형성된 이웃과는 주로 놀이터와 경로당 등의 계획공간의 이용이 높았다. 계획공간은 주로 어린 자녀가 있는 자녀양육기 여성이나 자녀진수기 여성에 의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두 생애주기단계의 특성상 주택과 도보권에 있는 공간이 선호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자녀초등기와 자녀중고등기, 자녀성년기, 가구형성기의 여성들은 주로 비계획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카페 또는 음식점 등의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웃과의 교류는 공동체 교류와 유대감 형성을 위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및 시설보다 교류가 의도되지 않은 비계획적 공간 중 공적공간에서 더욱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이웃관계가 광범위하게 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커뮤니티 시설 등의 부족 및 불만족으로 인해 주거지 인근의 음식점이나 카페 등 공적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들은 지역활성화 전략으로써 마을 또는 주거지라는 공간을 매개로한 이웃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증진하고자 한다. 하지만 주거지에서의 이웃관계는 주민 모두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이웃관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중요하며, 여성 중에서도 자녀초등기 이후부터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마을 또는 주거지에서의 공동체 활성화 정책들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중요성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며, 성별과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 등 다양한 주거공동체 활성화 정책에서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

이 필요하다. 즉, 주거지 공간을 기반으로 한 이웃관계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이웃관계를 맺게 되는 계기 및 필요를 고려하여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경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좀 더 기능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생애주기단계 중 자녀양육기와 자녀진수기 여성의 이웃관계의 범위는 주로 단지 및 동네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웃교류공간으로써 도보권내의 계획공간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도보권 내의 주거지에 커뮤니티 시설 및 공간을 공급하는 도시계획적 접근방식이 이들 생애주기단계에게는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반면, 자녀초등기부터 자녀중고등기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웃관계의 공간적 범위가 단지 및 동네를 벗어나 초등학교 통학구역 수준의 외부 지향적이며, 이웃교류의 장소 중 비계획적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계획적 관점에서 제공되는 커뮤니티시설 등의 물리적인 계획공간은 이들 생애주기단계의 이웃관계를 제고시키는 데에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생애주기단계의 이웃관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의 공급에 치중하기 보다는 자녀와 취미여가활동 등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웃관계 형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의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등의 정책에 있어서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이웃관계 형성의 계기 및 공간적 범위, 교류공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물리적 커뮤니티 시설 및 공간의 공급 등의 하드웨어적 접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급 등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놀이터와 경로당, 공원 등의 계획공간은 자녀양육기와 자녀진수기 여성들이 단지 및 동네에서 이웃과 교류를 하는 데에 주요한 장소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공간들은 도시민이 주거지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시설로써 도보권의 기초생활권 내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시설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기성시가지에 대한 이들 시설의 공급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도시생활에서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간에 관한 요구로써 시빌미니멈

(Civil minimum)에 대한 공급기준설정이 필요하다.

넷째, 가구형성기와 자녀진수기 여성의 경우 주로 단지 및 동네 내부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계기 없이 자주 마주침에 의해 이웃관계를 형성하는 비중이 높게 분석되었다. 계획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우연한 만남을 통해 접촉의 기회를 늘리고 이웃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주거지에서의 공동체 활성화의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향후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로의 전환은 가구형성기와 자녀진수기에 속하는 생애주기단계의 비중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의 이웃관계 형성을 독려하기 위한 주거공간에 대한 계획에서는 단지 및 동네 내부에서 우연하고 잦은 시각적 접촉을 유발하여 상호작용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들의 생활동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로 반사적 반공적 공간에서 이웃교류를 하는 가구형성기를 고려하여 골목, 복도, 엘리베이터 등 자신의 주택으로 출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간을 공유하는 주민들과의 접촉의 기회를 늘려주는 주거환경계획이 요구된다. 또한 자녀진수기의 이웃교류를 독려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이웃과의 우연한 만남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도보권의 커뮤니티 공간의 공급과 배치가 필요하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선 친분이 있는 사회관계를 조사하면서 '친분관계'를 조작적으로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 '친하다고 여겨지는' 관계로 정의하였다. '친하다'는 친분의 정도에는 개인차가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관계에 대한 응답에 편의가 생길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이웃관계의 형성과 이웃의 의미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사이버 커뮤니티 공간의 확대로 인한 지역 공동체 활동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이웃관계를 중심으로 여성의 이웃관계의 중요도와 관계의 공간적 범위, 교류공간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도시민의 이웃관계는 남성의 은퇴여부나 생애주기단계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시민의 이웃관계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이웃관계 자료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대기(2004),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서울: 아카넷.

_____ · 홍동식(1982), “대도시의 주거환경과 근린관계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16: 123-140.

강성희 · 김주희(1996), “도시 기혼 남녀의 사회적 관계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 159-187.

강순주 · 김진영 · 함선익(2012), “공동주택 커뮤니티 관련 연구들의 시대적 경향 분석과 사회적 배경 요인들과의 관계”, 23(4): 19-31.

강영민 · 강건희(1998), “외부공간의 영역성과 근린교제를 중심으로 한 저층집합주거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8(2): 39-44.

강혜경(2001), 아파트단지의 커뮤니티 디자인을 위한 공동생활공간의 계획방향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영복 편(2000), 「사회학사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김건형(2010), 아파트 거주자가 인식하는 우리동네와 근린생활권: 잠실 재개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계수(2006), 「성공적인 논문작성을 위한 AMOS/Lisrel 이용 인과분석 연구방법론」, 서울: 청람.

김광복 · 남 진(2005), “주택재개발아파트의 단지배치특성에 따른 임대주택거주자의 커뮤니티의식 분석”, 「국토계획」, 40(7): 73-86.

김기호 외(2012), 「우리, 마을 만들기: 12인의 전문가가 국내사례를 통해 살펴본 마을만들기의 현황과 전망! 우리 마을만들기 어떻게 해야 할까?」, 고양: 나무도시.

김대욱 · 정응호 · 류지원(2005), “공동주택단지 근린시설 배치유형별 커뮤니티의식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6(6): 39-46.

김동우(1985), 대단위 아파트지역의 이웃관계에 관한 연구: 현대 · 한양 · 잠실 · 반포 및 암사동 시영아파트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련(1989), 주택유형에 따른 주민특성과 근린활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신수동일대의 주부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이준수 · 이경희 · 전동수 · 황상윤(2013), 「서울 마을공동체 사업 활용설명서-서울에서 함께 마을하기-」, 서울특별시.

김인희・장남종(2007),「주거환경정비사업의 근린생활권계획 운용실태와 활성화 방안」, 시정개발연구원.
김일석・곽현근(2007) “동네주민조직 유형별 사회적 자본 분포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4): 151-178.
김재윤(2003), 거주자 생활영역 인식조사를 통한 근린생활권에 관한 연구: 분당 신도시를 사례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선・박순진(1999), “근린관계와 지역공동체”,「집합주거와 사회환경:소형 아파트단지 과밀의 사회적 함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총서4, 서울대학교출판부. 37-65.
김정오(1999), 한국 도시사회의 공동체적 관계망과 유대: 부산의 중하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종재(1993), 도시민의 정주・커뮤니티 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은(2012), 아파트단지 물리적 폐쇄성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주택가격과 근린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은・최막중(2012), “아파트 단지의 폐쇄성과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한국주거학회논문집」, 23(5): 103-111.
김진아(2013),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본 마을만들기 사례 비교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진(2010), 커뮤니티의 상호활동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중소도시 군산, 마산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노정민(2013), 주거지 재생사업에서 일상활동과 계획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대한민국정부(1992),「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_____(2000),「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_____(2005),「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_____(2011),「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대한주택공사(2002),「주택도시 40년」, 성남:대한주택공사.
더글라스 포티어스(1989),「환경과 행태: 계획 및 일상적인 도시생활」, 송보영 외 공역, 서울: 명보문화사, 원저 Porteous, J. D.(1977), *Environment & Behavior: Planning and everyday urban life*,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ampany.
도시재생사업단(2011),「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 이야기」.
두리공간환경연구소(주)(2011),「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사업의 성과와

과제」,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사업단 기획.
러셀 뉴먼(1995), 「뉴미디어와 사회변동」, 전석호 역, 서울: 나남출판, 원저 Neuman, W. Russell, *The Future of Mass Audience*.
마뉴엘 카스텔(2004), 「인터넷 갤럭시: 인터넷, 비즈니스, 사회적 성찰」, 박행웅 역, 파주: 한울, 원저 Castells, Manuel Ed.(2001), *Internet Galaxy: Reflections on the Internet*, Business,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엮음(2009), 「네트워크 사회: 비교문화 관점」, 박행웅 역, 파주: 한울, 원저 Castells, Manuel Ed.(2004),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heltenham: Edward Elgar Pub.
박경숙(2000),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정도", 「한국사회학」, 34(F): 621-647.
박광재(1998), 집합주거단지의 공간질서와 계획기법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미혜(2009), 가족생활주기별 소비배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성복(2006), "오프라인 모임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 애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6(3): 179-203.
배성지(1997), 아파트 외부공간의 구성이 근린교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란(2012), "단독가구 노인의 구조적 사회관계망 유형과 관계의 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학회지」, 21(5): 929-945.
박영애 · 원효종(2003),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자녀에 대한 기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2(5): 1-23.
박현정(2006), 공용주택 공용공간 이용행태 및 만족도 조사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인길 · 양승우(1998), "공동주택유형별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3(2): 135-147.
변미리(2011),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DI정책리포트」, 103.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1995),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
손세관(1986), "사회적 장소의 구성패턴과 서민주거단지계획의 기본방향", 「국토계획」, 21(3): 151-169.
_____(1988),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한 주거단지계획기법에 관한 연구」, 토지개발공사.

손세욱・최찬환(1991), “집합주거에 있어서 근린관계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인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4): 81-90.

_____(1992), “집합주거에 있어서 근린영역과 근린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5): 103-113.

_____(1996), “집합주거단지에서 중심과 경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9): 163-172.

송명규(2009), “단지 유형별 아파트 거주자들의 커뮤니티시설 이용 및 수요도에 관한 연구: 용인동백지구를 사례로”, 「부동산학연구」, 15(2): 167-183.

슈미트 외(1992), 「정치적 낭만/공동사회와 이익사회」, 배성동 외 공역, 서울: 삼성출판사, 원저 Schmitt, C., *Politicshe Romantik*, 3rd ed, Tonnies, F., *Gemeinshaft und Gesellschaft*.

신연섭・연태경(2006), “가족생활주기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거주자 요구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6): 57-64.

신용재・김종인(1989), “아파트 주부의 이웃관계: 생활주기에 의한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1): 15-20.

신용하(편)(1985), 「공동체 이론」, 서울:문학과지성사.

신화경・조인숙(201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시설 관련 법적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3(2): 47-57.

신혜진・한인영(2011), “초등학교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적 관여에 미치는 영향: 부모 사회관계망의 매개효과 검증”, 「초등교육연구」, 24(3): 349-374.

앤서니 기든스(2003), 「현대사회학」(제4판), 김미숙 외 6인 공역, 서울: 을유문화사, 원저 Anthony Giddens(2001), Sociology, 4th edition, Blackwell Publishers Ltd.

엄인숙(2008),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중년과 노년을 중심으로,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선주(1992), “사회계층별로 본 가족의 주요 사회망과 가족의 참여 및 구직과 사회망”, 「대한가정학회지」, 30(3): 177-191.

오영은・이정화(2012), “사회적관계망 크기와 지역사회공동체의식이 단독가구 농촌노인의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독거노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555-580.

오혜경・전혜연(2004), “장애아동 부양가족의 양육부담 및 가족지원욕구”, 「가족복지학」, 9(1), 79-100.

우　용(1995), 아파트 단지 주민의 공동체의식 형성에 관한 주민관계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제무(2008), 「마음으로 읽는 도시, 삶의 공간을 가꾸는 도시계획」, 파주: 조경.
원태연 · 정성원(2010), 「SPSS PASW statistics 18.0」, 서울: 한나래출판사.
원효종(1997), 도시 핵가족 주부의 사회관계망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원효종 · 옥선화(2002), "가족의 사회관계망 유형화 연구: 도시 핵가족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49-164.
유숙자 · 양 수 · 윤재연(2000), "중년여성의 우울정도와 사회적지지 및 성역할 장애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9(4): 619-629.
유영주(1984), "한국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11-129.
_____ · 김순옥 · 김경신(2013), 「가족관계학」, 파주: 교문사.
윤복자 · 이경희 · 이수진(1989), "근린생활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거주자의 사회적 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4): 47-61.
이경환(2009), "근린의 보행 환경이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12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7): 203-210.
이경희(198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라영(2009),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체의식과 외부 공간구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아 · 변필성 · 류승한 · 최병남(2008), 「시민참여형 도시정비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방안」, 국토연구원.
이윤주(2010), 취업 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사회자본 특성과 양육스트레스,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해 · 유계숙(1999),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사회관계망,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생활과학논집」, 13: 95-107.
이삼수(2006), "도시패러다임 변화의 의의", 「도시정보」, 295: 2-12.
이상준(1996), "집합주거단지에 있어서 공유영역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31(5): 171-185.
이수용 · 오세규 · 문출성(2011), "공동주거단지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거주자의 근린의식 특성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2(2): 53-61.
이원영(2011), 국민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체시설 현황 및 발전방안,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희(2012), 도시 주거지역 커뮤니티 빌딩 모델 개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이진원(1996), “크래런스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 분석: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5): 99-109.
이철수(2009), 「사회복지학 사전」, 블루피쉬.
이희연・노승철(2012), 「고급통계분석론-이론과 실습」, 파주: 법문사.
임석회・이철우・전형수(2003), “아파트 주거공간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3): 314-328.
전상인(2009), 「아파트에 미치다: 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 서울: 이숲.
_____(2010), “우리 시대 도시담론 비판: 동네의 소멸과 감옥도시에의 전조”,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2(3): 21-34.
전혜정・장덕민(2003), “여성노인의 비공식적 지원제공과 정신 및 신체건강: 심리적 매개과정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2: 151-173.
_____(2004), “미국노인의 사회적 지원제공과 정신건강: 종단적 자료분석”, 「한국노년학」, 24(1): 89-105.
정순둘(2004), “저소득 노인의 사회적 지원망 특성: 연결고리의 분석을 통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24: 7-29.
정창수・문용갑(1990), “대도시 주민들의 이웃관계와 그 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 서울의 8개 주거지역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학」, 23: 171-189.
정재은(2007), 아파트 주거공동체를 통해서 본 상층계급의 사회자본 축적과정: 방배동 L아파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니퍼 메이슨(2010), 「질적 연구방법론」, 김두섭 역, 파주: 나남, 원저 Jennifer Mason(2002), Qualitative Researching 2nd, Sage Publications.
제인 제이콥스(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유강은 역, 서울: 그린비, 원저 Jacobs, J.(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조명래・김수현・강현수 외(2011),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더 좋은 도시, 더 행복한 시민」, 파주: 한울.
조상현(2004), 아파트단지 외부 공공공간에 대한 접근성과 근린의식 형성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성희・강혜경(2002),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생활공간 구성을 위한 거주자 사용행태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3(3): 103-113.
존스톤・그레고리・스미스 엮음(1992), 「현대 인문지리학사전」, 한국지리연구회 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원저 Johnston, Ronald J., Gregory, D. and Smith, David M.(eds),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2nd ed. Blackwell, Oxford.

진미윤・이유미・김혜란(2001), “아파트 거주자의 근린의식과 근린관계에 대한 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9): 75-82.

질 발렌타인(2009), 「사회지리학」, 박경환 역, 서울:논형, 원저 Valentine G.(2001), *Social Geographies: Space and Society*, Harlow: Prentice Hall.

천현숙(2001),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거주자 특성과 커뮤니티 특성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9(1): 143-172.

_____(2002), 아파트 주거문화의 특성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아파트 주거의 확산 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2004), “대도시 아파트 주거단지의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38(4): 215-247.

최막중・김지은(2012), “아파트단지의 물리적 폐쇄성과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3(5): 103-111.

최병두(2003), “공동체 이론의 전개과정과 도시공동체 운동”, 「도시공동체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57-80.

최 열・유숙향(2005), “대도시 주변 소도읍의 근린범위 인식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0(7).

_____・공윤경(2007), “공동주택 단지설계요소 및 거주자특성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5): 83-90.

최옥채・박미은・서미경・전석균(200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파주: 양서원.

최용민・이상주(2003), “사회적 지원망이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2: 193-217.

최재석(1983), "아파트지역의 주민구성과 근린관계: 서울 중류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시문제」, 18(10): 37-51.

폴 녹스・스티븐 핀치(2012), 「도시사회지리학의 이해」, 박경환 외3인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Knox, P. and Pinch, S.(2009), *Urban Social Geography: An Introduction*, 6th Edition, Harlow, England: Prentice Hall.

표영희(1997), 기혼여성의 가족생활주기와 여가활동과 여가제약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피터 홀(2005), 「내일의 도시: 20세기 도시계획 지성사」, 임창호 외 공역, 파주: 한울 아카데미, 원저 Hall, Peter Geoffrey., *Cities of Tomorrow: An Intellectual History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in the Twentieth Century*.

홍성구(2009), “온라인 커뮤니티를 매개로 한 아파트 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9(1): 227-268.

Abrahamson, M.(1976), *Urban sociology*,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Aldous, J.(1978), *Family Careers: Developmental Change in Families,* New York: John Wiley & Sons.

Arnold, M.(2003), "Intranets, Community, and Social Capita: The Case of Williams Bay", *Bulletin of Science Technology* & Society, 23(78): 78-87.

Athanasiou, R. and Yoshioka, Gary A.(1973), "The Spatial Character of Friendship Formation", *Environment and Behavior*, 5(1):43-65.

Bell, W. and Boat, Marion D.(1957), "Urban Neighborhood and Informal Social Rel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2(4): 391-398.

Bergel, Egon E.(1975), *Urban Sociology*, New YorkL Mcgrow Hill.

Bertrand, Alvin L. Ed.(1958), *Rural Sociology: An Analysis of Contemporary Rural Life*, New York: McGraw-Hill.

Bimber, B.(1998), "The Internet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Populism, Community, and Accelerated Pluralism", *Polity*, 31(1): 133-160.

Caplow, T. and Forman, R.(1950), "Neighborhood Interaction in a Homogeneous Community",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5(3): 357-366.

Cater, J. and Jones, T.(1989), *Social Geography: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Issues*, London: Edward Arnold.

Chaskin, Robert J.(1997), "Perspectives on Neighborhood and Community: A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Service Review*, 71(4): 521-547.

Chatters, Linda M., Robert Joseph T., Harold W. Neighbor(1989) Size of Informal Helper Network Mobilizes during a Serious Personal Problem among Black America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667-676.

Cohen, S. and Hoberman, Harry 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ggers of Life Changs Stress", *Social Psychology*, 13(2): 99-125.

Duvall, Evelyn Ruth Millis(1957) *Family Development*, New York: J. B.

Lippincott.

_____(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Philadelphia: Lippincott.

Ell, K.(1984),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A Review", *Social Service Review*, 58(1): 133-149.

Etzioni, A. and Etzioni, O.(1999), "Face-to-Face and Computer-Mediated Communities, A Comparative Analysis", *The Information Society*, 15: 241-248.

Fernback, J.(2007), "Beyond the Diluted Community Concept: A Symbolic Interactionist Perspective on Online Social Relations", *New Media Society*, 9(1): 49-69.

Fiori, Katherine L., Toni C. and Cortinam Kai S(2006), "Social Network Topologies and Mental Health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61B(1): 25-32.

Fischer, J. L., Sollie, D. L., Sorell, G. T. and Green, S. K.(1989), "Marital Status and Career Stage Influences on Social Networks of Young Adults", *Journal of Narriage and the Family*, 51(2): 521-534.

Fellin, P. and Litwak, E.(1963), "Neighborhood Cohesion under Conditions of Mobi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8(3): 364-376.

Gans, Herbert J.(1961), "Planning and Social Life: Friendship and Neighbor Relations in Suburban Communities",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27(2): 134-140.

_____(1962), *The Urban Villagers: group and class in the life of Italian-Americans*, New York: Free Press.

_____(1967), *The Levittowners: Ways of Life and Politics in a New Suburban Community*, New York: Vintage Books.

Giles Lynne C., Glonek Gary FV, Luszcz Mary A. and Andrews Gary R.(2007), "Effect of Social Networks on 10 year Survial in very old Australians: the Australi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9(7): 574-579.

Gotved, S.(2002), "Spatial Dimensions in Online Communities", *Space and Culture*. 5(4): 405-414.

Guterman, Stanley S.(1969), "In Defense of Wirth's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4(5): 492-499.

Hampton, Keith and Wellman, Barry(2000), Examining community in the digital neighborhood: early results from Canada's wired suburb, 194-208 in Toru Ishida and K. Katherine Isbister(eds.)(2000), *Digital Cities: Technologies, Experiences, and Future Perspectives*, Berlin; New York: Springer.

Hillery Jr. and Geroge A.(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Ishii_Kuntz, O. and Seccombe, K.(1989), "The Impact of Children upon Social Support Networks throughout the Life Course", *Jouran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3): 777-789.

Kasarda, John D. and Janowitz, M.(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39(3): 328-339.

Kavanaugh, A. and Patterson, Scott J.(2001), "The Impact of community Computer Networks on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Involve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3): 496-508.

_____ and Carroll, John M., Rosson, Mary B., Zin, Than T., Reese, Debbie D.(2005), "Community Networks: Where Offline Community Meet Onlin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0(4).

Kim, Joongsub and Kaplan, R.(2004), "Physical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Sense of Community: New Urbanist Kentlands and Nearby Orchard Village", *Environment and Behavior* 36: 313-340.

Lund, H.(2002), "Pedestrian Environments and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21: 301-312.

_____(2003), "Testing the claims of New Urbanism: Local Access, Pedestrian Travel, and Neighboring Behavior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9(4): 414-429.

Mann, P. H.(1954), "The Concept of Neighborli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0(2): 163-168.

Mayo, James. M.(1979), "Effects of Street Forms on Suburban Neighborhood Behavior", *Environment and Behaviore*, 11(3): 375-397.

Nasar, Jack L.(2003), "Does Neo-Traditional Development Build Community",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23: 58-67.

Perry, C. A.(1929), *The Neighborhood Unit*, New York: Committee on Regional Plan of New Work and its Environments.

Ross, H. Laurrence(1965), "Uptown and Downtown: A Study of Middle Class Residential Areas",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30: 255-259.

Roth, G., and Wittich, C., et.(1968),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New York: Bedminster Press; Weber, M. *Wirtschaft und Gesellschaft.*

Talen, E.(1999), "Sense of Community and Neighbourhood Form: An Assessment of the Social Doctrine of New Urbanism", *Urban Studies*, 36(8): 1361-1379.

Taylor, Ralph B.(1981), "Territorial Cognitions and Social Climate in Urban Neighborhood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4): 289-303.

Tomeh, Aida K.(1964) "Informal Group Participation and Residential Patter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0(1): 28-35.

Wellman, B.(2001), "Physical Place and Cyberplace: The Rise of Personalized Networ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5(2): 227-252.

_____, Witte, J. and Hampton, K.(2001), "Does the Internet Increase, Decrease, or Supplement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ommit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3): 436-455.

Wilkinson, Kenneth P.(1970), "The Community as a Social Field", *Social Forces*, 48: 311-322.

Wilson, Robert A.(1971), "Anomie in the Ghetto: A Study of Neighborhood Type, Rac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77: 66-88.

Woldoff, Rachael A.(2002), "The Effects of Local Stressors on Neighborhood Attachment", *Social Forces*, 81(1): 87-116.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도시재생사업단, http://www.kourc.or.kr
도시포털, http://www.city.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서울시청 홈페이지 www.seoul.go.kr

<부록 1> 다세대다가구 거주자용 설문지

주거지의 사회적 관계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설문조사

[다세대다가구 거주자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귀하가 이웃들과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시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활동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며, 통계적인 분석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학술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만 활용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 정유진
연락처 : 010-3371-0494, jyj0830@snu.ac.kr

1. 귀하가 만나거나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분들 중 **친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당하는 관계에 따라 몇 분이신지 기재해 주십시오.
(시)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제외시키고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 웃 ( )**명**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분들로 **아래의 ②, ③에는 포함되지 않는 분들**)

② 초·중·고·대학 동문관계, 같은 고향 ( )**명**

③ 직장동료, 취미·문화·연구·운동 등의 모임 등 그 외 관계의 분들 ( )**명**

※ 다음은 귀하의 **'이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의 **예시를 통해 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1) 이 분들과 **친하게 지내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 이 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은?	3) 이분들과 주로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응답의 보기	① 아이들의 유치원, 학교 등을 통해 ② 부녀회 등 주민 조직 모임에서 ③ 취미, 여가활동을 통해서 ④ 종교활동을 통해서 ⑤ 주거지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기입해주세요.)	① 옆집 또는 앞집 ② 같은 건물 ③ 같은 골목 내 주택 ④ 같은 동네 주택 ⑤ 주변 아파트 단지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①내 집 또는 상대의 집 ②골목 ③놀이터 ④근린공원 ⑤주민공동시설 ⑥경로당 ⑦자녀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주변(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⑧주변 상업시설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⑨종교시설 ⑩운동시설,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 ⑪기타(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십시오)

⇓ ⇓ ⇓

친분 있는 이웃		1) 이 분들과 **친하게 지내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 이 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은?	3) 이분들과 **주로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여자 ( ) ② 남자 ( )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3.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수는 본인 포함 몇 명입니까? ( )명

3-1. 다음 연령대의 자녀가 있다면 몇 명인지 기재해주십시오.(중복응답 가능)

① 자녀 없음	② 영유아(0-4세)	③ 미취학(5-7세)	④ 초등학생	⑤ 중학생	⑥ 고등학생	⑦ 대학생 이상	⑧ 출가 및 분가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⑤ 대학원 이상

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① 상근직장인 ② 비상근직장인(파트타임) ③ 자영업

④ 전업주부 ⑤ 무직(학생, 연금생활자)

6. 귀하는 어떤 형태의 주택에 살고계십니까?

① 단독주택 ② 다가구 ③ 연립주택(빌라) ④ 다세대주택 ⑤ 기타

6-1. 귀하가 거주하시는 곳은? ( )동 ( )번지

7. 귀하가 거주하시는 주택의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 )평

8. 귀하가 거주하시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 월세 ④ 무보증 월세 ⑤ 기타( )

9. 귀하는 현재의 주택에서 얼마나 거주하셨습니까? 약 _____ 년_____개월

10. 귀댁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 ( )만원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아파트 거주자용 설문지

주거지의 사회적 관계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설문조사

[아파트 거주자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귀하가 이웃들과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시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활동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며, 통계적인 분석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학술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만 활용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 정유진
연락처 : 010-3371-0494, jyj0830@snu.ac.kr

1. 귀하가 만나거나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분들 중 **친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당하는 관계에 따라 몇 분이신지 기재해 주십시오.
(시)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제외시키고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 웃 ( )**명**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분들로 **아래의 ②, ③에는 포함되지 않는 분들**)

② 초·중·고·대학 동문관계, 같은 고향 ( )**명**

③ 직장동료, 취미·문화·연구·운동 등의 모임 등
그 외 관계의 분들 ( )**명**

※ 다음은 귀하의 **'이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의 **예시를 통해 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1) 친분 있는 이웃	2) 이 분들과 **친하게 지내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3) 이 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은?	4) 이분들과 주로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름 또는 호칭	① 아이들의 유치원, 학교 등을 통해 ②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등 주민조직모임에서 ③ 취미, 여가활동을 통해서 ④ 종교활동을 통해서 ⑤ 주거지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① 같은 층 ② 같은 동 ③ 같은 아파트 단지 (_____동) ④ 이웃 아파트 단지 (____단지이름) ⑤ 같은 동네 주택(단독, 연립, 빌라 등) ⑥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세요.)	**[아파트 단지 내]** ① 내 집 또는 상대의 집 ② 계단, 복도 등 ③ 놀이터 ④ 주민운동공간 ⑤ 쓰레기분리수거공간 ⑥ 주민공동시설 ⑦ 경로당 ⑧ 도서관(문고) ⑨ 자녀의 유치원, 어린이집 근처 ⑩ 산책로 ⑪ 단지내 상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단지 외부]** ⑫ 자녀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주변(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⑬ 주변 상업시설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⑭ 종교시설 ⑮ 운동시설,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 ⑯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 ⇓

친분 있는 이웃		1) 이 분들과 **친하게 지내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 이 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은?	3) 이분들과 **주로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여자 ( ) ② 남자 ( )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3.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수는 본인 포함 몇 명입니까? ( )명

3-1. 다음 연령대의 자녀가 있다면 몇 명인지 기재해주십시오.(중복응답 가능)

① 자녀 없음	② 영유아(0-4세)	③ 미취학(5-7세)	④ 초등학생	⑤ 중학생	⑥ 고등학생	⑦ 대학생 이상	⑧ 출가 및 분가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⑤ 대학원 이상

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① 상근직장인 ② 비상근직장인(파트타임) ③ 자영업

④ 전업주부 ⑤ 무직(학생, 연금생활자)

6. 귀하가 거주하시는 곳은? ( )아파트 ( )동

7. 귀하가 거주하시는 주택의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 )평

8. 귀하가 거주하시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 월세 ④ 무보증 월세 ⑤ 기타( )

9. 귀하는 현재의 주택에서 얼마나 거주하셨습니까? 약 _____ 년_____개월

10. 귀 댁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 ( )만원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 생애주기단계별 여성의 사회관계 비중의 평균순위[1)]

관계유형 / 생애주기	사회관계		이웃비중		친구비중		동료비중	
가구형성기	240.3		97.2	a	311.6	c	273.5	b
자녀양육기	201.4		196.8	b	287.4	b	209.3	a
자녀초등기	221.5		262.6	c	192.8	a	212.6	a
자녀중고등기	263.3		247.7	c	193.0	a	233.7	ab
자녀성년기	235.4		237.2	c	193.1	a	235.7	ab
자녀진수기	204.35		269.8	c	167.9	a	204.5	a
Kruskal-Wallis 검정	10.947 *		74.906 ***		74.406 ***		12.401 **	

*** P<0.01, ** P<0.05, * P<0.1

사후검정 : Mann-Whitney 검정

1) 평균순위 : Kruskal-Wallis 검정은 측정된 데이터를 집단이나 표본크기에 관계없이 크기순으로 배열한 후 순위를 배정한다. 일단 각 변량에 대한 순위가 정해지면 각 집단별로 순위의 평균치를 구한 후에 그 값을 서로 비교한다(이희연 외, 2012: 162)

<부록 4> 변수간 상관관계

	이웃비중	연령	학력	취업유무	가구원수	동거자녀수	가구월소득	가구형성기	자녀양육기	자녀초등기	자녀중고등기	자녀성년기	자녀진수기	주택유형	주택규모	점유유형	거주기간	거주지
이웃비중	1																	
연령	.293***	1																
학력	-.266***	-.653***	1															
취업유무	-.222***	-.146***	.089*	1														
가구원수	.044	-.093**	.050	-.058	1													
동거자녀수	.127***	-.156***	.219***	-.081*	.600***	1												
가구월소득	.019	-.192***	.366***	.071	.192***	.280***	1											
가구형성기	-.318***	-.358***	.170***	.255***	-.335***	-.534***	-.030	1										
자녀양육기	-.139***	-.390***	.212***	-.142***	.023	.059	-.027	-.194***	1									
자녀초등기	.153***	-.195***	.246***	-.004	.121**	.282***	.097**	-.202***	-.297***	1								
자녀중고등기	.053	-.033	.059	-.001	.206***	.270***	.127***	-.134***	-.198***	-.207***	1							
자녀성년기	.045	.333***	-.184***	.071	.167***	.273***	.072	-.158***	-.232***	-.242***	-.161***	1						
자녀진수기	.172***	.706***	-.565***	-.133***	-.232***	-.456***	-.252***	-.150***	-.220***	-.230***	-.153***	-.179***	1					
주택유형	-.018	-.100**	.219***	-.086*	.030	.111**	.265***	-.104**	.103**	.105**	.023	-.046	-.128***	1				
주택규모	.032	.192***	.055	-.083*	.216***	.139***	.380***	-.140***	-.148***	-.046	.039	.228***	.086	.247***	1			
점유유형	.060	.149***	.042	-.013	.150***	.037	.162***	-.108**	-.150***	.026	.030	.165***	.045	.275***	.393***	1		
거주기간	.097**	.454***	-.337***	-.027**	.116	-.037	-.098**	-.123***	-.211***	-.123***	-.003	.193***	.312***	-.263***	.313***	.256***	1	
거주지	-.114**	-.066	.099**	.043	-.048	.021	.168***	.019	-.021	-.033	.089*	-.015	-.019	-.124***	.004	-.121**	-.102**	1

*** P<0.01, ** P<0.05, * P<0.1

<부록 5> 공선성 통계량

변수				공차	VIF
상수					
독립변수	개인속성	연령		.182	5.497
		학력		.458	2.184
		취업유무(0=무직)		.879	1.138
	가구속성	가구원수		.580	1.724
		동거자녀수		.291	3.434
		가구월소득		.657	1.522
		생애주기단계(r=가구형성기)	자녀양육기	.265	3.777
			자녀초등기	.203	4.915
			자녀중고등기	.252	3.963
			자녀성년기	.153	6.530
			자녀진수기	.154	6.512
	주택속성	주택유형(0=다세대다가구)		.682	1.466
		점유면적		.578	1.729
		점유형태(0=임차)		.714	1.401
		거주기간		.580	1.725
	주거지	거주지역(0=A사례지)		.899	1.112

종속변수 : 이웃관계의 비중(%)

<부록 6> 소득에 따른 사회관계의 규모와 비중의 평균차이 (단위: 명, %)

관계유형 / 취업유무	이웃		친구		동료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300이하	7.4	42.8	6.9	29.9	8.5	27.3
300-500이하	6.6	42.4	7.1	31.3	6.5	26.3
500이상	8.0	40.1	8.1	31.2	8.7	28.8
F-검정	0.772	0.252	0.633	0.136	1.049	0.366

*** P<0.01, ** P<0.05, * P<0.1

<부록 7> 지역별 학력 및 소득수준 차이 (단위: 년, 만원)

구분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t-검정
학력 (연차)	A사례지역	244	14.3	3.3	-2.506 **
	B사례지역	203	15.0	2.6	
소득	A사례지역	237	405.5	224.3	-3.529 ***
	B사례지역	196	484.5	240.4	

<부록 8> 이웃속성 자료의 구성

구 분		주택유형	
		아파트 단지	다세대다가구 주택지
관계 형성 계기		자녀, 주민조직활동, 취미·여가활동, 종교활동, 주거지에서 자주 마주침	
이웃의 거주지		같은 층	옆집 또는 앞집
		단지내 같은 동	같은 건물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골목 내 주택
		이웃 아파트 단지	같은 동네 주택 (가로에 둘러싸인 블럭)
		같은 동네 주택(다세대다가구지역)	주변 아파트 단지
		그 외 지역	그 외 지역
교류의 장소	단지 내부 *	내집 또는 상대의 집	내집 또는 상대의 집
		계단, 복도 등	골목
		놀이터	놀이터
		주민운동공간	-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	-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경로당
		도서관(문고)	-
		산책로	근린공원
		자녀의 유치원 어린이집 근처	-
		단지내 상가	-
	단지 외부 *	자녀의 학교 유치원 등 근처	자녀의 학교, 유치원 등 근처
		주변 상업시설	주변 상업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
		운동, 문화, 주민센터 등	운동, 문화, 주민센터 등
		기타	기타

* : 단지내부와 단지외부의 분류는 아파트에 한해 적용한 것임

<부록 9> 주택유형별 이웃의 거주지 분포 (단위: 빈도, (%))

거주지 구분	옆집/ 앞집	같은 건물	골목내 주택	같은 동네	주변 아파트	그 외 지역	전체
단독 다세대	71 (6.9)	58 (5.6)	132 (12.8)	617 (59.8)	139 (13.5)	14 (1.4)	1,031 (100.0)

거주지 구분	같은 층	같은 동	같은 단지	주변 아파트	이웃 주택지*	그 외 지역	전체
아파트	54 (3.6)	177 (11.8)	615 (40.9)	447 (29.7)	166 (11.0)	44 (2.9)	1,503 (100.0)

이웃관계에 응답한 401명의 여성이 관계를 맺고 있는 전체 이웃관계 중 이웃 거주지에 응답한 사례수 = 2,534

* : 이웃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지

<부록 10> 이웃관계 형성에 대한 직업, 이웃과의 거리, 주택유형, 소득수준의 영향

응답자		취업유무	이웃과의 거리	주택유형	소득수준
가구형성기	A	-	○	○	
	B	○	○ (종교는 무관)	○	○
자녀양육기	C	X	○ (어린자녀 경우)	X	○
	D	○	○ (어린자녀 경우)	X	X
	E	○	○	X	X
자녀초등기	F	△	○	X	○
	G	△	X	X	X
자녀중고등기	H	△	○	X	△
	I	○	X	X	X
자녀성년기	J	△	○	X	○
자녀진수기	K	-	○	X	X
	L	-	○	X	X

범례 - :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

○: 자신의 이웃관계에 영향이 있음

△: 자신의 경우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거나 '주변의 모습'에서 그러한 경향을 경험한 경우

X : 자신의 이웃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식

<부록 11> 주택유형별 교류장소 (단위: 빈도, (%))

교류장소**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전체
단지내 교류 공간	내집/상대의 집	149 (14.9)	359 (24.8)	508 (20.8)
	계단 및 복도/골목	104 (10.4)	95 (6.6)	199 (8.1)
	놀이터	59 (5.9)	179 (12.4)	238 (9.7)
	주민운동공간*	0 (0.0)	33 (2.3)	33 (1.3)
	주민공동시설	7 (0.7)	39 (2.7)	46 (1.9)
	경로당	15 (1.5)	14 (1.0)	29 (1.2)
	문고(도서관)*	0 (0.0)	8 (0.6)	8 (0.3)
	유치원/어린이집 근처*	0 (0.0)	32 (2.2)	32 (1.3)
	산책로/근린공원	48 (4.8)	23 (1.6)	71 (2.9)
	단지내 상가	0 (0.0)	75 (5.2)	75 (3.1)
어린이집/유치원/학교		31 (3.1)	96 (6.6)	127 (5.2)
주변 상업시설		421 (42.0)	373 (25.8)	794 (32.4)
종교시설		94 (9.4)	64 (4.4)	158 (6.5)
운동/문화/주민센터		74 (7.4)	56 (3.9)	130 (5.3)
전체		1,002 (100.0)	1,446 (100.0)	2,448 (100.0)

* : 규정에 의해 아파트 단지 내에만 설치 된 공간

** : 각각의 이웃과 교류하는 장소는 가장 빈도가 높은 한 곳만 선택하도록 유도하였음.

<부록 12> 생애주기단계별 교류공간 (단위: %)

생애주기 / 교류공간	가구 형성기	자녀 양육기	자녀 초등기	자녀 중고등기	자녀 성년기	자녀 진수기
내집/상대의 집	15.3	**32.0**	19.5	16.9	21.5	16.0
골목/계단/복도 등	**22.9**	5.8	6.3	0.9	18.4	9.5
놀이터	0.0	**27.4**	10.8	3.6	1.2	10.7
주민운동공간	0.0	1.0	0.9	1.0	2.9	1.9
주민공동시설	0.0	0.5	0.6	0.3	4.8	6.5
경로당	0.0	0.0	0.0	0.0	0.0	**11.1**
도서관(문고)	0.0	0.5	0.6	0.2	0.2	0.0
자녀보육시설	0.0	4.3	2.0	0.2	0.0	0.0
산책로/근린공원	1.7	7.5	0.5	1.2	3.1	5.7
단지내상가	0.0	4.3	7.9	0.7	0.5	0.0
자녀학교 등	0.0	1.7	16.1	2.2	0.7	0.0
주변상업시설	**28.8**	8.9	31.1	**62.9**	26.1	16.8
종교시설	**24.6**	3.6	2.0	6.5	7.4	**12.2**
운동/문화/주민센터	6.8	2.4	1.7	3.6	**13.2**	9.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bstract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Importance of Neighborhood Relations and Spatial Characteristics
: Focused on the Family Life Cycle

Joung, You Ji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novation of transportation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f today brought about network society and disintegration of community-based residential area. As community activation policies come to receive attention as part of regional revitalization strategy, neighborhood relations is recognized of its importance. However, there are not much existing studies as to whether neighborhood relations based on residential area is considered important in comparison with other social relations of urban residents. Moreover, many of these studies on neighborhood relations focuses on only the neighbor and regards neighborhood relations as a static relations. As a result, there are instances where the results of these study are inconsistent in terms of salient factors that influence the neighborhood relations, meeting opportunities in forming such neighborhood relations, spatial boundary and the space of interaction. Since neighborhood relations changes with time as with all social relations due to changing roles and demands of individuals by tim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eighborhood relations as dynamic relation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importance and the changes in

such importance of neighborhood relations by different stages in the family life cycle, that is, giving birth, parenting, departure of children, etc. The importance of neighborhood relations is calculated as the percentage of neighborhood relations of all social relations including friends and colleagues. This study seeks whether neighborhood relation based on residential area is more important compared to other social relations (e.g friendship, companionship) and to whom are such neighborhood relations more important and why? Moreover, the study analyzes the meeting opportunities in forming neighborhood relations, spatial boundaries and space of interaction for such relations depending on the family life cycl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rom an urban planning point of view with an aim to improve neighborhood relations for community activation.

Firstly, neighborhood relations based on residential area is not important for every residents, and the importance of such relations is markedly different by variations in family life cycle. Neighborhood relations based on residential area is more important to female than male, and it is especially more important from elementary schlool period. In other words, the social significance of the community activation policy is not important to every resi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programmes that female can actively participate such as in community building, urban regeneration, etc.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community activation.

Secondly, for females of child rearing and child launching period(old age of parents), the spatial boundary of neighborhood relations is limited in apartment complex(block), and they mainly use community facilities(planned space) within walking distance. This means that the traditional urban planning of neighborhood unit plan is meaningful for those of such family life cycle. In contrast, females of school-aged children period(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interact with residents who live outside of apartment complex(block)

but within the Primary School District, and mainly use non-planned facilities. This means that the traditional urban planning of neighborhood unit plan in this case do not facilitate or encourage neighborhood relations of those in this family life cycle. Therefore, to enhance neighborhood relations of such family life cycle, providing various programs(software access method) centered around children is more effective than providing physical community facilities. In encouraging active participations in community building and urban regenerations associated with the community activation, characteristics of neighborhood relations, meeting opportunities, spatial boundary and space of interactions that vary by different stages of family life cycle need to be considered which suggest both the software and the hardware approach are necessary.

Thirdly, community facilities such as playground, senior citizen (community) center and neighborhood park are a popular place for interaction with neighborhood by women in child rearing period and child launching period. These are main facilities for community life within walking distance of resident's residential area. However, it is necessary to make provision standard such as Civil Minimum on main facilities in leading a community life, since the existing built-up areas still lack basic community facilities.

Fourthly, women of family-formation period, child adulthood period and child launching period mainly form neighborhood relations by casual social encounters. In the aspect of urban planning, increasing the chance of these casual social encounters by residents is an effective method in raising the community activation. To encourage neighborhood relations among households of aging population and low birth rates, design of residential area should consider the traffic flow of residents which would increase the visual contacts among themselves in semi-public and semi-private spaces (such as alley, corridor, and elevator hall) as well as in community facilities

Keywords : neighborhood relations, family life cycle, spatial boundary, space of interaction, meeting opportunity
Student Number: 2005-30834